

유네스코 인문·사회·자연과학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 국내 이행 방안 연구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유네스코 헌장 (前文)

이 헌장의 당사국 정부는 그 국민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서로의 풍습과 생활에 대한 무지는
 인류 역사를 통하여 세계 국민들 사이에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 공통적인 원인이며,
 이 의혹과 불신으로 인한 그들의 불일치가 너무나 자주 전쟁을 일으켰다.
 이제 막 끝난 무서운 대 전쟁은 인간의 존엄, 평등, 상호존중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부인하고,
 이러한 원리 대신에 무지와 편견을 통하여
 인간과 인종의 불평등이라는 교의를 퍼뜨림으로써 일어날 수 있었던 전쟁이었다.
 문화의 광범한 보급과 정의, 자유, 평화를 위한 인류의 교육은
 인간의 존엄에 불가결한 것이며
 또한 모든 국민이 상호원조와 상호관심의 정신으로써 완수하여야 할 신성한 의무이다.
 정부의 정치적·경제적 조정에만 기초를 둔 평화는
 세계 국민들의 일치되고 영속적이며 성실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다.
 따라서 평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인류의 지적·도덕적 연대 위에 평화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헌장의 당사국은
 교육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고,
 객관적 진리는 구속받지 않고 탐구되어야 하며,
 사상과 지식은 자유로이 교화되어야 함을 확신하면서,
 국민들 사이에 의사소통 수단을 발전 확대시키는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생활을 더욱 진실하고 더욱 완전하게 알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수단을 사용할 것을 동의하고 결의한다.

이에 헌장의 당사국들은
 세계 국민들 사이에 교육적, 과학적, 문화적 관계를 통하여
 국제연합의 설립 목적이며 또한 국제연합 헌장이 선언하고 있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의 복리라는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를 창설한다.

1945년 11월 16일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출처: www.unesco.org(영문), 유네스코한국위원회(국문)

발간사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내 이행 방안 연구에 참여해주신 정부부처와 기관들에 감사드립니다.

빈곤 퇴치와 경제개발을 넘어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 환경 파괴 등 전지구의 과제에 공동 대응하고자 유엔은 2015년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채택하여,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는 양질의 교육부터 성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해양 및 생물다양성 보전 등 유네스코의 인문사회·자연과학 프로그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목표가 많아, 우리 위원회는 국내 인문사회·자연과학 관련 기관과 협력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와 2017년 11월 30일에 열린 포럼은 국제사회가 함께 이행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국내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이행을 촉진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6년 말부터 국내 기관들과 지속가능발전목표 국내 이행을 위한 협력을 시작하였습니다. 분기마다 추진 현황과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포럼에서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17개 목표가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되어 있기에,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기관이 참여하여 관련 목표에 대한 이해와 이행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3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노력과 성과가 내년에도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이번에 참여한 기관뿐 아니라 국내 관계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모아지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도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김 광 호

CONTENTS

01 유네스코 인문·사회·자연과학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 국내 이행 방안 연구

02 주제연구 1: SDGs 이행과 유네스코 인문·사회과학 사업

1. SDGs 젠더목표 달성에 있어서의 UNESCO의 기여[SDG 5] 1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은하 국제개발협력 센터장)
2. 청소년 분야 SDGs 이행 과제와 네트워크 구축 방안[SDG 4] 4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세영 부연구위원)

03 주제연구 2: SDGs 이행과 유네스코 자연과학 사업

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보호지역[SDG 15] 67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 허학영 연구위원)
2.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 및 이용 이행 방안[SDG 14] 91
(해양수산부 국제기구팀 흥근형 사무관)
3. 물 안보 분야의 SDGs 기여[SDG 6] 103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 임광섭 박사)
4. 지질공원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SDG 4, 8] 135
(국립공원관리공단 국가지질공원사무국 유완상 박사)

04 SDGs 이행을 위한 유네스코 네트워크 포럼 결과

1. 종합토론 "SDGs 국내 이행 및 파트너십 구축" 163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센터장)
(권혁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기획부장)
(양두하 국립공원관리공단 박사)
(이윤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사)
(홍일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최옥곤 지권환경연구소 박사)
2. 포럼 사진 169





01

유네스코 인문·사회·자연과학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 국내 이행 방안 연구



유네스코 인문·사회·자연과학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 국내 이행 방안 연구

개요

2030년까지 추진할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이행에 기여하고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국내의 유네스코 관련 협력기관들과 SDGs 국내 이행 및 국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포럼을 개최하여 결과를 공유함

목적

- 유네스코 인문·사회·자연과학 분야에서 SDGs 국내 이행 촉진 방안 연구
- SDGs에 대한 이해 및 이행을 위한 노력 확산
- 정부 및 관련기관의 SDGs 이행에 기여
- SDGs 이행에 유네스코의 기여 강화

내용

- SDGs 개요 설명
- 인문사회·자연과학 분야별 SDGs 기여 방안 연구
- SDGs 국내 이행을 위한 제언

연구자 및 연구 주제

SDG	연구자	연구 주제
SDG 5 성평등 (여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은하 국제개발협력 센터장	SDGs 젠더목표 달성에 있어서의 UNESCO의 기여
SDG 4 교육 (청소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세영 부연구위원	청소년 분야 SDGs 이행 과제와 네트워크 구축 방안
SDG 15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 허학영 연구위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보호지역
SDG 14 해양	해양수산부 국제기구팀 홍근형 사무관	UN SDG 14 이행 방안 연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 및 이용
SDG 6 물 (물 안보)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 교육센터 임광섭 박사	물 안보 분야의 SDGs 기여
SDG 4 교육, 8 경제성장 (지질다양성)	국가지질공원사무국 유완상 박사	지질공원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추진 일정

- 2016년 12월 14일: 1차 자문회의 개최
 - 참여 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은하 국제개발협력센터장,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진흥본부 권혁도 활동기획부장, 금강홍수통제소 이민호 박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제협력부 김현영 업무총괄책임자, MAB한국위원회사무국 박소영 차장, 국가지질공원사무국 문창규 총괄과장
 - 논의 사항: SDGs의 국내 이행 연구 필요성에 공감하고 각 기관의 분야에서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주관하는 SDGs 기여 방안 포럼(2017 하반기 예정)에서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로 함
- 2017년 4월 18일: 2차 간담회 실시
 - 참여 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현 자립·역량연구실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희수 국제협력부장, 김경진 박사, 금강홍수통제소 최용준 박사
 - 논의 사항: 각 기관 소개 및 연구 추진 계획 논의
- 2017년 7월 27일: 3차 간담회 실시
 - 참여 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활동·참여연구실 황세영 박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진흥본부 권혁도 활동기획부장,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i-WSSM) 임광섭 박사, MAB한국위원회사무국 권은정 과장, 국가지질공원사무국 유완상 박사
 - 논의 사항: 기관별 연구 추진 현황 공유
- 2017년 9월 29일: 4차 간담회 실시
 - 참여 기관: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홍근형 사무관, MAB한국위원회사무국 권은정 과장, 국가지질공원사무국 유완상 박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현 연구실장, 황세영 박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권혁도 활동기획부장
 - 논의 사항: 연구 초안 공유 및 포럼 일정 논의
- 2017년 11월 30일: SDGs 이행을 위한 유네스코 네트워크 포럼 개최
 - SDGs 이행 방안 연구 결과 발표 및 국내협력 방안 논의



02

주제연구 1

SDGs 이행과 유네스코 인문·사회과학 사업





SDG 5-여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은하 국제개발협력센터장



SDGs 젠더목표 달성에 있어서의 UNESCO의 기여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은하 국제개발협력센터장

I. 들어가며

2015년 전 세계가 새로운 개발목표인 SDGs에 합의한 이후 각국 정부, 국제기구, 국제 NGO, 시민단체, 지방 단체 등은 향후 15년 동안 달성해야 할 새로운 목표를 이해하고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각국 정부들은 SDGs의 자국 내 이행을 위한 국내 메커니즘을 재정비하고 국가 주요 계획을 SDGs와 일치시키고 있으며,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NGO들 또한 SDGs를 단체의 임무와 SDGs를 연결시키고 프로그램 단위에서까지 SDGs 달성을 추구함으로써 SDGs를 내재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말 현재, 한국 정부의 경우 아직 SDGs 국내 이행을 위해 통합된 컨트롤 타워는 구성되지 않았으나, 환경부의 주도로 지속가능발전 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며, 각 부처 그리고 연구기관에서는 SDGs의 국내 이행을 위한 기초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본고는 글로벌 차원의 SDGs 달성을 위한 노력이 박차를 가하는 시점에서 오랜 기간 양성평등의 가치를 조직과 사업에 주류화 시켜온 UNESCO의 사례를 살펴보고, SDGs 내 젠더 관련 목표 달성에 있어서의 UNESCO의 기여를 검토하고자 한다. UNESCO는 교육문화과학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과 조직에 있어서 성주류화를 모범적으로 수행해 왔다. 아울러 UNESCO는 인문사회과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원국들이 SDG 5번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지원함을 명시하고 있다.² 이는 SDGs 젠더 목표 달성을 위해 방안을 모색하는 타 기관과 사업에 있어서 모범사례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UNESCO 내 사업과 조직운영이 어떻게 SDGs 내 목표 5번의 실현에 기여하는지를 분석하고 이로부터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 2장에서는 SDGs를 본격적으로 논하기 전에 MDGs 체제의 수립, 성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 특히 양성평등 목표인 3번의 목표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고찰한다. 이어 제 3장에서는 SDGs의 체제의 수립과정과 MDGs와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SDGs 내의 젠더 목표의 특징을 분석한다. 제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UNESCO의 사업과 조직에 있어서의 여성과 여아가 어떻게 포함되고 주류화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이러한 요소들의 SDGs 젠더목표에의 기여도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SDGs의 목표달성에 있어서의 UNESCO의 기여도를 요약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한다.

1 본 연구의 기초자료 조사를 위해 도움을 준 김꽃별 자료조사원에게 감사를 전한다.
2 UNESCO,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or Social and Human Sciences, <https://en.unesco.org/sdgs/shs> (2017.12.12. 인출)

II. MDGs와 젠더

1. MDGs 성과와 한계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란 2000년도 UN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합의한 공동의 개발협력목표이다. 2000년 9월 UN 새천년 정상회의에서는 세계의 극한 빈곤의 퇴치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촉구한 UN 새천년 선언(Millennium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은 모든 UN회 원국들과 전 세계 유수의 개발 연구기관이 정량적 목표에 합의하면서 도출된 최초의 범지구적 전략이었다. 이 선언을 바탕으로 2015년까지 달성을 약속하는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수립되었고 여기에는 7개의 목표와 하나의 파트너십에 관한 약속이 포함되었다. 목표는 ① 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 ②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③남녀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 ④ 아동 사망률 감소, ⑤ 모성 보건 증진, ⑥ HIV/AIDS·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⑦ 지속가능한 환경보존 까지 목표 그리고 국제 공동의 파트너십을 명시한 ⑧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의 달성을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MDGs 달성을 위한 노력으로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절대빈곤이 감소하였고, 개량된 식수에 접근이 어려운 인구의 비율이 절반으로 감소하였다. 남녀 간 초등교육에서 기회의 성 평등을 달성하였고,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였다. 유아(영아) 사망률 또한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나타냈다(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 6).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MDGs는 여러 면에서 그 한계를 나타냈다. MDGs 수립 시, 유엔 내부의 소수의 사람들만이 참여하였다는 점, 목표가 제한적이어서 전 세계의 빈곤을 퇴치하고 점점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했던 점, 특히 8가지의 목표만으로는 다양하고 심화되는 전 지구적 위기에 대해 해답과 방향을 제시하기 어려웠다는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2016:7) 아울러 세계 빈곤인구의 인간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기존 방식으로는 기초 수준 이상의 개발을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부각되었다(임원혁 2012:3-4). MDGs가 처음 논의된 1990년대와 달리 이제는 신흥국의 부상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 절대빈곤의 축소와 상대빈곤(불평등)의 확대, 상호의존과 환경문제의 심화 등으로 인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발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도 지적되었다(임원혁 2012:3-4). 또한 범세계적 세부목표를 제시하고 추진 성과를 지표로 측정하는 접근법만으로는 각국이 처한 환경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고 개발계획의 이행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임원혁 2012:3-4). 또 하나의 MDGs의 중요한 한계로는 빈곤의 인권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문도운, 2014:2). 빈곤의 감소는 단순한 수치 하락을 목표로 하였고, 빈곤의 근본적 원인인 불평등은 포함되지 않았고, 가난의 근본적 원인이자 결과로서 악순환의 고리에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는 등, MDGs는 여러 측면에서 그 한계를 드러내었다(문도운, 2014:2).

〈표 II-1〉 MDGs 목표와 지표

	목표	연구 주제
1	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	- 2015년까지 하루에 1,25달러 이하로 사는 사람들과 굶주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절반으로 낮춘다. - 여성, 남성과 젊은이들에게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를 제공한다. - 2015년까지 기아에 허덕이는 인구를 반으로 줄인다.
2	초등 교육 보편화	- 2015년까지 모든 어린이의 초등학교 졸업을 보장한다.
3	양성평등 및 여성권강화	- 2015년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성 불균형을 최대한 없애고, 2015년까지 완전하게 없앤다.
4	아동 사망률 감소	- 2015년까지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을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인다
5	모성보건 증진	- 2015년까지 여성의 출산 도중 사망률을 현재의 4분의 3 수준으로 줄인다. - 2015년까지 출산과 관련된 건강 지킴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도록 한다.

6	에이즈와 말라리아 등의 질병 퇴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까지 모든 에이즈환자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 2015년까지 말라리아 등 주된 질병의 발병을 예방한다.
7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국의 정책에 지속가능 개발의 원칙을 도입하도록 하고, 환경자원의 손실을 줄이도록 권장한다. - 개발도상국들의 부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며,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확대해 나간다. - 의약 업체들과 협력하여 개발도상국들 내에서 필수 약품들을 적절한 값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새로운 기술,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혜택을 제공한다.

출처: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ncsd.go.kr/app/sub02/19_tab2.do

2. MDGs 내의 젠더목표: 독자 목표 3번과 크로스 커팅 목표로서의 여성과 여아

MDGs 내에서 여성과 여아 관련 주제들은 독자 목표 3번인 “양성평등 및 여성권한강화”에서 채택되었다. 세부 목표로는 2015년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성불균형을 최대한 없애고 2015년까지 완전하게 없애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또한 여성과 여아 관련 이슈들은 다른 목표에도 크로스커팅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1번 빈곤 및 기아퇴치 목표에서는 여성과 남성, 젊은이에게 관철은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여성의 일자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번 교육목표에서는 “모든”어린이의 초등학교 졸업을 보장함으로써 여아의 교육을 암시적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4번 아동 사망률 감소 목표에서는 5세 이하 “아동”의 사망을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여아를 포함하였고, 산모건강증진 목표인 5번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MDGs 내 여성과 여아 관련 목표의 달성 성과는 부분별, 지역별로 차이를 보인다. 여성과 남성 간 취약 고용은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데, 이 지역의 2011년 취약 고용 비율은 남성이26%인 것에 비해 여성은 44%가 해당되었다. 서아시아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취약 고용이 각각 41%와 22%이다. 성별과 상관없이 취약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으로 여성과 남성이 각각 85%와 69%를 차지했다. (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12) 2015년까지 산모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웠다. 청소년 임신 감소와 피임 도구 사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전보다 오히려 개선 속도가 느리게 나타났다(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2-2013:7) 5번 목표 ‘모성 보건 증진’에서 개도국의 모성 사망률은 1990년 이후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문 의료인의 도움에 따른 출산 비중은 전 세계(개도국) 기준 1990년 59%에서 2014년 71%로 개선되었으나, 같은 수치의 개도국의 도시와 농촌 격차가 30% 이상 되며, 아직도 개도국의 절반의 산모들만 최소로 권장되는 4회의 산전 건강진단을 받고 있다(김태진, 2016)³

3. MDGs 내 여성과 여아 관련 목표의 한계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젠더 전문가들은 MDGs 내 여성과 여아 관련 목표에 있어서의 여러 한계를 지적하였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김양희 2016). 첫째, MDGs에서는 여성과 여아 관련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구조적인 요인에는 가정폭력, 성폭력, 전쟁의 무기로서의 강간, 여성할례(FGM), 명예살인, 강제혼 등 사회적 규범과 문화에 뿌리박힌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과 차별이 포함된다. 또한 폭력, 빈곤, 자원의 소유,

³ 김태진 (2016), MDGs 목표이행 결과 분석, KOICA Newsletter, 2016년 2월. http://webzine.koica.go.kr/201602/content.php?code=201602_010208 (2017. 12. 11. 인출)

리더십과 같은 사회 내 권력관계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차별도 포함한다. 둘째, 재생산보건분야에 있어서는 여성의 생애주기적 관점에서의 권리적 접근이 아닌 출산과 관련된 이슈로만 접근하였다. 따라서 MDGs에서는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모성사망률, 아동사망률의 이슈만이 다루어 졌으며, 따라서 피임, 가족계획, 성병예방 등의 보다 여성의 재생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의 이슈는 포함되지 않았다. 셋째, 젠더 관련 목표들이 분절되어 제시되었고, 통합적인 관점이 결여되었다. 이러한 한계들로 인해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한강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III. SDGs 와 젠더 목표

1. SDG 체제의 시작

1) SDGs의 수립

2015년으로 지정된 MDGs의 달성 시한이 다가오면서 유엔은 2010년 유엔총회 결의안과 2012년 Rio+20 결 과문서를 근거로 하여, 사무총장과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UN Committee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CSD)를 중심으로 새로운 개발의제의 내용을 준비하였다. 그 결과 2014년 9월 열린 유엔 총회에 지속가능 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제안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2015년 7월까지 정부 간 협상이 진행되었다. 이후 2015년 9월 유엔 총회와 특별정상회담에서는 post 2015 개발 아젠다로 「우리가 사는 세계의 변혁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채택되었고, 이 문서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17개의 목표(Goals)와 169개의 구체적인 세부목표(Targets)를 명시하였다. 이는 다음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지속가능발전목표>

목표	목표
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목표 2	기아 종식, 식량안보와 영양 개선 달성 및 지속가능한 농업 진흥
목표 3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 및 복리 증진
목표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목표 5	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강화
목표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목표 7	모두를 위한 저렴하고 신뢰성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목표 8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모든사람을 위한 안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노동 촉진
목표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촉진
목표 10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 완화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 보장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행동의 실시
목표 14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대양, 바다 및 해양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

목표 15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역전 및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목표 16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및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목표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출처: 김지현 (2016)에서 발췌

2) SDG와 MDG의 차이점

이렇게 수립된 SDGs는 여러 면에서 MDGs와는 상이한 특징을 보인다. 첫째, SDGs는 그 목표와 범위에 있어서 MDGs 보다 훨씬 방대하다. MDGs에서의 7개 목표는 SDGs에서는 17개로 양적인 면에서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분야도 확대되었다. 기존의 MDGs가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탄생하였고 빈곤, 보건, 교육, 여성 등의 분야에서 달성이 요구되었다면, SDGs에서는 환경과 경제성장의 이슈들이 대거 포함됨으로써,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보존'의 세 가지 큰 축으로 구성되게 되었다. <표 III-1>에서 볼 수 있듯이, 목표 1번에서 6번까지는 사회발전, 목표 8번에서 11번까지는 경제성장, 목표 7, 12, 13, 14, 15는 자연생태계와 관련된 목표이다. 즉, MDGs가 빈곤 퇴치라는 지엽적인 주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SDGs는 경제, 환경, 그리고 사회를 각각의 경쟁적 축으로 보지 않고 우리 사회에 내장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관점에서의 새로운 주제들, 예를 들어서, 도시, 물과 위생, 에너지, 그리고 기후변화와 같은 주제들이 두드러지게 강조되었다(이클레이 한국사무소, 2016:3)

<표 III-2> 새천년개발목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 비교

I 새천년개발목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 비교 I		
목표의 이름	새천년개발목표 MDGs(2002-2015)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2016-2030)
범위	사회발전 중심	지속 가능한 발전(경제, 사회, 환경 포함)
달성 주제	극심한 빈곤 중심	모든 형태 빈곤과 불평등 감소
달성 대상 국가	개발도상국이 달성해야 하는 문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공통의 문제
재원 마련	개발재원: 공적개발원조(ODA)*중심 (공여국 -> 수원국)	국내공공재원(세금), ODA, 민간재원 (무역, 투자) 등 다양
감시와 모니터링	자발적으로 이행을 유엔에 보고	유엔이 주도하여 각 국가의 보고를 권고함

*공적개발원조(ODA)란 빈곤퇴치 및 경제/사회개발을 위해 국가의 세금으로 개발도상국을 돕는 원조를 뜻합니다.

출처: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2016), p.8

또한 SDGs를 지지하는 구성요소로서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지구환경(planet),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의 5P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도식화 하면 아래 그림 <III-1> 와 같다.



출처: <https://www.slideshare.net/mes0/sustainable-development-goals-sdgs-70859274>

<그림 III-1>

둘째, MDGs와 SDGs의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으로는 기존의 MDGs가 개발도상국의 발전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면, SDGs는 선진국을 포함한 전세계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할 목표로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는 MDGs의 비판 대상이 되었던 '이미 개발된' 국가와 '개발 중'인 국가라는 이분법적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이클레이 한국사무소, 2016:3). 이는 선진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빈곤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으며, 한 명도 빼놓지 않는다는 (leave no one behind)의 철학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MDGs와는 달리 SDGs 수립과 도출 과정은 참여적 프로세스로 진행되었다. SDGs의 경우 3년의 수립 기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소셜 미디어나 기타 플랫폼을 통해 목표 수립 논의에 참여하였다. 과정에는 국가 간 합의 과정이 포함되었고, 9개 분야의 주요그룹(Major Group)을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폭넓은 논의가 전개되었다. 아울러 SDGs의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열린작업그룹(OWG)을 조직하고 폭넓은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을 협상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이 SDGs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며, 기초 및 광역지방정부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에서의 저명한 활동가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2016:3). 이러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새로운 정신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에도 잘 드러나 있다(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2016: 7). 이 외에도 MDGs 와 SDGs의 차이점은 <표 III-2>에 잘 정리되어 있다.

3) SDGs의 이행 수단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수립된 SDGs 목표의 이행을 위해서 UN 내에서는 두 축으로 이행 점검이 진행되게 된다. 우선 유엔 고위급 정치 포럼(HLPF: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은 유엔 총회,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와 함께 SDGs 이행을 점검한다. 각국은 SDGs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각 국의 장관급의 지위를 가진 사람의 주도로 유엔에 제출하며, 이는 HLPF에서 검토를 받게 된다(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2016: 22). 2017년 7월에 고위급정치포럼이 개최되었고, 목표 1번, 2번, 3번, 5번, 9번, 14번, 17번의 목표가 검토되었다. 우리나라도 2017년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검토를 받았다. SDGs가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2030년에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려면 지표를 수립하고 점

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SDGs의 달성 여부를 가능하는 지표는 Inter 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s, IAEF-SDGs)에 의해 만들어 졌고, 지금도 수정 작업을 진행 중 에 있다. 또한 지표 수립에 있어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할 것(Leave No One Behind)의 가치를 견지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성별, 나이별, 등으로 세분화 하여 분리된 통계를 사용하는 작업이 필수적이 되었다. 이러한 통계가 없이는 누가 어떠한 차별 하에 처해 있으며, 어떠한 필요가 있는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특정 계층이 소외될 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SDGs 체제 하에서는 각국의 통계 생산 역량이 달성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선행 요건이 되었다.

4) SDGs의 한계와 도전

이러한 이상적인 목표와 지표 수립에도 불구하고 SDGs의 달성에는 여러 도전과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SDGs의 성공적 이행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 정부들이 그들의 기존 개발의제에 부합하는 목표들에만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고, 이는 통합적 접근을 원칙으로 하는 SDGs의 달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SDGs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통합적 패키지로 디자인 되었고, 일부 목표를 등한시 할 경우 전체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이클레이 브리핑 시트 2016:3-4). 둘째, 데이터 수집과 모니터링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MDGs와 마찬가지로, SDGs의 모니터링은 UN이 글로벌 기준을 제시하고 각 국가의 통계기관이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MDGs 보다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목표의 개수가 더 늘어난 SDGs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계역량은 필수 선행요건이며, 이를 갖추지 못한 국가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이클레이 브리핑 시트 2016:3-4). 셋째, SDGs의 이행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는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해 현재 추세로 약 17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이클레이 브리핑 시트 2016:4). 선진국들은 모든 UN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개도국들은 소위 '선진국'들이 원조협약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재원마련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찾지 않고서는 SDGs가 이끄는 야심찬 목표의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클레이 브리핑 시트 2016:4).

2. SDGs와 젠더 목표

MDGs와 마찬가지로 SDGs에서도 여성과 여아는 독자목표이자 크로스 커팅 목표로 주류화 되었다. <표 III-3>는 SDGs 독자 목표 5번을 각 세부목표 별로 제시하고 있다.

1) 5번 독자 목표

MDGs에서는 여성과 여아 관련 목표가 독자 목표로 설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를 위한 세부목표로는 교육에 있어서의 남녀평등만이 포함되었다. 반면, SDGs에서는 아래 <표 III-3>와 같이 5번 독자 목표 아래 총 9개 세부목표로 세분화 되었다.

<표 III-3> SDGs 목표 5번: 양성평등과 여성권한강화

세부목표	내용
5.1	모든 곳에서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종식
5.2	인신매매와 성적착취 및 기타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여,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공적·사적인 영역에서의 모든 형태의 폭력철폐
5.3	아동결혼, 조혼, 강제결혼과 여성할례와 같은 모든 유해한 관습의 근절
5.4	국가별로 적절한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사회보호의 제공과 가구, 가족 내 책임 분담의 증진을 통한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한 인정 및 가치 부여

5.5	정치·경제·공적 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및 리더십을 위한 평등한 기회를 보장
5.6	국제인구개발회의의 행동계획(Programme of Actio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과 북경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 및 이에 대한 검토회의의 결과문서에 따라 합의된 대로 성·재생산건강 및 재생산 권리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5.a	국내법에 따라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한 평등한 권리 및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자산 소유와 통계, 금융서비스, 유산 및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을 부여하기 위한 개혁을 단행
5.b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해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진
5.c	모든 수준에서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강화를 위한 건전한 정책과 집행가능한 법을 채택하고 증진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체 번역

각 목표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5.1 목표는 다른 여러 목표에 선행되는 것으로서, 여성과 여아에 대한 총체적 차별을 철폐할 것을 목표로한다. 이는 구체적인 실행과제라기 보다, 5번 목표 전체를 아우르는 정신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2와 5.3은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목표이다. 5.2의 경우 가정폭력, 성폭력을 포함하는 여성과 여아에 대한 각종 폭력을 철폐하는 것이며, 5.3은 여성과 여아에 대한 유해한 관습을 철폐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여기에는 조혼, 강제혼, 명예살인, 여성할례(female genital mutilation) 등 구조적, 사회 규범적 요인에 기인한 관습들이 포함된다. 5.4는 그동안의 그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였던 여성의 무보수 돌봄 및 가사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5.5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여성의 참여가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에서는 배제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정치, 경제, 공공부문에 있어서 여성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표이다. 5.6은 여성과 여아의 보건에 관한 목표인데, 이는 기존의 MDGs의 모성보건 목표와는 달리 피임 등을 포함하는 재생산권에 대한 인권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어지는 목표 5.a는 여성에게 자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목표로서 특히 개발도상국 여성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중점을 두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5.b는 여성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결정짓는 중요 요소로서 여성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지표로는 여성의 휴대전화 보급률을 책정함으로써 디지털 성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5.c는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 법안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촉구함으로써 5번 목표가 견고한 제도적 기반 아래 이행될 것을 보장하는 목표이다.

SDG 5번은 MDG 3번 양성평등 목표와 유사하게 이해될 수 있으나, 세부목표를 분석하여 보면 젠더적 관점에서 매우 큰 변화가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SDGs 5번 목표의 경우 젠더 관련 구조적 해결을 요하는 이슈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즉, 단순한 교육 및 보건 서비스 전달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문화적, 사회 관습적 타파를 요구하고, 기존의 남성과 여성의 역할 변화를 요구하는 요소들로 구성되었다.

2) 크로스커팅 목표

이와 더불어 여성과 여아는 총 17개의 목표 중 목표 2번, 3번, 4번, 8번, 10번, 11번, 13번, 16번의 총 9개의 목표에 크로스 커팅되었다. 예를 들면, 기아와 영양 관련 목표 2번에 있어서는 세부목표와 지표 수준에서 여성과 여아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여성이 가정의 식량안보(food security)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특히 개도국일 수록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음을 고려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UNESCO와 밀접히 연관이 있는 교육목표 4번에서는 거의 모든 목표에서 여성과 여아가 주류화 되어 있으며 보건목표 3번에서도 여성과 여아의 건강과 보건 관련 세부 목표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IV. UNESCO와 젠더

양성평등은 UNESCO의 글로벌 우선순위이며, 교육을 받을 권리와 SDGs를 달성하는 노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⁴ 본 장에서는 UNESCO 내 양성평등 관련 사업을 소개하고 조직 운영에 있어서의 성주류화를 분석함으로써 SDGs 목표 달성을 위한 UNESCO의 기여도를 검토하고자 한다.

UNESCO에서는 양성평등 관련 주요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주요 개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조직 내의 사업 시행 및 운영에 있어서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가장 근간이 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UNESCO의 "양성평등분야 실행계획(Gender Equality Action Plan)"에서는 양성평등관련 주요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양성평등이란, 평등 권리, 남녀평등 기회 및 남녀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인권 이론이며 국제법, 행동강령 및 선언들과 부합하는 사람중심 개발(people-centered development)의 전제 조건이다(UNESCO, 2014a: 11).
- 성주류화란 양성평등 이슈를 고려하고 모든 프로그램에 양성평등 이슈를 반영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methodology)이며, 남녀 모두의 경험을 정책 및 프로그램 기획, 시행, 모니터링, 평가 과정에 포함하는 전략이다(UNESCO, 2014a: 15) UNESCO의 직원들은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성주류화 전략 방법에 대해 숙지하게 된다.
- 젠더 특화 프로그램이란 여성과 여아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Girls' and Women's Education), UNESCO 로레알 "과학에서의 여성"(UNESCO-LOREAL "For Women in Science"), 미디어와 여성(Women in the Media) 등 특정 상황에서 일어나는 남녀 불평등을 줄이고자 계획된 프로그램을 말한다(UNESCO, 2014a: 15-16).

이러한 양성평등에 관한 명확한 개념화 하에 UNESCO는 조직의 5가지 영역인 교육, 자연과학, 문화, 사회문화,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에서 젠더특화프로그램 및 성주류화 프로그램을 통해 남녀평등과 여성 권익을 증진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이 5가지 영역 내의 UNESCO의 젠더 관련 사업을 분석하고 섹터별 사업이 어떻게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 분석하고자 한다.

1. UNESCO 내 젠더관련 사업 분석

1) 교육

UNESCO 내 교육사업은 여성의 교육 기회 확대, 교육의 질적 수준제고를 통해 여성의 사회적 권리 신장 및 부당한 남녀 간의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UNESCO, 2014a: 12). 교육에 있어서 양성평등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 교육은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남녀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UNESCO, 2014b: 17-18). 아울러 조기 결혼 및 출산으로 사회 활동 참여가 낮은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UNESCO, 2014b: 29-30). 또한 출산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 배출과 문맹률 감소를 통해 백신 등의 정보 공유를 통해 유사사망을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UNESCO, 2014b: 19-23).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교육률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에도 여아들은 남아보다 교육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고, 약 1600만 명의 여아들이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여성은 전

4 UNESCO, Education and gender equality, <https://en.unesco.org/themes/women-s-and-girls-education>에서 2017.11.23. 인출.

세계 문맹의 2/3를 차지하고 있다.⁵ 여성의 교육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들로 빈곤, 지리적 격리(geographical isolation), 소수 민족, 장애, 조기 결혼과 임신, 학교 내외의 폭력,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 등이 있다.⁶ 또한 초등교육 과정을 수료하였어도, 조기 결혼과 임신, 가사, 비여성친화적(non-gender-sensitive) 교육 환경 등이 중등교육을 저해하고 있다(UNESCO, 2015: 3).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UNESCO는 대표적 여성과 여아 교육 사업으로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Better Life, Better Future)"를 진행하고 있다. 동 사업은 2011년 여성 교육을 통해 빈곤의 악순환을 타파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시작된 여성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이다. 중등교육(secondary level)과 문해력(literacy) 분야에서 여성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며, 다음 <표 IV-1>와 같이 3가지 주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⁷

<표 IV-1>

프로젝트	내용
소녀들의 교육권리를 위한 UNESCO 말라라 기금 ⁸ (UNESCO MALALA FUND FOR GIRLS' RIGHT TO EDUCATION)	- 2012년 소녀 활동가 말라라(Malala Yousafzai)가 여성교육을 확대하고 특히 분쟁 국가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시작됨 - 파키스탄이 최초로 1000만 달러를 기금에 기부했으며, 2014년 이후 CJ그룹이 주요 기여자임. - 3가지 중점 목표: 분쟁 및 재해 국가의 여성 교육 기회 확대, 교육 콘텐츠의 질 향상, 안전한 교육환경 보장을 위한 정책 및 역량 강화 - 약 10개의 성공사례가 공유되었으며 예로 캄보디아 공장에서 근무하는 여성 의류 노동자의 문해율을 향상하기 위하여 공장 환경에서도 읽기, 쓰기 프로그램이 시행될 수 있는 교육 자료 개발; 나이지리아의 폭력충돌 및 학교납치 환경을 고려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고자 100개 이상의 초등, 중등 학교에 안전 워크숍을 개최하고 안전한 학교 키트를 포함한 교육 자료를 공유
교육을 통한 여성 능력 강화 ⁹ (Joint Programme on Empowering Adolescent Girls and Women through Education)	- UNESCO, UN Women 및 UNFPA와 공동으로 여성 교육 증진을 위해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보건, 사회 분야 등과 같이 연계하여 여성의 권리 신장을 지원 - 2016-2021년 약 5년동안 여성(10세-24세)들의 교육에 힘을 쓸 계획이며, KOICA에서 1500만 달러의 재정지원으로 말리, 네팔과 탄자니아에 프로그램이 실행될 예정 - 4가지 중점 요소: 여성 교육의 질 향상, 조기 임신과 중도포기 방지를 위해 보건과 교육 연계 강화, 교육, 보건, 사회분야 간의 연계 및 거버넌스 강화, 성 인지적(gender-responsive) 교육 정책 실천을 위한 데이터 및 증거자료 구축

5 UNESCO, Education and gender equality, <https://en.unesco.org/themes/women-s-and-girls-education>에서 2017.11.14. 인출.

6 UNESCO, Education and gender equality, <https://en.unesco.org/themes/women-s-and-girls-education>에서 2017.11.14. 인출.

7 UNESCO, " 'Better Life, Better Future' global partnership for girls' and women's education", <https://en.unesco.org/themes/education-and-gender-equality/better-life-better-future>에서 2017.11.14. 인출.

8 UNESCO, UNESCO Malala Fund for Girls' Right to Education, <https://en.unesco.org/themes/education-and-gender-equality/malala-fund>에서 2017.11.14. 인출.

9 UNESCO, Empowering Adolescent Girls and Young Women through Education, <https://en.unesco.org/themes/education-and-gender-equality/unfpa-unwomen-programme>에서 2017.11.14. 인출.

UNESCO/ HNA 파트너십 ¹⁰ (UNESCO/ HNA Partnersh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2월 하이난 신탁 기금(Hainan Funds-in-Trust)이 설립되었으며, 2015년 9월 여성교육에 관한 국제 세미나에서 아프리카 및 아시아 국가들의 양성평등 교육 성취를 가속화 할 수 있도록 7개 국가에서 2건의 보완 프로젝트가 실행되었음. 프로젝트는 총 5백만 달러 예산으로 5년간 실시될 예정 - 3가지 목표: 교육 relevance 확대, 초등 및 중등교육의 질 향상, 안전한 교육환경 및 학교 내외의 여성에 대한 사회적 폭력(gender-violence) 퇴치 - 2건의 프로젝트: 1) 에티오피아, 가나 및 네팔 여성의 교육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국가별 역량을 강화, 국제적 협력 및 지지, 네트워크 및 연락망 구축, UNESCO 본부가 UNESCO-IICBA와 협력하여 위 3국가에 기술 지원을 제공 2) 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에서 gender-sensitive 교사 채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교사 역량 개발 및 성 인지적(gender-sensitive) 학습 환경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며 UNESCO 방콕에서 관리
---	---

출처: UNESCO, "Better Life, Better Future"

UNESCO의 교육사업은 SDGs 교육 목표인 4번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양성평등 목표인 5번의 달성에도 기여한다. SDG 4번은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이며 이하 10개의 세부목표 중 8개의 세부목표에서 여성과 소녀를 주류화하고 있다. 상기 설명한 대표적인 교육사업은 세부목표 4.1부터 4.7까지, 그리고 4.a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또한 양성평등 목표 5번의 달성에 있어서 위의 사업들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표 IV-1>의 "교육을 통한 여성권한강화" 사업에서는 여성의 교육이슈와 보건이슈를 연계하여 조기 임신과 중도포기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세부목표 5.6 "성·재생산건강 및 재생산 권리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을 달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SDGs 양성평등 목표는 MDGs에서와는 달리, 보다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표 IV-1>에서 설명한 교육 사업들은 단순히 소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에서의 성별격차를 타파하는 것에서 나아가 양성평등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며, 이는 SDGs 5번의 전반적인 철학에 부합한다. 예를 들면, UNESCO/HNA 파트너십의 경우 학교에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하고, 젠더기반폭력을 퇴치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목표 5.2, "인신매매와 성적착취 및 기타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여,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공적·사적인 영역에서의 모든 형태의 폭력철폐"의 목표에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2) 자연과학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의 고등교육 참여율을 증진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학 분야에서는 여전히 여성의 참여에 대해서는 과소평가 되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남녀 불균형 관련 일회적 증거는 많지만 정확한 데이터 확보는 어려운 상황이다.¹¹ 한 통계에 의하면 과학 분야에는 약 30%의 여성만이 연구원으로 종사하고 있으며 과학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² 과학분야의 여성참여는 이 분야를 전공하기 희망하는 여학생들의 자아를 실현한다는 본질적인 의미 이외에도 성별고정관념을 타파하고 나아가서는 여학생들의 장래 임금을 상승시킬 수 있는 효과로 인해 남녀임금격차도 타파하는 등 경제역량강화와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더 많은 여성들이 자연과학 분야에 종사할 수 있고,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로의 여성과 여아들의 진출을 활발히 지원하기 위하여 UNESCO는 다음과 같은 지원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 **여성과학자 지원 사업:** 멘토링, 네트워크 강화 및 롤모델 발굴을 위해 저명한 여성 과학자들을 파악하고 과학분야 멘토링을 받는 여학생들의 수를 증가시키고자 한다(UNESCO, 2014a: 32).
-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 강화:** 여성과학자들 사이의 네트워크, 아프리카 여성 수학 협회, 아프리카연합 지구 과학 여성 및 국제 여성 기술자 네트워크 등 과학분야 및 지역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다. 여성 과학자들을 위한 연구, 훈련,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000명 이상 회원으로 구성된 개발도상국 여성과학기구(OWSD)와도 협력하고 있다.¹³
-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 증진:** 과학기술혁신(STI)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때 여성과 남성의 우선순위, 관심사 및 능력을 고려하기 위해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¹⁴

다음 <표 IV-2>는 UNESCO의 자연과학 분야 및 STEM 관련 분야 주요 프로젝트들을 정리한 것이다. 앞서 설명한 프로그램이외에도 수질 평가 프로젝트를 통해 여성의 물공급 관리에 있어서의 성별분리 통계 수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2>

프로젝트	내용
L'Oréal-UNESCO 여성과학자상 ¹⁵ (L'Oréal-UNESCO Award For Women in Sci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과학자들의 지위를 개선하고, 분야별 우수 인재를 발굴 L'Oréal과 UNESCO가 협력하여 약 10만 달러의 상금을 제공 - 매년 생명과학 및 재료과학 분야에서 번갈아가며 배심원이 선발되고, 5개 지역(아프리카 및 중동, 아시아 및 태평양, 유럽, 중남미 및 카리브, 북미)에서 각 한명의 수상자를 선발 - 이와 같은 맥락으로 UNESCO-L'Oréal International Fellowship이 있으며, 약 4만달러를 2년간 15명의 젊은 여성 과학자들에게 지원
ELSEVIER Awards ¹⁶ (ELSEVIER AWARDS for Early Career Women Scientists in the Developing Worl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ESCO 산하의 개발도상국의 과학 발전을 위한 세계 과학 아카데미(World Academy Sciences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in developing countries), Elsevier Foundation과 개발도상국 여성과학기구(Organization for Women in Science in the Developing World)에 의해 2012년에 시작됨. - 개발도상국 여성 과학자들, 특히 초기 단계에서 여성과학자들의 성취도를 홍보하고 축하하며 여성 과학자 롤모델을 만드는 것에 목표를 둠 - 시상은 생명과학, 화학 및 물리, 수학 분야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수여되고, 총 5명의 우승자가 선발되며 중남미 및 카리브,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아랍, 중앙 및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한명씩 선발됨

13 UNESCO, Strengthening networks of women scientists worldwide, <http://www.unesco.org/new/en/natural-sciences/priority-areas/gender-and-science/supporting-women-scientists/strengthening-networks-of-women-scientists/>에서 2017.11.15. 인출.

14 UNESCO, Promoting women's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processes, <http://www.unesco.org/new/en/natural-sciences/priority-areas/gender-and-science/womens-participation-in-policy-making-processes/>에서 2017.11.15. 인출.

15 UNESCO, Five laureates named for 2018 L'Oréal-UNESCO for women in science awards, <https://en.unesco.org/news/five-laureates-named-2018-oreal-unesco-women-science-awards>에서 2017.11.15. 인출.

16 UNESCO, Supporting women scientists, Elsevier Foundation Awards for Early-Career Women Scientists in the Developing World, <http://www.unesco.org/new/en/natural-sciences/priority-areas/gender-and-science/supporting-women-scientists/elsevier-awards-for-early-career-women-scientists-in-the-developing-world/>에서 2017.11.15. 인출.

STEM 멘토링을 통한 역량 강화 ¹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냐 정부, 케냐 대학교 및 National Commission for STEM과 협력하여 UNESCO 나 이로비 사무소에서 STEM 분야 여성 멘토링 연례 캠프를 개최 - 일주일동안 진행되는 캠프는 과학기술 분야 직업 멘토링, 경험 공유, 과학실험, industry 방문 등을 통해 과학분야를 홍보함. 2015년 약 400명의 여아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함
STEM분야의 양성평등을 측정하기 위한 개선 프로젝트 ¹⁸ (Improved Measurement of Gender Equality in Science and Engineering (SAG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분야의 여성 교육 및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STEM 분야의 남녀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하는 스웨덴 국제개발협력기구 (SIDA)를 통해 스웨덴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젝트임 - 과학기술혁신(STI) 정책 도구 설계 및 구현을 지원하고 성별 데이터를 수집, 측정 및 평가함. 또한, 정책이 과학분야의 남녀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분석함 - 목적: STEM분야의 남녀 불균형을 줄이고, 증거기반 STI 정책을 개선, 성별데이터 (sex-aggregated data) 수집 능력을 구축, 여성 참여율을 높이고, 여성 참여자의 지위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선
세계 수질 평가 프로그램 ¹⁹ (World Water Assessment Program(WW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공급, 관리 및 보호 관련하여 여성들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성차별은 존재함 - 2014년에 성 인지적(gender-sensitive) 수질 평가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2번의 워크숍을 통해 30명의 국제전문가들과 100개 이상의 지표를 개발하여, 5개의 우선 순위 주제(안전한 식수, 위생, 의사결정 및 지식생산, 국가간 수질 관리, 산업 및 농업 개발을 위한 수질 관리)에 대응할 수 있는 40개의 우선 지표가 선정되었음
GO-SPIN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정책 ²⁰ GO-SPIN (Global Observatory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Instru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O-SPIN은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구현하고 분석하는 방법론이자 국회의원, 학계, 기업, 전문가 및 일반 대중 등을 대상으로 과학기술혁신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임. 주로 과학기술혁신 정책 도구를 설계하고 평가하며 과학기술혁신을 이해를 위한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STI 정책 수단에 관한 조사, 국가별 데이터 수집, STI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힘을 쏟

UNESCO의 STEM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양성평등 세부목표 “5.b.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해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진”의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표 IV-2>에서 설명한 “STEM 멘토링을 통한 역량강화 프로젝트”의 경우 여아들이 직접 과학기술분야 교육과 멘토링에 참가함으로써 이들이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노출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소녀들이 STEM 분야로 진출율이 낮은 이유는 역량이 부족하기 보다는 여성들은 STEM 분야에 취약하다는 고정관념과 사회문화적인 편견 때문임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따라서 STEM 교육의 강화와 관련 전문가의 네트워킹의 지원, 멘토 프로그램, STEM 분야의 양성평등 측정 개선 프로젝트 등을 통해 이러한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사회에 만연한 차별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 이는 세부목표 5.1 “모든 곳에서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종식”의 달성과 직결되는 이슈이다.

17 UNESCO. Supporting women scientists, Kenya: Empowering girls through mentoring in STEM for informed career choices. <http://www.unesco.org/new/en/natural-sciences/priority-areas/gender-and-science/supporting-women-scientists/kenya-empowering-girls-through-mentoring-in-stem/>에서 2017.11.15. 인출.

18 UNESCO. STEM and Gender Advancement(SAGA), <http://www.unesco.org/new/en/natural-sciences/priority-areas/gender-and-science/improving-measurement-of-gender-equality-in-stem/stem-and-gender-advancement-saga/>에서 2017.11.15. 인출.

19 UNESCO. Water and Gender, <http://www.unesco.org/new/en/natural-sciences/priority-areas/gender-and-science/improving-measurement-of-gender-equality-in-stem/gender-sensitive-water-monitoring-assessment-and-reporting/>에서 2017.11.15. 인출.

20 UNESCO. Global Observatory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Instruments (GO-SPIN), <https://en.unesco.org/go-spin>에서 2017.11.15. 인출.

3) 문화분야(CULTURE)

문화분야와 여성의 연관성은 눈에 드러나지 않으며 쉽게 파악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UNESCO는 많은 여성들이 문화생활에 참여함으로써 문화상품을 즐기고 또한 이익을 공유하는데 목적을 둬서 젠더를 문화사업에 주류화 하고 있다(UNESCO, 2014a: 37-38). 현재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문화유산의 보호 및 계승에 관한 남녀의 역할에 대한 격차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창의력을 발표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기술적 훈련, 창업훈련 등을 받는데 제약이 존재한다(UNESCO, 2014a: 37).

UNESCO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문화유산 보존에 여성의 참여를 독려하는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제 소득원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를 증진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은 <표 IV-3>와 같다.

<표 IV-3>

프로젝트	내용
보츠와나, 도기제작기술 워크숍 (Botswana's Promotion of Earthenware Pottery-making Skills)	- 보츠와나의 동남쪽에 위치한 지역에서 실천되었으며, 딸과 손녀에게 도기제작기술을 전수. UNESCO는 단절 위기에 처한 도기제작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20명의 젊은 도예가들에게 전시회를 위한 임시 공간, 교육자료 개발 및 천연재료를 보호하는 지원을 함 (UNESCO, 2017: 7)
인도네시아, 기업설립 (Indonesia's community-based companies)	- 4개의 지역을 기반으로 기업을 설립하여 여성의 경제적 향상을 지원함. (world heritage site 근처에 있는 마을에서 150명의 노동자가 고용되어 전통적 납결(batik) 및 훔치기 염색(tie-dye) 제품들을 생산) (UNESCO, 2017: 8)
DR CONGO Virunga 국립공원 (DR Congo's Virunga National Park)	- 1972 World Heritage Convention 내용을 반영하여 콩고의 Virunga 국립공원 관리에 여성 참여율을 높임. 여성들의 경제 및 사회적 지위도 개선하고 사이트 관리 성과를 제고 (UNESCO, 2017: 8)

문화분야에 있어서 UNESCO의 양성평등 달성 노력들은 그간 젠더 전문가들도 많이 다루지 않았던 비교적 새로운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문화보존 영역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여성들이 소외되었던 사실과 이의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실시는 타 국가들의 문화재 사업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는 좋은 성주류화 사례이다. 이 분야에서는 특히 세부목표 5.5인 “정치·경제·공적 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및 리더십을 위한 평등한 기회 보장”과 세부목표 5.a인 “국내법에 따라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한 평등한 권리 및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자산 소유와 통계, 금융서비스, 유산 및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을 부여하기 위한 개혁 단행”의 두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세부목표 5.5의 경우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성이 의사결정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데, UNESCO 문화유산 보존 및 전수 관련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표 IV-3>에서 언급한 사례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문화유산 관리와 보존을 경제적 소득 창출과 연계시킴으로써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4)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UNESCO는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청중의 다양성과 포괄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언론을 통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며,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는 구체적으로 i) 언론기관에 종사하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

을 조직 내에서 실현하고, ii)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묘사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²¹ 이를 위해 다음 3가지의 중점 목표를 가지고 미디어를 통해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 **협력강화:**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 지역 및 국가 협력을 강화시킴으로서 미디어 시스템 및 콘텐츠에 양성평등을 추구한다.²²
- **관련선언문에 대한 후속 작업:** 북경선언문(Beijing Declaration)*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행, 미디어 및 신기술 개발에 여성의 참여 및 의견 개진 기회를 확대 등의 내용이 북경선언문에 포함되어 있다(UNESCO, 2014a: 41).
- **양성평등을 우선시한 재정지원 사업:** 정부 및 개발기관의 기금구조 내에서 양성평등 및 미디어에 대한 우선 순위를 유지한다.²³

주요 진행 중인 미디어와 여성 관련 사업은 다음 <표 IV-4>와 같다.

<표 IV-4>

프로젝트	내용
성 인지적 미디어 지표 (GSIM) 적용 및 교육 ²⁴ (Gender-Sensitive Indicators for Media)	- 미디어 운영 및 미디어 콘텐츠의 성 인지도 (gender-sensitive)를 측정하는 지표 체계이며, 모든 형태의 미디어가 양성평등에 기여하는 것이 주 목표 - 성 인지적이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미디어 제도 확립 - 미디어 조직 내, 의사결정 수준에 대한 양성평등, 현장에서의 양성평등 등에 대한 평가 지표 및 전략을 제공 - 알바니아의 180명의 기자, 대학 교수, 언론정보학 학생들 및 시민사회에게 GSIM 관련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알바니아 정부는 GSIM을 평가 및 모니터링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MOU체결(UNESCO, 2017: 9)
지역 라디오 방송 및 여성과 뉴스 프로그램 (Community Radio Production, Women Make the News Program)	- 방글라데시, 브룬디, 코트디부아르,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요르단, 니카라과, 태국, 우간다 등 개발도상국들에게 라디오 프로그램에 양성평등 관점이 반영될수 있도록 장려하였으며, 태국의 Women Make the News 프로그램에서는 250명의 여성 미디어 전문가들이 발굴되었음 (UNESCO, 2017: 9)
여성 모바일 사업 (Open Solutions, Girls' Mobile)	- 교육자료(training materials)를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휴대폰 앱으로 개발 (UNESCO, 2014a: 41)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세부목표 5.1 “모든 곳에서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종식”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미디어와 온라인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가장 빠르고도 다방면으

로 확산되는 매개체이며, 향후 4차 산업 시대로 들어설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더 심하게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디어를 통해 양산되는 왜곡된 여성의 이미지와 차별적 언어들은 여성과 소녀에 대한 차별을 종식하고자 하는 노력에 직접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다. 따라서 UNESCO의 미디어와 젠더 고정관념 탈피를 위한 노력들은 세부목표 1번인 여성차별 종식을 위해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5) 인문사회 분야(SOCIAL AND HUMAN SCIENCES)

인문사회분야의 경우 UNESCO는 정의, 자유 및 인간 존엄의 보편적 가치에 도움이 되는 사회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식을 창조하고 공유하며 지식협력을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²⁵ 현재 세계화, 지구환경 변화, 경제 및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한 불평등, 빈곤 등 사회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평화, 인간 존엄성, 양성평등 등 보편적 가치에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²⁶ 이를 위해 UNESCO는 양성평등 관점이 국가 정책 및 전략에 반영될 수 있도록 회원국을 지원하고 공공정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²⁷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사회적 변화 관리 프로그램 (Management of Social Transformations(MOST) Programme):** 정부, 사회과학 공동체 및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지식공유를 통한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²⁸
- **과학자문위원회(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를 통하여 체계적인 지식을 창출할뿐만 아니라 MOST 토론 및 정책 보고서 발표를 통한 지식공유를 촉진한다.
- **다수 국가 간의 포럼**을 통해 회원국들이 국제의제를 형성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기초를 제공하며, MOST Schools*, Future Literacy Labs 등 각 회원국과 협력하여 정책 및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MOST Schools는 회원국들이 증거기반 정책결정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며 의사결정자 및 연구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지식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도이다. MOST Schools는 구체적이고 질 높은 교육 콘텐츠에 기반하고 지식공유 및 확산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회원국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커뮤니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²⁹

UNESCO가 인문사회분야에서 국가 정책 및 공공정책에 반영되기 위해 실시하는 변화를 위한 이러한 노력들은 5.c 목표인 “모든 수준에서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강화를 위한 건전한 정책과 집행 가능한 법률 채택하고 증진”달성을 위해 필요하다. 5.c 목표의 경우 다른 목표들과 달리 양성평등과 여성권한강화를 가능하게 하는 법, 정책, 이행 전략 등을 수립하기 위한 제반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UNESCO는 위원회, 포럼 등을 통해 변화를 위한 담론을 생산하고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양성평등 법정정책 기반을 위한 5.c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2. UNESCO 조직 내 성주류화 분석

UNESCO는 특정 사업 수행을 통하여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면서 동시에 조직 내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기제들을 작동시키고 있다. 여기에는 양성평등 전담 부서, 실행계획(정책), 교육 훈련, 정보제공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 25 UNESCO. About the Social and Human Sciences Sector,
- 26 UNESCO. Social Transformations. <https://en.unesco.org/themes/social-transformations>에서 2017.11.15. 인출.
- 27 UNESCO. About the Social and Human Sciences Sector. <http://www.unesco.org/new/en/social-and-human-sciences/about-us/>에서 2017.11.15. 인출.
- 28 UNESCO. About the MOST Programme. <http://www.unesco.org/new/en/social-and-human-sciences/themes/most-programme/about-most/>에서 2017.11.15. 인출.
- 29 UNESCO. MOST Schools. <http://www.unesco.org/new/en/social-and-human-sciences/themes/most-programme/schools/>에서 2017.11.15. 인출.

21 UNESCO. About Global Alliance for Media and Gender(GAMAG), <http://www.unesco.org/new/en/communication-and-information/crosscutting-priorities/gender-and-media/global-alliance-on-media-and-gender/about-gamag/>에서 2017.11.16. 인출.

22 UNESCO. About Global Alliance for Media and Gender(GAMAG), <http://www.unesco.org/new/en/communication-and-information/crosscutting-priorities/gender-and-media/global-alliance-on-media-and-gender/about-gamag/>에서 2017.11.16. 인출.

23 UNESCO. About Global Alliance for Media and Gender(GAMAG), <http://www.unesco.org/new/en/communication-and-information/crosscutting-priorities/gender-and-media/global-alliance-on-media-and-gender/about-gamag/>에서 2017.11.16. 인출.

24 UNESCO. Gender-Sensitive Indicators for Media, <http://www.unesco.org/new/en/communication-and-information/resources/publications-and-communication-materials/publications/full-list/gender-sensitive-indicators-for-media-framework-of-indicators-to-gauge-gender-sensitivity-in-media-operations-and-content/2017.11.16.> 인출.

1) 양성평등 부서(GE DIVISION)

UNESCO의 양성평등국(Gender Equality Division)은 개인 및 조직 역량 강화를 통해 양성평등 문화를 조직 내에 정착하고 양성평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라는 비전을 통해 1) UNESCO의 양성평등 관련 전반적인 정책, 전략 및 실행계획(action plan) 기획 2)개인 및 조직 역량 강화를 구축을 통한 양성평등 친화적인 조직 문화 형성, 3)성별 분리(sex-aggregated) 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우수사례 공유의 3가지 방법으로 조직 내 성주류화를 실현하고 있다.³⁰

UNESCO의 양성평등국은 다음의 다양한 방법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한다.³¹ 첫째, 정책대화 및 정책제언(policy dialogue and policy advice)을 통해 고위급 인사들에게 양성평등 요소를 모든 UNESCO 정책, 전략 및 프로그램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한다. 둘째, 활발한 옹호활동(advocacy)을 통해 사회, 경제, 정치, 과학, 문화 및 교육 분야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을 제고한다. 셋째, UNESCO 및 회원국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넷째, 연구와 정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양성평등 연구를 수행한다. 다섯째, 유엔, 국제기구, NGO, 학계 및 민간부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과 연계를 강화한다. 여섯째, 양성평등 실행계획 (Gender Equality Action Plan, GEAP II)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한다. 마지막으로 여성권리 및 양성평등과 관련된 문제를 사무국 내·외부에서 대표한다.

2) 양성평등 실행계획

양성평등국이 UNESCO 조직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이라면, UNESCO는 또한 전사적인 "양성평등 실행계획(Gender Equality Action Plan, GEAP)"을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수립하고 있다. 이는 양성평등을 시행하기 위한 운영 틀(operational framework)을 정리한 정책이며 양성평등이 모든 UNESCO 정책 및 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현실적인 목표 및 계획을 다루고 있다(UNESCO, 2014a: 6). 제 2차 양성평등 실행계획(GEAP 2014-2021)은 제 1차 양성평등 실행계획 (GEAP I)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23개의 결과에 중점을 두고, 직원들의 세부 역할 및 업무 지정, 양성평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 양성평등 프로그램에 들어간 예산 모니터링을 보완하여 개정하였다(UNESCO, 2014a: 10). GEAP II는 다음의 8가지의 목적을 바탕으로 양성평등을 실행하고자 하며, 이는 UNESCO의 중장기 계획과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다(UNESCO, 2014a: 13).

- ① 양성평등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 중, 글로벌 교육 개선의 결과를 반영하는 주요 요소임.
- ② 양성평등 이슈와 관련된 목표의 구체화 및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을 위한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 ③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 보장
- ④ 남녀 모두의 역량을 강화
- ⑤ 여성들의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회원국을 지원
- ⑥ 남녀 역할 및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책에 참여 지원
- ⑦ 양성평등 권리, 표현의 자유, 의사결정 과정 참여 등 양성평등 관련 회원국의 정책을 지원
- ⑧ 표현의 자유를 통한 양성평등에 대한 언론 개선 지원

아울러 UNESCO의 다음과 같은 주요 전략 및 실행 계획에서도 양성평등은 주류화 되어 있다.³²

- UNESCO의 중기 전략(medium-term strategy, 2014-2021): 후 8년 간 UNESCO의 전반적인 전략적 비전과 계획을 제시

30 UNESCO. GE Division, <http://www.unesco.org/new/en/unesco/themes/gender-equality/division/>에서 2017.11.9. 인출.

31 UNESCO. The Division's Mandate, <http://www.unesco.org/new/en/unesco/themes/gender-equality/division/mandate/>에서 2017.11.9. 인출.

32 UNESCO. "Resources: Key UNESCO Documents" <http://www.unesco.org/new/en/unesco/themes/gender-equality/resources/>에서 2017.11.9. 인출.

- 프로그램 및 예산: 중기 전략에 제시된 계획을 4년 주기로 다루는 프로그램 및 예산(안)
- 양성평등 실행 계획(gender equality action plan, 2014-2012): 양성평등 실행을 위한 운영 체계를 제공하며, 남녀평등이 UNESCO에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 양성평등 관점이 모든 정책 및 프로그램에 반영되도록 보장
- 사무총장 보고: 여성 권한 부여 및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무총장의 보고가 공유되었으며, 주로 양성평등에 관한 전체 평가 내용을 제공

3) 양성평등을 위한 역량강화

UNESCO는 직원 대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양성평등을 사업 및 프로젝트의 기획, 시행, 모니터링 및 평가 단계에 반영하도록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UNESCO, 2014a: 18-19). 첫째, UN Women 및 다른 UN 산하기구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있다. 둘째, 모든 프로그램 주기와 모든 레벨의 직원에게 기술, 전략적 지원을 제공한다. 셋째, 양성평등 지식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체계적인 정보와 데이터 수집, 모범사례 공유 등은 Global Priority Gender Equality 중기 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또한 다음 4개의 조율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를 명시하고 있다(UNESCO, 2014a: 22-23).

- 연구소와 문헌센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격차를 줄이고 양성평등에 관한 연구 및 훈련역량 강화
- 연구 및 활동을 통한 젠더기반폭력예방 (젠더기반폭력은 세계적인 수준의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 중 하나임)
- 양성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적 젠더 이미지 제고 (남성성과 여성성을 대표하는 고정관념은 남녀 사이의 불공평한 권력관계 및 구조를 초래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음)
- 여성 리더십 훈련 및 역량강화(UNESCO 분야 내 여성리더십의 부재는 양성평등 협의 때마다 되풀이되는 주제임)

4) 부서 간 협력

UNESCO는 양성평등 실행을 위해 조직 내에 있는 다양한 부서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IV-5>와 같다(UNESCO, 2014a: 47-49).

<표 IV-5>

부서	역할
전략기획 (Bureau of Strategic Planning)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일관성을 검토하고, 예산분배 및 공공 민간 파트너십 구축
인사관리 (Bureau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양성평등한 채용(특히 고위직 자리), 직원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기획
내부감독 (Internal Oversight Service)	평가 ToR에 양성평등을 반영, 성별 자료(sex-aggregated) 데이터를 수집 및 구축하고 양성평등 프로그램 감독 및 후속조치
대외홍보 (External Relations and Public Info)	회원국, 시민사회, 언론, 학계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및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양성평등이 출판 및 홍보물에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감시인 역할

5) 직군별 책임 명시

UNESCO는 조직 내 직군 별로 양성평등을 위한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표 IV-6>와 같다(UNESCO, 2014a: 55-57).

<표 IV-6>

직원 직위	주요 업무
고위직 (senior management)	전반적인 리더십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양성평등이 전략적 목적, 연구자료, 다양한 프로그램에 반영시키고, 양성평등 주류화를 직원 평가에 반영하고 Director-General에게 6개월 단위로 양성평등 실행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를 함
이사회 (executive offices)	5가지 영역의 프로그램 기획을 감독
양성평등 부서 (Gender Equality Division)	전반적인 정책, 전략 및 실행계획을 기획하며, 개인 및 조직 역량 강화 구축을 통한 양성평등 조직문화를 형성, 성별로 집계된 데이터 수집과 분석, 우수사례 공유
양성평등 협의체 (Consultative Group on Gender Equality)	양성평등부서의 장을 의장으로, UNESCO의 고위 직원들이 모여 구성된 협의체
젠더중점 네트워크 (Gender Focal Point Network)	성주류화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위직원을 지원하며, 양성평등 부서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성공사례 수집 및 공유
본부 및 지역사무소 전문관 (Programme Specialists)	양성평등 이슈를 모든 프로젝트 사이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확인
시민사회 및 회원국 (Civil Society and Member States)	자원을 통해 양성평등 실행계획이 시행되도록 노력

출처: UNESCO (2014a: 55-57)

6) 다양한 양성평등 지침(GENDER EQUALITY TOOLS) 제공

UNESCO는 또한 양성평등 주류화 사업에 기반이 되고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침을 전사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표 IV-7>와 같다.³³

<표 IV-7>

직원 직위	주요 업무
양성평등 Handout ³⁴ (Priority Gender Equality Handout)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UNESCO의 역할, 주요 개념 정리 (젠더, 양성평등, gender equity), 양성평등 측정, UN-SWAP에 대한 기본 설명

양성평등 마커 가이드라인 ³⁵ (Gender Equality Marker Guidelines)	- 프로젝트의 양성평등 기여도를 4단계 척도로 측정 0: 양성평등에 기여하지 않음, 1: gender-sensitive (남녀 불평등을 인식만 하고 해결 방안에 대한 제시 없음) 2: gender-responsive (증거기반 젠더 분석, 계획안은 주요 목적과 남녀 불평등을 해결하는 정책이 포함) 3: gender-transformative (남녀 불평등의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현존하는 차별적 정책의 해결방안 제시)
양성평등 출판 지침 (Priority Gender Equality Publishing Guidelines)	출판 및 홍보물을 제작, 편집하는 담당자에게 양성평등을 고려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된 가이드라인 (UNESCO, 2011)
중립언어에 관한 지침 (Guidelines on Gender Neutral Language)	1999년도에 출판된 가이드라인이며, 남성적인 표현 및 단어들을 제시하고 이를 어떻게 중성적인 표현으로 수정 할 수 있는지 제시 (UNESCO, 1999)
정의 및 핵심 개념 (Definitions and key gender-related concepts)	젠더, 성, 젠더분석, 양성평등, 성주류화, 개발도상국의 여성 등 젠더관련 주요 핵심 개념이 정리된 자료 (UNESCO, 2003a)
프로젝트 기획 및 검토를 위한 성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for project design and review)	프로젝트 기획 및 검토를 위한 총 5가지의 고려사항 제시 1. 젠더 분석이 평가에 포함이 되었는지 2. 명확한 성 인지적(gender-responsive) 목표 3. 결과 및 평가 지표가 있는지 4. 인적 및 재정 지원이 목표와 부합하는지 5. 여성과 남성 참여율이 동등하고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목적을 평가하였는지를 고려함 (UNESCO, 2003c)
젠더지표 개발 가이드 (Guide for developing gender sensitive indicators)	젠더관련 현실적, 질적, 양적, 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을 고려한 지표 (UNESCO, 2003b)
UNESCO 젠더 교육 조직 및 운영 (UNESCO Gender Mainstreaming for organizing and running trainings)	기획단계, 과정, 후속 과제 등 세 가지로 나뉜 직원 교육 세션에 대한 평가 (UNESCO, 2007)
CEDAW ³⁶ 로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주요 요소 (Key elements for programming with CEDAW)	CEDAW를 접근, 개선, 지원 할 수 있도록 설명한 가이드라인 (Yu, 2005)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³⁷ (e-Learning)	6개의 모듈로 성주류화에 대한 이해 제고, UNESCO의 양성평등 우선순위 설명, 주요 정의, 젠더분석, 성 인지(gender-responsive) 예산 및 결과중심 관리, 일상생활에서의 성주류화, 양성평등 지지를 포함

33 UNESCO. Gender Equality Tools, <http://www.unesco.org/new/en/unesco/themes/gender-equality/tools/>에서 2017.11.9. 인출.

34 UNESCO. Priority Gender Equality at UNESCO, <http://www.unesco.org/new/fileadmin/MULTIMEDIA/HQ/BSP/GENDER/GEhandoutFinalUpdatedVersion.pdf>에서 2017.11.13. 인출.

35 UNESCO. Draft amendments to SISTER Guidelines for the formulation of 38 c/5 Regular Programme Workplans http://www.unesco.org/new/fileadmin/MULTIMEDIA/HQ/BSP/GENDER/GEMinSISTERODGGE_01.pdf에서 2017.11.10. 인출.

36 *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79)

37 UNESCO. "eLearning Programme" <http://www.unesco.org/new/en/unesco/themes/gender-equality/tools/elearning-programme/>에서 2017.11.9. 인출.

UNESCO의 조직 내 성주류화의 노력은 조직 내 양성평등 전담 부서 수립 및 권한 부여, 양성평등 실행 계획 수립 및 평가를 통한 보완, 양성평등을 위한 직원 및 부처의 역량강화, 양성평등 노력이 부서 간 칸막이 행정으로 무산되지 않도록 부서 간의 협력 강화, 직군 별 양성평등 노력을 위한 책임 명시, 양성평등이 무엇이며 어떻게 주류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지침 수립 및 전파라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이는 SDGs 목표 달성을 위해 수혜자들이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과는 달리, 양성 평등한 조직을 만듦으로써 조직의 노력이 자연스럽게 사업에 반영되게 하는 데에 일조한다. 즉, 조직 내에서 체화된 성주류화 노력은 사업과 프로그램의 형성, 기획, 수행, 평가, 모니터링에 이르기 까지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 있고, 이는 결국 프로젝트가 성평등한 관점에서 진행되는 것을 돕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UNESCO의 양성평등적 조직운영은 SDGs 달성에 간접적으로 그러나 핵심적으로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UNESCO와 SDGs

UNESCO는 사업과 조직 운영에 있어서 성주류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이는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UNESCO의 젠더 관련 사업은 단순한 서비스 전달을 통한 여성의 삶의 개선이 아닌, 교육과 훈련을 통해 남녀차별의 근본적인 구조에 도전하는 입장을 취하고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SDGs의 젠더목표의 철학과 정신에 매우 부합한다. 또한 앞서 자세한 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듯이, 개별 섹터에서의 성주류화 노력들은 목표 5번의 세부목표 달성에도 각각 기여할 수 있다. 특히 STEM을 통한 여성과 여아의 정보통신기술에의 접근과 역량 강화는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며, 문화유산에 까지 성주류화를 시도하고 이를 통해 여성의 경제 역량강화를 달성하는 점, 그리고 미디어에서의 여성의 차별적 이미지 철폐를 위한 노력들은 구조적 변화의 관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아울러 UNESCO는 또한 사업 뿐 아니라 조직 철학과 운영측면에 있어서도 성주류화를 구현하고 있다. 조직의 직제, 정책, 각 직급의 역할에 이르기 까지 종적으로, 횡적으로 매우 세부적으로 성주류화의 지침이 존재하며,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조직 내 성주류화를 위한 노력을 달성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의 성주류화 경험은 사업의 궁극적인 성주류화와 SDGs 젠더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UNESCO의 교육 분야에서의 증거기반 연구를 위한 노력과 통계 생산, 특히 성별, 연령 분리 통계 생산은 이행달성을 점검하기 위해 통계역량이 중요해 지는 SDGs 시대에 있어 가장 필요한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행을 측정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VI. 참고문헌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 한국국제협력단 (2016).
알기쉬운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김지현 (2016).
SDGs 지표 확정과 의의, 개발과 이슈 25호, 2016년 12월. 한국국제협력단.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2016).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까지: SDGs란 무엇인가?” 이클레이 브리핑시트 - 도시 이슈, No. 1, 2016년 5월.

임원혁 (2012).
새천년개발목표의 교훈과 2015년 이후 개발의제에의 함의, KDI Focus, 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2706&pg=9&pp=10&mcd=001003001

문도운 (2014).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한계와 Post-2015 개발목표의 내용, KoFID Post-2015분과, <http://redi.re.kr/wp-content/uploads/2014/11/%EC%9D%B4%EC%8A%88%EB%B8%8C%EB%A6%AC%ED%94%84-12%ED%98%B8.pdf>

김태진. (2016)
“MDGs 목표이행 결과 분석.” KOICA Newsletter, http://webzine.koica.go.kr/201602/content.php?code=201602_010208 코이카 웹진 2016년 2월.

UNESCO (1999).
Guidelines on Gender-Neutral Language,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1/001149/114950mo.pdf>에서 2017.11.10. 인출.

UNESCO (2003a).
UNESCO'S Gender Mainstreaming Implementation Framework, Baseline definitions of key concepts and terms, <http://www.unesco.org/new/fileadmin/MULTIMEDIA/HQ/BSP/GENDER/PDF/1.%20Baseline%20Definitions%20of%20key%20gender-related%20concepts.pdf>에서 2017.11.10. 인출

UNESCO (2003b).
Gender Sensitiv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dicators, <http://www.unesco.org/new/fileadmin/MULTIMEDIA/HQ/BSP/GENDER/PDF/3.%20UNESCO%20Gender%20Lens%20for%20measuring%20performance%20guide%20for%20developing%20gender%20sensitive%20indicators.pdf>에서 2017.11.10. 인출.

UNESCO-Bangkok Office (2003c).
UNESCO Gender Lens Project Design and Review, <http://www.unesco.org/new/fileadmin/MULTIMEDIA/HQ/BSP/GENDER/PDF/2.%20UNESCO%20Gender%20Lens%20for%20project%20design%20and%20review.pdf>에서 2017.11.10. 인출.

UNESCO (2007, April).

UNESCO Gender Lens Training. <http://www.unesco.org/new/fileadmin/MULTIMEDIA/HQ/BSP/GENDER/PDF/7.%20UNESCO%20Gender%20Lens%20for%20organizing%20and%20running%20trainings.pdf>에서 2017.11.10. 인출.

UNESCO Publications Board (2011, December).

Priority Gender Equality Guidelines. http://www.unesco.org/new/fileadmin/MULTIMEDIA/HQ/BSP/GENDER/GE%20Guidelines%20December%20_FINAL.pdf에서 2017.11.10. 인출.

UNESCO (2014a).

Priority Gender Equality Action Plan 2014–2021.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2/002272/227222e.pdf>에서 2017.11.9. 인출.

UNESCO (2014b).

Education for All Global Monitoring Report 2013/4. Teaching and Learning: Achieving quality for all.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2/002266/226662e.pdf>에서 2017.11.14. 인출.

UNESCO (2015).

Better Life, Better Future: UNESCO Global Partnership for Girls' and Women's Education.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3/002321/232189E.pdf>에서 2017.11.14. 인출.

UNESCO (2017, August 28).

Report by the Director-General on UNESCO Actions Promoting Women's Empowerment and Gender Equality.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5/002589/258964e.pdf>에서 2017.11.15. 인출.

Yu, Ping Hin. (2005, June 22–24).

Key Elements for Programming on the Basis of CEDAW. http://www.unesco.org/new/fileadmin/MULTIMEDIA/HQ/BSP/GENDER/PDF/UNESCO_and_CEDAW_Presentation.pdf에서 2017.11.10. 인출.

웹사이트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ncsd.go.kr/>

UNESCO. GE Division. <http://www.unesco.org/new/en/unesco/themes/gender-equality/division/>에서 2017.11.9. 인출.

UNESCO. Gender Equality Tools.

<http://www.unesco.org/new/en/unesco/themes/gender-equality/tools/>에서 2017.11.9. 인출.

UNESCO. The Division's Mandate.

<http://www.unesco.org/new/en/unesco/themes/gender-equality/division/mandate/>에서 2017.11.9. 인출.

UNESCO. Education and gender equality.

<https://en.unesco.org/themes/women-s-and-girls-education>에서 2017.11.9. 인출.

UNESCO. eLearning Programme.

<http://www.unesco.org/new/en/unesco/themes/gender-equality/tools/elearning-programme/>에서 2017.11.9. 인출.

UNESCO. Resources: Key UNESCO Documents.

<http://www.unesco.org/new/en/unesco/themes/gender-equality/resources/>에서 2017.11.10. 인출.

UNESCO. Draft amendments to SISTER Guidelines for the formulation of 38 C/5 Regular Programme Workplans(Activity/Office).

http://www.unesco.org/new/fileadmin/MULTIMEDIA/HQ/BSP/GENDER/GEMinSISTERODGGE_01.pdf에서 2017.11.10. 인출.

UNESCO. Priority Gender Equality at UNESCO.

<http://www.unesco.org/new/fileadmin/MULTIMEDIA/HQ/BSP/GENDER/GEHandoutFinalUpdatedVersion.pdf>에서 2017.11.10. 인출.

UNESCO. UNESCO–HNA Partnership for Girls' and Womens' Education.

<https://en.unesco.org/themes/education-and-gender-equality/hna-partnership>에서 2017.11.14. 인출.

UNESCO. Empowering Adolescent Girls and Young Women through Education.

<https://en.unesco.org/themes/education-and-gender-equality/unfpa-unwomen-programme>에서 2017.11.14. 인출.

UNESCO. UNESCO Malala Fund for Girls' Right to Education.

<https://en.unesco.org/themes/education-and-gender-equality/malala-fund>에서 2017.11.14. 인출.

UNESCO. "Better Life, Better Future" global partnership for girls' and women's education.

<https://en.unesco.org/themes/education-and-gender-equality/better-life-better-future>에서 2017.11.14. 인출.

UNESCO. Global Observatory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Instruments(GO-SPIN). <https://en.unesco.org/go-spin>에서 2017.11.15. 인출.

UNESCO. Water and Gender.

<http://www.unesco.org/new/en/natural-sciences/priority-areas/gender-and-science/improving-measurement-of-gender-equality-in-stem/gender-sensitive-water-monitoring-assessment-and-reporting/>에서 2017.11.15. 인출.

UNESCO. STEM and Gender Advancement(SAGA).

<http://www.unesco.org/new/en/natural-sciences/priority-areas/gender-and-science/improving-measurement-of-gender-equality-in-stem/stem-and-gender-advancement-saga/>에서 2017.11.15. 인출.

UNESCO. Kenya: Empowering girls through mentoring in STEM for informed career choices.

<http://www.unesco.org/new/en/natural-sciences/priority-areas/gender-and-science/supporting-women-scientists/kenya-empowering-girls-through-mentoring-in-stem/>에서 2017.11.15. 인출.

UNESCO. Elsevier Foundation Awards for Early-Career Women Scientists in the Developing World.

<http://www.unesco.org/new/en/natural-sciences/priority-areas/gender-and-science/supporting-women-scientists/elsevier-awards-for-early-career-women-scientists-in-the-developing-world/>에서 2017.11.15. 인출.

UNESCO. Five Laureates named for 2018 L'Oreal-UNESCO for Women in Science Awards.

<https://en.unesco.org/news/five-laureates-named-2018-oreal-unesco-women-science-awards>에서 2017.11.15. 인출.

UNESCO. MOST Schools.

<http://www.unesco.org/new/en/social-and-human-sciences/themes/most-programme/schools/>에서 2017.11.15. 인출.

UNESCO. About the MOST Programme.

<http://www.unesco.org/new/en/social-and-human-sciences/themes/most-programme/about-most/>에서 2017.11.15. 인출.

UNESCO. About the Social and Human Sciences Sector.

<http://www.unesco.org/new/en/social-and-human-sciences/about-us/>에서 2017.11.15. 인출.

UNESCO. Social Transformations.

<https://en.unesco.org/themes/social-transformations>에서 2017.11.15. 인출.

UNESCO. Promoting women's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processes.

<http://www.unesco.org/new/en/natural-sciences/priority-areas/gender-and-science/womens-participation-in-policy-making-processes/>에서 2017.11.15. 인출.

UNESCO. Strengthening networks of women scientists worldwide.

<http://www.unesco.org/new/en/natural-sciences/priority-areas/gender-and-science/supporting-women-scientists/strengthening-networks-of-women-scientists/>에서 2017.11.15. 인출.

UNESCO. Women, agents of change.

<http://www.unesco.org/new/en/natural-sciences/priority-areas/gender-and-science/>에서 2017.11.15. 인출.

UNESCO. Improving measurement of gender equality in STEM.

<http://www.unesco.org/new/en/natural-sciences/priority-areas/gender-and-science/improving-measurement-of-gender-equality-in-stem/>에서 2017.11.15. 인출.

UNESCO. Gender-Sensitive Indicators for Media.

<http://www.unesco.org/new/en/communication-and-information/resources/publications-and-communication-materials/publications/full-list/gender-sensitive-indicators-for-media-framework-of-indicators-to-gauge-gender-sensitivity-in-media-operations-and-content/>에서 2017.11.16. 인출.

UNESCO. About Global Alliance on Media and Gender(GAMAG).

<http://www.unesco.org/new/en/communication-and-information/crosscutting-priorities/gender-and-media/global-alliance-on-media-and-gender/about-gamag/>에서 2017.11.16. 인출.

UNESCO.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or Social and Human Sciences.

<https://en.unesco.org/sdgs/shs>에서 2017.00.00. 인출.



SDG 4-청소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세영 부연구위원



청소년 분야 SDGs 이행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방안¹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세영 부연구위원

I. 서론

국제연합(UN)은 지난 2015년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개발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제시하고,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SDGs가 발표된 이후 여러 유엔 산하 기관에서는 청소년(Youth)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강조하여 왔다. 유엔개발프로그램(UNDP)은 빈곤(SDG 2), 교육(SDG 4), 성 평등(SDG 5), 양질의 일자리(SDG 8), 불평등 해소(SDG 10), 기후 변화(SDG 13),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SDG 16), 파트너십과 이행기제(SDG 17) 등을 청소년과 직접 관련성 있는 목표로 파악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선언하였다(UNDP, 2016). 유니세프의 경우에는 SDGs의 모든 목표에 걸쳐 아동의 웰빙 및 권리 향상과 관련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UNICEF, 2014). 그 가운데서도 빈곤(SDG 1, 2), 건강(SDG 3), 교육(SDG 4), 성 평등(SDG 5) 등 아동의 웰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목표로서 중요하게 다루며, 물(SDG 6), 에너지(SDG 7), 일자리(SDG 8), 불평등(SDG 10), 도시(SDG 11), 기후변화(SDG 13),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SDG 16) 등의 목표 등은 아동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환경적인 여건으로서 강조한다. 이외에도 혁신(SDG 9), 지속가능 생산과 소비(SDG 12), 해양 보존(SDG 14), 육상생태계 보호(SDG 15), 이행 수단(SDG 17)의 경우에도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해당 주제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로서 이행 과정에서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본다.

한편 유네스코는 주로 교육(SDG 4)과 관련된 사업을 통하여 SDGs에 기여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UNESCO, 2015). SDG 4에서는 직접적으로 '청소년'을 언급하고("청소년의 문해와 기초 산술능력을 성취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세부 목표 4) 및 사회적 배려 계층의 교육 접근 보장(세부 목표 5), 인권, 성평등, 평화, 세계시민의식의 함양과 실천(세부 목표 7)을 강조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처럼 SDGs의 달성을 위해서는 여러 목표에 걸쳐 청소년을 위한 지원 및 역량 강화가 긴밀한 연계 속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SDGs의 국내 이행을 위한 연구로 황세영 외(2016)의 연구에서는 SDGs의 관점에서 청소년 정책의 현황을 고찰하였으며, 향후 청소년 정책과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청소년 사업과 프로그램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 유관 분야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 사업들의 현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분야 SDGs 이행을 위한 네트워크가 긴밀히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활동과의 연관성이 높은 교육, 에너지, 생태, 환경, 참여 등의 주제들을 중심으로, 관련 청소년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1 본 원고는 다음 연구의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임.
 황세영, 김남수, 주형선(2016). 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세영, 김기현(2017). 청소년 분야 SDGs 이행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방안. NYPI Bluenote Issue & Policy, 제87호.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II. 청소년 분야 SDGs 관련 정책 현황 및 과제

1. SDGs와 청소년 관련성

SDGs은 내용면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리고 저개발국가 등 '모든' 국가에서 달성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 SDGs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국가별 상황과 이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SDGs에 대한 국가적 목표가 재설정되어야 한다. SDGs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 가운데 청소년과 관련된 세부 목표(target) 및 글로벌 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SDG 4 교육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4.2), 기초 문해율과 수리력(4.6), 교육 ODA(4. b, c)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청소년이 당면한 이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표 1>과 같다. 교육 지표의 경우 글로벌 지표 외에도 유네스코가 SDGs 교육 분야 이행을 위해 제시한 지표들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중등교육에 대한 접근성 또는 기초 문해교육과 같은 기본적인 교육권에 해당하는 목표들은 거의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질적 측면에서의 교육의 역할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교육 관련 세부 목표와 관련지어 살펴보면, 우선 효과적인 교육성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양질의 학교교육,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를 갖기 위한 기술 및 직업교육 기회 제공,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등의 정책 이슈가 있다.

또한 4.7과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양식,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 인권, 성평등, 평화, 세계 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등과 관련된 교육을 주요 이슈로 도출할 수 있다. 특히 4.7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2014년 9월 세계교육우선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고위급회의와 2015년 5월 세계교육포럼을 통하여 세계시민교육을 한국 정부의 핵심 의제로 제시한 바 있다.

<표 1> SDGs 교육 분야 세부 목표 및 지표

SDGs 세부목표	글로벌 지표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생 교육 기회 증진	
4.1. 2030년까지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무상의 공평한 양질의 초·중·고등교육을 모든 소년, 소녀들에게 보장	· 학교 밖 아동/청소년의 수 · 무상 의무 교육 연한
4.3. 2030년까지 대학교육을 포함하여 적당한 양질의 기술, 직업 그리고 고등교육에 모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접근하는 것을 보장	· 고등교육 취학률 · 15-24세의 기술직업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 청년/성인의 지난 12개월간 형식, 비형식 교육 및 훈련 참여율*
4.4.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기술적 혹은 직업적인 능력을 갖춘 청소년 및 성인의 수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대	· 연령, 경제활동상태, 교육수준별 청년/성인의 교육 이수율
4.5.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별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한 환경에 있는 아동을 포함하는 취약계층에게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동등한 접근 보장	· 여성/남성, 농어촌/도시, 하층/상층, 장애, 분쟁영향 등으로 세분화된 평등 지표* · 모국어가 수업 강의 언어가 아닌 초등학생의 비율 · 취약인구에게 교육 자원을 재분배하는 명확한 공식적 정책의 유무 · 학교 급별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과 재원 · 교육 분야 ODA 예산

SDGs 세부목표	글로벌 지표
4.7.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 인권, 양성평등, 세계시민의식, 문화적 다양성 및 문화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함에 대한 공감을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키는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과학과 지구과학 주제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정해진 수준 이상의 지식을 보여줄 수 있는 중학교에 다니는 15세 학생의 비율. 각 주제의 정확한 선택범위는 선택된 지표를 바탕으로 한 설문이나 실험에 의해 결정됨(글로벌지표) · GCED 및 ESD의 국가 교육 정책, 교육과정, 교사교육, 학생 평가 포함 여부 · GCED와 ESD의 이슈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이해도를 보이는 학생 비율 · 환경 과학 및 지구과학 지식에 전문성을 보이는 15세 학생의 비율 ·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국가적 적용
4.a. 아동, 장애 및 성인자적인 교육시설을 세우고 모두를 위해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인 효과적 학습 환경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 및 자료가 있는 학교 비율* · 집단 따돌림, 체벌, 희롱, 폭력, 성차별, 학대 등을 경험한 학생 비율 · 학생, 관계자, 기관에 대한 공격 횟수

*출처: 황세영 외(2016). 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 26.
 원 출처: 환경부 ·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16).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12~'14). p. 141.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5). 유네스코 SDG 국제교육협력 포럼: 아시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 주: *표시는 유네스코지표와 글로벌 지표에 모두 해당.

다음으로 <표 2>에서와 같이 SDG 8은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에 대한 것으로 후기 청소년 또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관련성이 깊다. 우리나라는 최근 청년 실업 및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으로 정책적 요구가 매우 높으며, SDG 8에서 제시하는 청년 NEET 비율의 감소, 노동권 보장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2> SDGs 고용 분야 세부목표 및 지표

SDGs 세부목표	지표
8. 모두를 위해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안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	
8.5. 2030년까지 청년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남성과 여성을 위한 안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동일한 가치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 달성	-
8.6. 2020년까지 고용, 교육 또는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 비율을 상당 수준으로 감소	·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고 있지 않거나 실업상태인 15-24세 청년 비율
8.8. 이주근로자, 특히 여성이주자 및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를 위해 노동권을 보호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증진	-
8.b. 2020년까지 청년실업에 대한 글로벌 전략수립 및 운영; 국제노동기구의 ILO Global Jobs Pact 이행	-

* 출처: 황세영 외(2016). 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 27.
 원 출처: 환경부 ·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16).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12~'14). pp. 144-145.

다음으로 SDGs에서 보건·복지 분야는 청소년 집단에만 관련된 영역은 아니지만 생애주기 관점에서 청소년 연령대에서의 정책적 긴밀성이 높다. 우선 SDG 1은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복지와 관련된다. 세부목표 1.5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에 취약한 계층 보호는 빈곤 문제에 대한 환경 복지의 관점을 요구하며, 지속가능발전 정책에서 주된 과제로 모색되어야 할 주제이다. SDG 2는 취약계층의 영양상태 개선과 관련된 주제로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빈곤 아동 급식 지원과 식재료 안전성 등의 현안이 있다. SDG 3은 건강 증진에 대한 포괄적인 목표이며, 관련 우리나라 청소년 이슈로는 수면권, 정신건강 관리, 성교육, 약물 오남용 예방 등이 있다.

<표 3> SDGs 복지·보건 분야 세부목표 및 지표

SDGs 세부목표	지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회복력을 개발하고, 기후와 관련된 극심한 사태 및 기타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인 충격과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을 감소	-
2. 기아의 종식, 식량 안보와 영양상태 개선의 달성 및 지속가능 농업 강화	
2.1.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시키고 모든 사람, 특히 빈곤층 및 영유아를 포함한 취약계층이 일 년 내내 안전하고 영양가 있으며 충분한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
2.2. 2025년까지 5세 미만 아동의 발육 부진 및 체력 저하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부족을 종식시키고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수유여성 및 노년층의 영양상 필요에 대응	-
3. 건강 및 웰빙	
3.4. 2030년까지 예방 및 치료를 통해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을 1/3만큼 감소시키고 정신건강 및 웰빙을 증진	자살 사망자 비율
3.5. 마약 및 알코올의 해로운 사용을 포함한 약물남용 예방 및 치료 강화	-
3.7. 2030년까지 가족계획, 정보 및 교육목적을 포함한 성 그리고 임신보건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임신보건을 국가전략 프로그램에 통합을 보장	-

* 출처: 황세영 외(2016). 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p. 27-28.
 원 출처: 환경부 ·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16).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12~'14). pp. 138-140.

다음으로 SDGs 가운데 청소년의 참여·권리를 다루는 분야로는 성 평등(SDG 5), 불평등(SDG 10), 폭력근절 및 사회참여(SDG 16) 등이 있다. 성 평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양성 평등 교육, 여성의 사회적 참여 기회, 성폭력 등의 이슈가 있다. 다음으로 SDG 10에서 국가 내 불평등의 이슈는 장애인, 아동, 이주민, 탈북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관련된다. SDG 16에서 우선 16.1과 16.2 폭력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학교폭력, 청소년 비행문제 등이 있다. 다음으로 16.7 참여적 정책 의사결정에는 청소년 참여에 대한 정책 등이 관련된다.

<표 4> SDGs 참여·권리 분야 세부목표 및 지표

SDGs 세부목표	지표
5. 양성평등 달성 그리고 모든 여성과 소녀의 역량강화	
5.2. 인신매매, 성적 착취 및 다른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여 공적·사적 영역에서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2개월 동안 파트너가 있는 15세 이상의 소녀/여성 중에서 현재 또는 이전의 친분이 있는 파트너로부터 신체, 심리, 성폭력을 경험한 비율 · 지난 12개월 동안 15세 이상의 소녀/여성 중에서 친분이 없는 파트너로부터 성폭력을 경험한 비율

SDGs 세부목표	지표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10.2. 2030년까지 나이, 성별, 장애, 인종, 민족, 출신, 종교 혹은 경제적 또는 기타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대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포용을 강화하고 증진	· 성별, 연령, 장애여부에 따라 분류된 중간소득 50% 이하로 살아가는 인구의 비중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16.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관련 사망률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	· 최근 1년 사이 신체/심리/성적 학대를 경험한 인구의 비율 · 살고 있는 지역을 혼자 다니며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의 비율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인신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종식	· 최근 몇 달 동안 양육자로부터 체벌 또는 정신적 학대를 받은 1-17세 아동의 비율 · 성적 학대를 경험한 18-24세의 젊은 여성/남성의 비율
16.7. 모든 수준에서 공감할 수 있고, 포용적이며, 참여지향적이고 대표성을 가진 의사결정을 보장	· 국가기여도 대비 공공기관(중앙, 지방의 입법, 행정, 사법기관) 내에서의 직위(성별, 연령, 장애여부) 비중 · 국가발전계획이나 빈곤감축정책에 젊은 인구의 다중유구를 포함하는 나라의 비중

* 출처: 황세영 외(2016). 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p. 28-29.
원출처: 환경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2016).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12~'14). pp. 142-152.

이외에도 물, 환경, 경제성장 분야는 청소년 정책과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우선 SDG 6, 7, 11, 12, 13, 14, 15는 기후변화, 생태계, 에너지 등 환경 사안으로, 이들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 역량을 기르고, 시민으로서 주요 환경 사안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SDG 11. 안전 및 지속가능 도시와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의 개발과 거버넌스에 청소년의 역할과 활동 영역들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SDG 13 기후변화 관련 세부목표 가운데 13.3에서 학교에서의 기후변화 교육과정 실시 및 기후변화 관련 지식의 향상 정도를 지표로 제시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청소년 활동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SDG 17은 지속가능발전의 이행 수단에 관한 것으로, 국내적으로는 청소년 정책이 지속가능발전 전반에 기여하기 위해서 관련 부처, 지자체, NGO 등 여러 사회 주체들과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며, 국제적으로는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표 5〉 SDGs 기타 분야 내용

SDG 목표 및 세부목표
6. 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 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확립
7.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9. 혁신과 인프라
11.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거주지 조성
11.2. 2030년까지 취약계층, 여성, 아동, 장애인 및 노인의 수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특히 대중교통 확대를 통해 도로안전을 개선하고, 모두를 위해 안전하고 적당한 가격으로 접근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에 대한 접근을 제공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적·통합적·지속가능한 정주 계획과 관리 확대
11.7. 2030년까지 포괄적이고 안전하며 보편적으로 접근가능한 녹색 및 공공장소 제공(특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SDG 목표 및 세부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양식 보장
12.8.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식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보장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대처하는 긴급 조치 시행
13.3.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및 조기 경보에 대한 교육, 인식 고취, 인구 및 제도 역량 개선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 바다, 해양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15. 육지생태계 보호와 복구 및 지속가능한 수준에서의 사용 증진 및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대처, 토지황폐화 중단 및 회복 및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17. 이행수단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 출처: 황세영 외(2016). 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 30.
원출처: 환경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2016).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12~'14). pp. 143-155.

SDGs와 청소년의 관련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SDGs의 여러 주제뿐만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관점에 대한 해석 역시 중요하다.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기 위하여 채택된 의제 21(Agenda 21)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의 실천 당사자 그룹을 여성, 아동과 청소년, 원주민, 민간단체, 지방정부, 노동자, 산업계, 과학기술계, 농민 등 9개 주요 그룹으로 설정하고, 각 그룹의 역할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목표, 정책 수단, 실행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청소년 그룹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25장에 수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의제의 내용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계획과 실행 과정에서 청소년의 역할을 증진하고 주체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관점은 앞으로 SDGs의 세부 내용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견지해야 할 중요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의제 21(Agenda 21)의 36장에서는 1)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질의 교육, 2) 지속가능한 세계의 구축을 위하여 취학 전 교육부터 대학까지 교육 과정 전반의 혁신, 3)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대중 인식 및 이해 증진, 4)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에 대한 노동 인력의 훈련 등을 강조하였다.² 이후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담(WSSD)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의 지정이 제안되고, 그 해 열린 제57차 유엔총회에서 2005-2014년을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10년(UN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ESD)의 실행기간으로 정하면서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이라는 용어가 국제사회에서 폭넓게 통용되었다(UNESCO, 2005).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출범된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를 중심으로 ESD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2006년에는 PCSD에서 유엔 ESD 10년 국가추진전략을 발표하고,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공포되는 등,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제도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다(이선경 외, 2014: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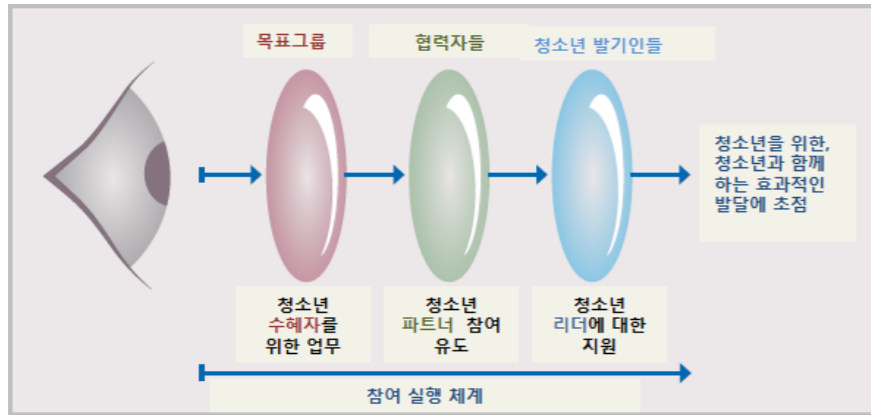
ESD의 영역은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직업교육훈련, 시민사회, 민간영역, 대중인식 등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과정과 학습을 포괄한다. 지속가능성이라는 쟁점은 환경, 경제, 사회·문화 사이의 관계 및 그 복잡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ESD에서 다루는 내용의 폭은 매우 넓다(Wals, 2009). 또한 여러 주제를 단순히 나열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 기존에 있던 교육적 혁신과 접근을 확장하고 보다 통합적이고 실행 중심적이며, 참여적이고 협력적인 교수 학습 방법을 요구한다(UNESCO, 2011: 39).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이 이러한 특징으로 규정된 데에는 사회 내 모든 구성원들이 이른바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지속가능발전 경로나 방법에 대해서 전달받거나 배우는 교육의 대상이기 보다는 지속가능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주도하는 주체가 되어야 우리 공동의 미래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이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 청소년 역시 단순히 교육과 육성의 대상이기 보다는 참여와 의사 결정의 주체로 상정될 필요가 있다.

최근 SDGs 관련 논의에서 이러한 시각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유엔 주요 그룹(UN Major

²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 의제 21의 구성과 내용. <http://www.me.go.kr/home/file/read.html.do?fileId=1709&fileSeq=2>에서 2016년 2월 16일 인출.

Group for Children and Youth)에서는 SDGs의 이행과정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기획, 이행, 모니터링, 평가하는 모든 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조하였다. SDGs의 주제와 관련해서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우선순위 과제로 청소년 권한강화, 참여, 역량강화, 교육, 고용, 기업가 정신, 성평등, 건강권, 기후변화, 지속가능 생산과 소비, 빈곤, 이행 기제 등을 제시하였다(UN MGCY,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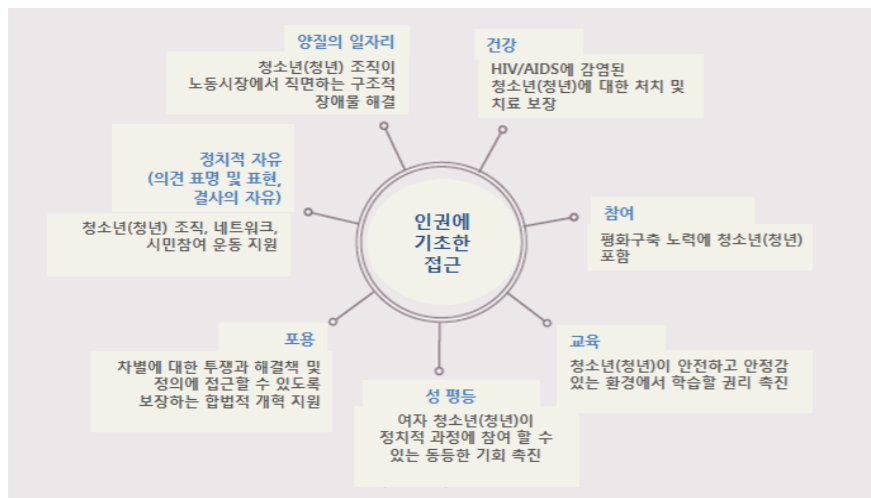
다른 유엔 기관 중에서 SDGs와 관련된 논의는 우선 유엔 개발프로그램(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의 「2014-2017년 청소년 전략(UNDP Youth Strategy 2014-2017)」을 통해서 살펴 볼 수 있다. UNDP의 전략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의 주체로서 청소년의 권한 강화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이 지역사회개발 또는 사회발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을 단지 참여활동의 수혜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협력을 위한 파트너와 실행의 주체적인 리더로서 바라볼 것을 강조한다.



* 출처: 황세영 외(2016). 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 34.
원출처: UNDP (2014). UNDP Youth Strategy 2014-2017 : Empowered Youth, Sustainable Future, p. 23.

【그림 1】 청소년 발달에 관한 세 개의 렌즈 접근법

또한 UNDP 전략에서는 이러한 청소년의 주체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접근을 양질의 일자리, 건강, 참여, 교육, 성 평등, 포용, 정치적 자유 등 7가지 영역에 걸쳐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영역들은 모두 SDGs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 출처: 황세영 외(2016). 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 35.
원출처: UNDP (2014). UNDP Youth Strategy 2014-2017 : Empowered Youth, Sustainable Future, p. 26.

【그림 2】 인권에 기초한 접근을 통한 청소년 권한강화

한편 1995년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시작된 「세계 청소년 실행 프로그램(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이하 UN WPAY)」은 유엔에 전 세계 청소년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별 조치와 국제적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이자, 효과적인 청소년 정책을 위한 청사진을 구성하는 정책 틀을 제공한 바 있다(UN, 2010). UN WPAY는 15 가지의 우선 과제³ 영역을 정하고 각 영역들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청소년들의 효과적이고 충분한 참여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5년, UN WPAY 20주년을 맞아 유엔 총회는 우선 과제 영역들과 관련해서 그 간의 UN WPAY이 이루어낸 성과를 검토하고, “2015년 이후 발전 의제의 모든 측면에서 청소년 사안들을 심도 깊게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Kutesa, 2015a: 3). 그 결과 WPAY 이행에 있어서 기아, 빈곤, 여가, 무장 갈등, 충분한 참여 등의 영역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개선이 필요하며,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폭력과 같은 과제들은 교육과 식량에 대한 보다 나은 접근권과 정보 기술을 통한 청소년 권한강화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제안되었다. 또한, 2015년 이후 발전 의제를 이행할 때 청소년과 청소년 조직에 충분히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적극적인 관여가 매우 중요함이 강조되었다. 특히 SDGs 이행에 있어서 유엔이 풀뿌리 조직의 관여를 지원해야 하고, 다양한 국가별 지역별 맥락 안에서 사안들에 접근하며, UN Major Group on Children and Youth(MGCY)과 International Coordination Meeting of Youth Organizations(ICMYO) 등 기존의 유엔 체제와 플랫폼을 통해서 SDGs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Kutesa, 2015b).

이상과 같이 유엔과 같이 국제적인 기구나 조직에서는 사회 발전에 있어서 청소년의 역할과 인식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청소년들이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참여 기회와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SDGs와 관련해서는 해당 조직의 미션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청소년과 연관을 짓고 있는데, 청소년은 여러 연령대로 구성된 정책적 대상 중 한 집단이기 보다는 이 목표를 주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주체로 상정되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임파워먼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이러한 관점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

2. 국가 지속가능발전정책에서 청소년 관련성

우리나라는 2007년에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5년 단위로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16년에 수립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계획에서는 건강·웰빙, 사회적 형평성, 도시, 포용적 성장 등, SDGs의 다양한 분야로 포괄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관계부처통합, 2016: 26). 이러한 국가 수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에서 청소년 분야의 관련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2년 국가지속가능발전 평가보고서(대한민국, 2012)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그룹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며 청소년의 역할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환경 친화적 청소년 활동 인프라 조성, 통합적 보편적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수행, 위기, 취약 청소년의 복지 지원 강화, 수련 활동 및 국제교류 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시 환경 과학 분야 지원 강화 등, 기존 청소년 정책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역량을 키워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2차 계획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세부 이행과제는 성과 지표가 관리되었던 것으로는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드림스타트 사업, 청소년 삶의 만족도 및 행복감, 어린이용품 위해성 평가 등이다(대한민국, 2012: 44-45). 그런데 청소년 건강관리 증진 과제의 경우 실제 청소년 정책사업의 성과가 아닌 청소년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감과 같은 주관적인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청소년정책의 직접적인 성과로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3 교육, 고용, 기아와 빈곤, 보건, 환경, 약물 남용, 법과 갈등 중인 청소년, 레저 시간 활동, 소녀와 젊은 여성들, 사회 생활 및 의사 결정에서 청소년의 충분하고 효과적인 참여, 지구화,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 HIV/AIDS, 무장 갈등, 세대 간 쟁점 등.

〈표 6〉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상의 이행과제 및 성과 지표 중 청소년 관련 내용

이행과제	세부 이행과제	성과 지표	소관 부처
1-9.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	1-9-1 지속가능발전 교육 기반 구축	지속가능발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실적	교육부
3-1. 사회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증진	3-1-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드림스타트 설치지역 수	보건복지부
3-2. 사회취약계층의 생활환경개선	3-2-③ 청소년 건강관리 증진	청소년의 삶에 대한 만족도	여성가족부
		청소년의 행복감	
3-4. 환경변화에 따른 국민 생명 보호	3-4-1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 강화	어린이용품 위해성평가 물질 비율	환경부

* 출처: 황세영 외(2016). 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 62.
원출처: 환경부(2014). '14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p. 84.

이러 2014년 보고서에서는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예시로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교육부의 위기학생 상담 및 교육서비스 사업인 Wee센터의 설치, 여성가족부의 인터넷게임건전 이용제도 도입,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불법 판매업소 모니터링,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청소년 쉼터 확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업복귀(해밀) 및 자립지원(두드림)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되었다(환경부 2014: 41-42).

2016년부터 추진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과 관련하여 전보다 많은 이행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 지원, 장애학생, 다문화가족 및 탈북학생의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 등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청년 일자리 확대 등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정책 현안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관계부처합동, 2016).

이러한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건강·여가 분야에서는 〈표 8〉과 같이 생태공간 및 생태관광을 통한 청소년 여가활동 기회의 증대와 어린이 환경보건정책의 강화(2-3-② 어린이 건강 증진)를 주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2차 계획에서 포함되었던 세부이행과제 3-2-③ 청소년 건강관리 증진이 삭제되어, 청소년 관련 성과지표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표 7〉 제3차 지속가능발전 계획 중 건강·여가 분야 청소년 관련 내용

목표	전략	이행과제	성과 지표	주요 내용	소관 부처
1. 건강한 국토 환경	1-1 고품질 환경 서비스 확보	1-1-② 도시 생태공간 확충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면적(m ³)	· 물 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환경기초시설을 미래세대 교육체협의 장소로 조성	환경부 산림청
2. 통합된 안심 사회	2-2 지역간 격차 해소	2-2-③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국민 생태관광 참여율(%)	· 생태관광 저변 확대 및 다변화: 소규모 현장 체험형 생태수학여행 운영	환경부 문체부
	2-3 예방적 건강 서비스 강화	2-3-①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나트륨 일일 섭취량(mg)	· 영양섭취의 균형성 제고: 계층별 맞춤형 섭취 저감화 교육 확대	식약처

목표	전략	이행과제	성과 지표	주요 내용	소관 부처
2. 통합된 안심 사회	2-3 예방적 건강 서비스 강화	2-3-② 어린이 건강 증진	어린이 환경보건 코호트 참여 산모 수(명)	· 어린이 환경보건 조사 체계화	환경부
		2-3-④ 식품 안전성 및 식량안보 제고	어린이 아토피 질환 환자 수(만명)	· 어린이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관리 강화	환경부
			HACCP 적용 비율	· 식품안전 신뢰제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품목 및 집유업·유기공업 대상으로 HACCP 의무적용 단계적 확대	식약처
		2-3-⑤ 휴양·치유 인프라 확충	산림휴양 및 치유 이용객(만명)	· 소외계층 대상 자연휴양림 숲 체험 프로그램 제공 및 대상별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 제공	산림청
		체류형 공원시설 조성 수(개소)	· 미래세대 전용 생태체험 및 환경교육 시설 네이처센터 조성	환경부	

* 출처: 황세영 외(2016). 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 64.
원출처: 관계부처합동(2016).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pp. 35-99.

다음으로 교육·복지·고용 분야에서 기존의 사회적 통합 관련 정책보다 다문화이해교육 확대와 양성평등 과제 등이 더 핵심 과제로 부각되었다. 청년여성, 청년 일자리 확대 등 고용 정책은 이번 3차 계획에서 새롭게 이행과제로 제시된 것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하여 2010년부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시행된 것과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경우 2차 계획에서는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3차 계획에서는 기후변화교육 센터, 산림교육센터 등 학교 교육 밖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증진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표 8〉 제3차 지속가능발전 계획 중 교육·복지·고용 분야 청소년 관련 내용

목표	전략	이행과제	성과 지표	주요 내용	소관 부처
2. 통합된 안심 사회	2-1 사회 계층간 통합 및 양성 평등 촉진	2-1-① 사회적 안전망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 실태 조사 및 종합 계획 수립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강화: 저소득층 가정 자녀 학생정보 노출 없이 교육비 지원	복지부 교육부
		2-1-③ 다양한 사회구성원별 지원 강화	특수학교(급) 학생 법적 정원 충족률(%)	·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 강화: 대상별 다문화이해교육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 · 장애학생, 다문화가족 및 탈북학생의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	여가부 교육부
		2-1-④ 여성의 경제 활동 지원 및 양성평등 기반 확충	남성대비 여성 임금 비율	· 생애주기별 여성 경제활동 참여 지원: 청년층 여성 경력개발지원 확대, 청년여성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여가부

3. 포용적 혁신 경제	3-1 포용적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3-1-① 일자리 창출 및 혁신형 창업 지원	청년 고용률(%)	· 청년 일자리 확대 정책 추진, 기업가 정신 확산	고용부 기재부 미래부
			강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참여 인원(명)	· 청년 대상 강소기업 탐방프로그램 운영으로 강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중기청
	3-2 친환경 순환 경제 정착	3-2-③ 친환경소비 실천 기반 확충	녹색제품 구매실적(억원)	· 친환경소비 실천률 향상: 학교 교육과 연계 강화 · 소비자 친화형 녹색제품 인증 확대: 어린이 용품 신규도입	환경부
		3-2-④ 저탄소생활 확산	지역기후변화 교육센터(개소)	· 대국민 기후변화 교육기반 확대	환경부
5. 지속가능 발전 이행 기반 강화	1 지속가능발전 이행기반 강화	②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ESD 프로그램 개발 건수	· 학교교육 활동 전반에 ESD 적용 및 확산	교육부
			산림교육 수혜 국민(만 명)	· 권역별 산림교육 센터, 유아숲 체험원, 학교 숲 확충	산림청
			환경교육 수혜자(만 명)	· 중앙부처 환경교육 협력체계 구축, 광역단위 지역환경교육 센터 지정 확대	환경부

* 출처: 황세영 외(2016), 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p. 66-66.
원출처: 관계부처합동(2016),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pp. 64-158.

이처럼 2차 계획에서는 청소년과 관련된 세부 이행과제가 47개에 불과하였다면 3차 계획에서는 13개로 대폭 증가하여, 다양한 정책 전반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청소년의 건강 증진 과제가 삭제되고, 2-1-③ 다양한 사회구성원별 지원 강화 과제에서는 다문화 가족지원 정책만 언급되는 등, 청소년 활동, 권리, 보호, 자립 등 청소년 전반 정책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예컨대 산림 휴양 정책 사례와 같이 환경 관련 부처에서 청소년층을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파악하는 경향은 증가한 반면, 미래를 이끌어갈 주체로서 청소년이 당면한 교육과 삶의 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매우 미약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SDGs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기후변화, 환경 관련 정책(SDG 13, 14, 15)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청소년 정책의 시야를 확장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의 주체로서 청소년의 역량 강화(SDG 4.7), 청소년의 참여(16.7), 부처 간 정책 협조체계(SDG 17) 등 청소년 정책의 핵심적인 강조점이나 실질적인 정책 이행에 필요한 체계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 향후 SDGs의 국내 이행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하지만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환경부 소관으로 격하된 이래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틀에서 국가 지속가능발전 계획이 추진되는데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환경부와 산림청과 같이 국가 계획과 부처의 정책이 긴밀한 관계 속에 추진되는 부처가 있는가 하면, 다른 경제 및 사회분야 부처의 경우 이러한 유기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개별 부처의 의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또한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의 경우 대부분 미시적 지표이며, 거시적인 차원에서 제시된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와의 연관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이미 지적되어온 바 있다(김중호, 2016; 환경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6: 87).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 작성 시 이행실적의 평가는 관계부처에서 제출한 실적에 근거하므로, 원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서 제시했던 과제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는지 평가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국가 지표, 성과 지표 간의 논리적 정합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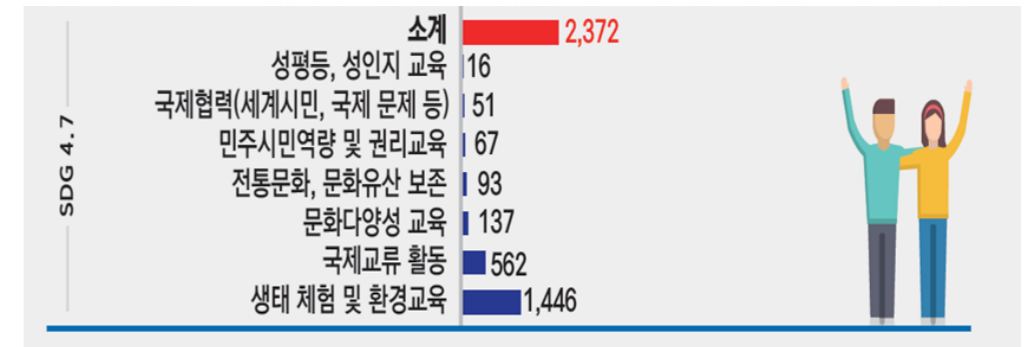
있다. 하지만 SDGs에 국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어떤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요구가 확산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정책의 경우에도 현재 지속가능발전법,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구조와 한계 속에서도 청소년정책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3.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과 SDGs 연계성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14조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수립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제5차 계획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동안 추진되었다. 제5차 계획은 “급변하는 청소년 관련 사회·경제적 환경을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성격으로 전제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2: 32). 그러나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 내용이 인구·가족·생활환경의 변화, 사회적 양극화, 다문화 사회 가속화, 스마트 미디어의 영향력 증가, 청년 고용 불안 심화, 경제적 자립의 지연 등 주로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국한되어 있어, 지구환경 및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관계부처 합동, 2012: 14-17).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환경오염 문제 등 지구환경과 생태계의 악화는 현재 청소년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더욱 중요한 사회문제로서 미래세대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지구촌 곳곳에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과 테러의 발생, 그로 인한 난민 문제, 그리고 저개발국가의 빈곤 문제 등은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세계화된 지구를 살아가는 세계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할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제5차 계획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실 진단에 있어 청소년의 행복, 삶의 만족도, 역량, 가치관 등 척도상의 낮은 수치와 불균형을 언급하고 있지만, 무엇이 바람직한 청소년 상인지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예컨대 청소년 정책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지향”(관계부처합동, 2012: 34) 한다고 했을 때, ‘지속가능발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청소년의 역할이 무엇이며 청소년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등, 정책의 틀을 결정짓는 핵심 개념들이 분명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즉, 사회발전 과정에서 청소년 정책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이를 추구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 간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 사업을 살펴보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청소년의 역량 함양에 대한 현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아래 [그림 3]은 지난 5년 간 SDG 4.7과 관련된 여러 청소년 활동 콘텐츠에 대한 예산 지원 현황을 보여준다. 생태체험 및 환경교육분야에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문화다양성, 민주시민의식, 성평등, 문화유산 등과 관련된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자료: 여성가족부, 제5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각 년도
** 출처: 황세영 외(2016), [그림 III-6]에서 2017년도 결과 추가함. p. 113.

【그림 3】청소년활동 부문의 SDGs 사업 현황 및 예산(단위: 억 원)

III. 청소년 분야 SDGs 이행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방안

1. 조사 대상 기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SDGs의 범위는 경제, 사회, 환경 전 분야를 포괄하고 있고, 청소년 정책의 분야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SDGs의 많은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 청소년 분야 SDGs 네트워크의 범위 역시 폭넓게 상정될 수밖에 없다. 향후 청소년 정책 전반에서 SDGs를 통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각 세부 정책 분야별로 교차검토를 통해 새로운 사업 주제를 발굴해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계·협력의 지점을 탐색하려는 노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네트워크 구축의 첫 단계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는 이미 환경보존과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청소년의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들을 중심으로 청소년 분야에서의 SDGs 이행을 위한 과제와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전제 조건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 기관별 사업 수행을 위해 타 기관과의 연계·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은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분야를 비롯하여 지속가능발전·세계시민교육 분야, 에너지·환경·생태 분야, 시민사회 분야 등 SDGs와 청소년이 연계되는 핵심적인 주제들을 중심으로 현재 청소년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청소년 분야에서는 청소년 활동 정책의 중심적인 전달체계에 위치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5개 국립 청소년수련원을 비롯하여, 청소년의 지속가능한 삶을 기관의 비전으로 추구하고 있는 고양시 청소년재단이 포함되었다. 지속가능발전·세계시민교육 분야에는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환경교육과 생태교육 확산에 노력하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과 경상남도 교육청을 비롯하여, 교육부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 국내에서 오랜 기간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 확산에 노력해오고 있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최근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서 학교와 민간단체에서의 개발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지원해오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이 포함되었다. 에너지·환경·생태 분야로는 산림교육, 환경교육, 해양환경교육, 에너지교육, 농업체험 등, 각 중앙 부처에서 지원하는 청소년 사업의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19개 기관의 현황은 <표 9>와 같다.

<표 9> 기관별 청소년사업의 SDGs 관련성

분야	기관	SDGs 관련 키워드	관련 법 및 정책
청소년 활동	청소년 분야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5개 국립수련원 - 고양시청소년재단	청소년 활동(생태체험, 진로활동)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차청소년기본계획
	교육청(경기, 경남)	환경교육, 생태교육	교육청 자체 계획
	한국과학창의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외교부)	지속가능발전교육 청년 활동(평화, 지속가능발전)	교육부 사업 -
에너지·환경·생태	국립산림과학원(산림청)	산림교육	산림교육진흥법 산림교육종합계획
	경기도환경교육센터 (환경부)	환경교육	환경교육진흥법 환경교육종합계획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교육	환경교육진흥법 환경교육종합계획

분야	기관	SDGs 관련 키워드	관련 법 및 정책
에너지·환경·생태	한국에너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교육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지역아카데미	농촌체험, 교육농장	농촌진흥청 사업
시민사회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지역 참여	지속가능발전법
	생명의숲	생태계 보호	-

* 출처: 황세영, 김기현(2017). 청소년분야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방안 연구. Bluenote Issue & Policy 제87호, pp.10-11.

2. 청소년 사업 연계·협력의 현황 및 과제

(1) 청소년 사업을 위한 연계·협력 현황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소년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외부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필요시 외부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기자재 및 정보 공유, 사업운영을 위한 협의 및 자문 등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협력의 수준은 주로 개별 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이나 콘텐츠 확보 등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특히 대다수의 에너지·생태·환경 분야 청소년 사업 지원기관에서 교육청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로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공문을 발송하거나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등의 목적과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기관 간 연계·협력의 현황을 몇 가지 주요 특징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기관 가운데 산림청의 경우 개별 사업 단위를 넘어서 산림교육의 활성화와 홍보 차원에서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다수의 청소년 관련 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앙 행정기관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연계·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경남교육청에서는 지역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경상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및 각 지역 의회, 경상남도환경교육원,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기후변화네트워크 등, 지역사회 시민사회와 교육 유관 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다.

반면 청소년 단체와 수련시설 등 청소년 계와 다른 유관기관 분야와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청을 통한 정책전달체계가 확립된 공교육 분야와 달리 청소년 분야는 청소년 수련시설 및 민간 청소년 단체에 대한 타 분야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조사 대상 기관 가운데 청소년 계와 연계·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는 경기도환경교육센터가 있었다. 경기도환경교육센터는 2015년부터 환경부 지정 광역센터로 지정된 이래 경기도 내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환경교육센터는 지역사회 환경교육 활성화와 상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도내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되어 있는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 사업 계획 및 홍보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경기도환경교육 한마당과 같은 네트워크 사업을 공동 주관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수련시설 협회의 경우 (전)협회장이 경기도환경교육센터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환경부의 환경교육 정책 사업과 청소년계의 교류가 구축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차원에서 청소년 단체에서 환경교육에 대한 이해와 사업 참여를 위한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2) 청소년 기관에서의 SDGs 이행을 위한 지원방안

이번에는 조사대상 가운데 청소년 분야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소년 분야에서의 SDGs 이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먼저 전달체계 측면에서는 SDGs와 청소년 분야가 연계되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공동적인 관심사와 청소년계에서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는 등, 청소년 계 전반에서 SDGs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실행 전반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동참해야 한다는 공통 인식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계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분

야별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모니터링하는 등, 시스템적 접근의 차원이 중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또한 현장에서 실질적인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준비중인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에 SDGs의 관점이 명확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적극적으로 개진되었다. 이는 SDGs와 청소년 사업을 연계하는 작업이 일부 관심있는 기관과 단체의 참여로만 이루어지거나 일시적인 유행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 체계의 틀 안에서 SDGs를 반영하고, 여성가족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소년 사업을 운영하는 여러 부처 간 협력이 공고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SDGs를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청소년의 역량 함양을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 및 활동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예컨대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시민교육, 기후변화 교육, 생태계 보호 등의 주제가 청소년의 일상생활 진로가 연계되거나, 청소년 주도적인 참여로 기획되는 등 청소년 활동 콘텐츠에 대한 개발 요구가 높았다. 하지만 이러한 콘텐츠 개발에 대한 접근은 개별 단체나 기관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과 같이 전문 기관을 통해 개발, 보급, 평가 등의 체계 구축을 통해 장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시스템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공모사업, 인증제도, 지도자 양성, 운영기관 지정 및 홍보 등이 제시되어, 프로그램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강조되었다.

셋째, 청소년 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SDGs의 관점을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질과 역량 함양 측면에서 해석하고,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청소년 지도자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SDGs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 적용 역량이 중요하다고 지적되었으며, 이러한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의 개설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지도자들의 SDGs에 대한 인식 증진, SDGs의 방대한 영역을 아우르는 전문가 풀의 확보, 지도자 간 교류와 학습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 밖에도 SDGs 분야별 연계, 선진 사례 학습, 이공계 인력 풀 확보 등, 청소년 계와 다른 분야 간 교류 협력을 통해 청소년 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의견을 종합하면, 청소년 분야의 SDGs 이행을 위해서는 개별 기관이 아닌 청소년 정책차원에서의 SDGs 관련 사업 추진의 근거 마련과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유관 부처들의 이행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SDGs 주요 주제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질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며, 현장에서의 청소년 지도자의 역량 강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추진하는 데는 기존의 청소년 정책 전달체계가 현장의 여건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SDGs의 관련 분야별로 전문 기관이나 청소년 사업 기관들과의 협력과 연계를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전략의 마련이 요구된다.

(3) 타 기관에서의 청소년 사업 운영의 어려움

다음으로 청소년 분야 7개 기관을 제외한 12개 기관에서 청소년 사업을 운영 또는 지원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현황에 대한 이해는 향후 네트워크 구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야 할 공동의 이슈로서, 네트워크 차원에서 대응하고 해결해가야 할 과제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제도적 측면에서는 청소년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부족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 이는 법, 조례 등을 통한 제도의 미비와 정부 부처 등의 지원 부족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학습권이 다양하지 않고,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가 부족하다는 점도 청소년 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다음으로 사업 운영 측면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과 부처 및 부서 간 칸막이로 협업이 어렵다는 점이 다수 제기되었다. 개별 기관 차원에서는 인력 부족, 역량 부족, 네트워크의 미비 등도 질 높은 청소년 사업을 운영하는 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수의 청소년 사업이 학교와 학교 밖 기관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청소년 지도자의 역량 부족,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 민간단체 관리 어려움, 교사 업무 과다 등이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3. 청소년 분야 SDGs 네트워크의 추진 방법 및 내용

(1) 네트워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조사에서 응답한 전문가들 모두가 청소년 분야의 SDGs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 청소년 대상 SDGs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루어야 할 내용 및 분야가 광범위하고, 접근 방식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한 두 개의 기관이 이를 모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관점이 대다수를 이루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SDGs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간의 교류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네트워크를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면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점에서 제도 및 예산의 뒷받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하게 주장되었다.

청소년 분야에서 SDGs와 관련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목적에서 대해서는 정보의 공유와 사업 수행에서의 연계와 협력, 업무 조정 등이 제시되었다. 먼저 정보의 공유는 다양한 부처에서 수행 중인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각 기관에서 수행 중인 SDGs와 관련된 정책 사업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음으로 SDGs와 관련된 사업 수행을 위한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SDGs와 관련된 사업 수행에서의 조정은 각 기관 및 시설들이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점검하고 핵심 정책 사업들에 대한 역할분담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시되었다.

(2) 교류 협력의 내용과 방식

각 기관간의 연계와 협력을 하는 방식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① 느슨한 네트워크(상호 존중하고 인정하는 선에서 공동 목표를 정하고 이를 고려하여 기관별 사업을 추진함)에서 ② 전문가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각 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들이 사업 수행 시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전문연수 및 교육을 공동으로 추진함), ③ 공동사업 추진 등 정책사업 추진 네트워크(네트워크 기관 및 시설 간에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함) 등 단계적 접근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과 강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네트워크 운영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분야 SDGs 달성을 위한 지표 개발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정기적인 교류회 등을 통해 주기적인 모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동시에 현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SDGs 관련 정책포럼과 유사하게 정기적인 포럼이나 워크숍을 개최하는 방안에도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유 사이트나 정기간행물 발간 등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3) 제도적, 정책적 지원 방안

청소년분야 SDGs 네트워크 구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 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의 제·개정 등을 통해 SDGs에 관한 기관 및 시설들의 연계, 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 차원의 협력을 위해서 조례 제정이 뒤따를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하게 제시되었다. 특히, 청소년 분야의 경우 2018년부터 적용되는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SDGs에 관한 기관 및 시설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정책과제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청소년 분야 SDGs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고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 지원이 동반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기관이나 시설마다의 자발적인 참여와 요구, 책임 있는 자세가 선행되어야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SDGs와 관련된 각 기관 및 시설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공통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여성가족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부처 및 각 기관 간의 협력을 촉진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 기관 및 시설별 전문가 직제개편, 워크숍 및 포럼 구축, SDGs의 활용을 위한 각 영역별 전략과제 도출 및 교육훈련 등 역량강화 추진, 각 지역의 실행기관은 SDGs의 실천가이드 및 지침에 따라 SDGs 활동 전파 등의 정책지원 및 자문을 상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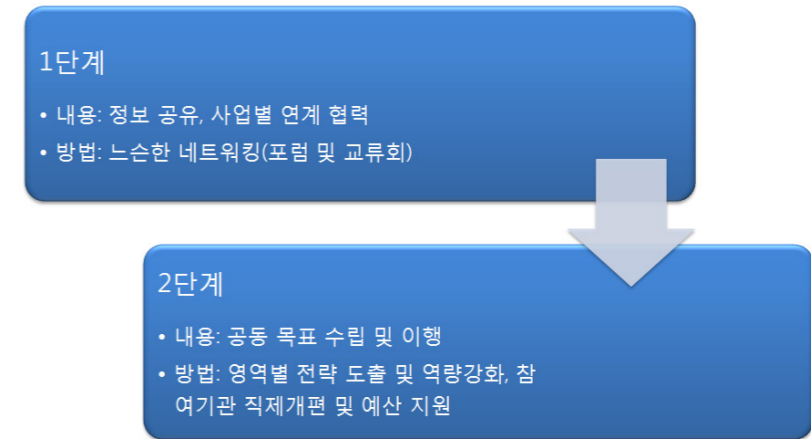
반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이 밖에도 네트워크 참여 활성화를 위해 참여하는 기관 및 시설들이 경영평가 등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유인요인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4) 각 주체의 역할

네트워크의 구축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요 주체별 역할과 관련하여 먼저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정책 추진방향을 기본계획 등에 담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근거로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중앙정부의 경우 각 부처별로 추진 중인 SDGs 관련 정책사업들을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이 컨트롤 타워에서는 청소년 관련 SDGs 사업 추진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모니터링 역할과 네트워크 운영 등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 단위에서 구축된 연계협력체계는 지방정부로도 이어져 지역사회에서도 연계 및 협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시되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기관들이 대부분 정부의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정책추진체계를 통한 네트워크의 지원 방안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우선 여성가족부는 SDGs 관련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법,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 SDGs 역량 확대 및 콘텐츠(프로그램)를 청소년시설에 제공하고 전문가 육성 및 연수 진행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각 시도 지자체(청소년업무 담당과)는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책별, 대상별 서비스 및 활동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운영체계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한편,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과 같은 연구기관에서 청소년 SDGs 지표 조사 및 개발, 정책포럼과 워크숍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도 제안되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참여 기관을 공공기관이나 시설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시민사회단체나 기업 등 민간 영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다시 말해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시설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되 시민사회단체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의 참여로 이어지는 단계적 방안도 제시되었다.

IV. 결론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분야 SDGs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단계적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정책 유관 분야 기관을 중심으로한 1단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도 및 정책 정비를 거쳐 단계적으로 네트워크 심화·확대를 이루며, 2단계에서는 개별 사업이 아닌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 예산 부담 및 영역별 역할 공유를 통해 공동의 성과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갈 필요가 있다.



* 출처: 황세영, 김기현(2017), 청소년분야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방안 연구. Bluenote Issue & Policy 제87호, p.22.

【그림 4】단계별 네트워크 구축 내용 및 방법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본 연구 참여 기관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포럼 주최, 관련 부처 및 전문가의 공감대 확보 노력을 통해 SDGs 정책과 청소년 사업에 대한 연계성을 다방면에서 높이기 위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제도 정비 및 정책적 근거 마련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와 환경부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청소년 분야 SDGs 이행의 필요성 인식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네트워크 구축이 보다 실효성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 차원의 지원 및 예산 마련을 전제로 네트워크의 컨트롤 타워 수행 기관의 지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계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된다. 청소년 분야는 SDGs의 여러 분야가 상호교차되는 지점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 SDGs 관련 여러 전문 분야를 연계하고 새로운 청소년 사업의 비전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V.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 (201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2016).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김종호 (2016).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속가능발전계획.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미발간자료.

대한민국 (2012).
국가 지속가능발전 평가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5).
유네스코 SDG 국제교육협력 포럼: 아시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이선경, 김남수, 김찬국, 주형선, 황세영, 김이성 외 (2014).
한국의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환경부 (2014).
'14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 세종: 환경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환경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6).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12~'14)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점검 및 지표 평가 결과].
세종: 환경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환경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2016).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12~'14).

황세영, 김기현(2017).
청소년 분야 SDGs 이행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방안. NYPI Bluenote Issue & Policy,
제87호.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세영, 김남수, 주형선(2016).
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Kutesa, S. (2015a).
Concept note of High-Level Event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to mark the 20th Anniversary of the 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WPAY) and to highlight Youth Priorities in the Post-2015

Development (2015. 3. 9).
http://www.un.org/pga/wp-content/uploads/sites/3/2015/03/090315_20th-anniversary-wpay.pdf/

에서 2016년 8월 22일 인출.

Kutesa, S. (2015b).
Report of High-Level Event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to mark the 20th Anniversary of the 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WPAY) and to highlight Youth Priorities i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2015. 5. 29).
http://www.un.org/pga/wp-content/uploads/sites/3/2015/08/240615_Summary-of-key-messages-for-High-Level-Event-to-mark-the-20th-Anniversary-of-the-WorldProgramme-of-Action-for-Youth.pdf/ 에서 2016년 8월 22일 인출.

UN Development Programme (UNDP) (2014).
UNDP Youth Strategy 2014-2017 : Empowered Youth, Sustainable Future. <http://www.undp.org/contentundp/en/home/librarypage/democratic-governance/youthstrategy.html> 에서 2016년 2월 12일 인출.

UN MGCY (2015).
UN Major Group for Children and Youth's vision & priorities for delivery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http://childrenyouth.org/category/post-2015-sustainable-development-policy/> 에서 2016년 5월 23일 인출.

UNCED(1992).
의제 21 전문(국문 번역본). pp. 285-288. http://unep.or.kr/sub/sub05_02.php?mNum=5&sNum=2&boardid=data2&mode=view&idx=8/ 2016년 5월 11일 인출.

UNESCO (2011).
DESD global monitoring and evaluation: Phase II - Assessing ESD experience during the DESD: An expert review on process and learning for ESD. Paris: UNESCO.

UNESCO (2015).
UNESCO's participation in the preparations for a post-2015 development agenda. 197 EX/7. Paris: UNESCO.

Wals, A. E. J. (2009).
United Nations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view of contexts and structures for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aris: UNESCO.



03

주제연구 2

SDG 이행과 유네스코 자연과학 사업





SDG 15-생물다양성: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
허학영 연구위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보호지역

-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 허학영 연구위원

I. 서론

지난 15년 동안(2001~2015) 전 세계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8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 중 몇 개의 목표는 중요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¹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분야로 여전히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었던 유엔지속가능개발회의(Rio+20)의 결과문서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에 따르면,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국제적 도전과제이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빈곤퇴치를 강조함과 더불어, 경제·사회 발전의 기초가 되는 자연자원을 보호·관리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필수조건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있다² 따라서, 새롭게 채택된 국제 의제인 SDGs의 보호지역 관련 주요 목표(생물다양성 및 자연 보전 등) 내용을 검토하여, 보호지역 분야의 효과적인 SDGs 이행을 위한 추진과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II.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MDGs의 성과와 과제에 기반하여, 제70차 UN 총회(2015.9)에서 지구와 인류를 위한 향후 15년간의 전 지구적 의제를 담은 새로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³를 결정하였는데, 이는 서문(Preamble), 선언(Declaratio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수단 및 글로벌 파트너십(Means of Implementation and the Global Partnership)으로 구성되어 있다.

SDGs는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있으며, 3가지 차원(경제, 사회, 환경)에서의 지속가능발전이 조화되고 통합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이 새로운 의제는 2016년 1월1일 발효되어 향후 15년간 인류와 지구를 위해 중요한 활동 지침이 될 것이다. 서문에서는 5개의 중요한 분야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People, Planet, Prosperity, Peace, Partnership(사람,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다.

- People: 빈곤과 기아의 종식, 모든 인간이 건강한 환경에서 존엄과 평등
- Planet: 지구보호, 지속가능한 자연자원관리,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소비와 생산
- Prosperity: 인류가 자연과 조화되어 경제/사회/기술적 진보와 삶의 번영 향유
- Peace: 평화촉진(공포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 평화가 없는 지속가능발전은 불가능하며, 지속가능발전이 없는 평화는 없음
- Partnership: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글로벌 파트너십의 재활성화를 통한 SDGs 이행

SDGs는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244개 지표(중복 제외 23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MDGs와의 특성을 비교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 MDGs와 SDGs의 특성 및 연계성 〉

	새천년개발목표 (MDGs, 2001~2015)	지속가능발전목표 (SDG, 2016~2030)
목표 구성	8개 목표, 21개 세부목표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주요 대상	개도국 중심	개도국 중심이나, 선진국도 대상
주요 분야	사회분야(빈곤·의료·교육 등) 중심	지속가능발전 3개 분야(경제, 사회, 환경)
참여/이해관계자	정부 중심	정부,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자연보전 관련 주요목표	Goal 7 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 Target 7.A: 지속가능개발 원칙의 국가 정책 통합 Target 7.B: 생물다양성 손실을 저감 (by 2010) Target 7.C: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이 없는 사람들을 절반으로 줄임(by 2015) Target 7.D: 적어도 슬럼에 사는 1억명의 사람들의 생활 개선(by 2020)	Goal 6.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의 이용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Goal 11. 안전하고, 쾌적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및 정주지 건설 Goal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의 방지를 위한 시급한 대응 시행 Goal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 및 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Goal 15. 육상생태계의 보호/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지속가능한 숲 관리, 사막화 방지, 보전지 훼손 및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 "2030 개발의제 시대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전략" 국회세미나자료집(2015) 내용 보완·재작성		

III. 보호지역 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도출

1. SDGs의 보호지역 관련 목표·세부목표 선정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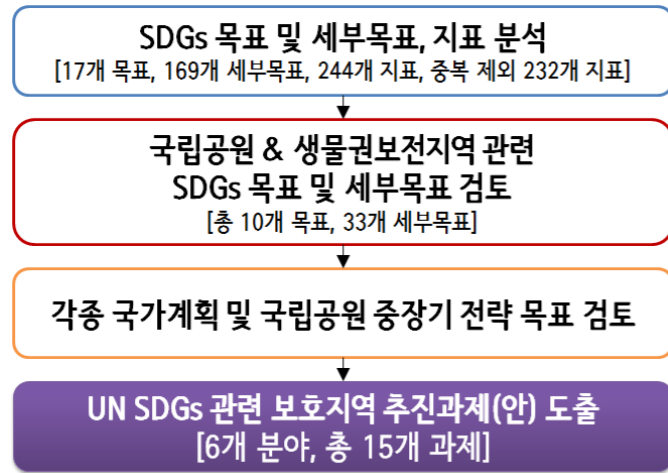
- 국립공원, 생물권보전지역 등 보호지역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목표/지표
- 국가 or 지역(site) 차원의 이행노력이 중요한 목표/지표
- 우리나라에 직/간접적 해당사항이 있는 목표/지표
- 기타 보호지역 관리기관에서 목표 성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목표/지표

1 절대적 빈곤층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MDG 1.A): (1990년 개발도상국의 절반이 하루 1.25\$ 이하로 생활 → 2010년에 22%로 감소)
· 개도국의 초등교육과 건강분야에서 괄목할만한 개선을 이루었다는 평가

2 http://www.un.org/disabilities/documents/rio20_outcome_document_complete.pdf

3 UN post-2015 development agenda: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DGs 관련 보호지역 분야 추진과제 도출 과정〉



2. 보호지역 관련 SDGs 목표 · 세부목표: 총 10개 목표, 32개 세부목표 관련

- Goal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 Goal 2. 기아 종식, 식량 안보와 영양개선, 지속가능 농업 촉진
- Goal 3. 건강한 삶 보장, 모든 세대의 복지 촉진
- Goal 4. 포괄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평생교육기회 증진
- Goal 5. 성 평등 성취, 모든 여성의 권리 증진
- Goal 6.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의 이용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 Goal 7. 에너지 접근성 보장 (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고, 현대적인)
- Goal 8.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생산적 완전고용, 좋은 일자리)
- Goal 9. 건설한 인프라 구축,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산업화 촉진, 혁신 증진
- Goal 10. 국가내, 국가간 불평등 감소
- Goal 11. 안전하고, 쾌적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및 정주지 건설
- Goal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보장
- Goal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의 방지를 위한 시급한 대응 시행
- Goal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 및 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 Goal 15. 육상생태계의 보호/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지속가능한 숲 관리, 사막화 방지, 보전지 훼손 및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 Goal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포괄적이며 평화로운 사회 촉진
- Goal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 재활성화

Goal	Indicators
2.4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제를 확보하는 한편, 생산성과 생산량을 증대하고,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되며, 기후변화, 극심한 기상현상, 가뭄, 홍수 및 기타 재난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시키고, 점진적으로 토지와 토양의 질을 개선시키는 회복력 있는 농업 관행 이행	2.4.1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하의 농업지역 비율
2.5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이익 공유	2.5.1 중기 또는 장기 보호시설로 보전된 식량과 농업을 위한 동식물 유전자원의 수 2.5.2 멸종위험 여부에 따라 분류된 지역품종
4.7 2030년까지 지속가능개발과 지속가능 생활방식, 인권, 양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적 다양성 및 문화의 지속가능개발 기여에 대한 공감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해 모든 학습자가 지속가능개발 촉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도록 보장	4.7.1 양성평등과 인권을 포함한 (i)글로벌시민의식 교육과 (ii)지속가능발전 교육이 (a)국가교육정책, (b)교육과정, (c)학생 평가의 모든 자원에 주류화되어 있는 정도
6.6 2020년까지 산, 산림, 습지, 강, 암반 및 호수를 포함한 물 관련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	6.6.1 시간의 흐름에 따른 물 관련 생태계 규모의 변화
8.9 2030년까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 · 상품을 홍보하는 지속가능관광 진흥 정책을 고안하고 이행	8.9.1 전체 GDP에 대한 비율로 측정된 관광의 GDP 기여도 및 성장률 8.9.2 성별 전체 일자리에서 관광산업 일자리 비중으로서 일자리의 수와 일자리 증가율
11.4 세계의 문화와 자연유산(world's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의 보호 노력 강화	11.4.1 유산의 종류(문화, 자연, 복합, 세계유산센터 등재), 정부 수준(중앙, 지역, 시군), 지출종류(운영비/투자) 및 민간 자금 종류(기부, 민간 비영리, 스폰서) 등에 따라 분류된 모든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존/보호에 지출되는 1인당 총 (공공 및 민간) 지출액
12.8 2030년까지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개발 및 생활방식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인식을 갖도록 보장	12.8.1 (i) 글로벌 시민교육과 (ii) 기후변화교육을 포함한 지속가능개발교육이 국가 (a) 교육정책, (b) 교과과정, (c) 교사 교육 및 (d) 학생 평가에 주류화 정도
12.2 자연자원 지속가능 이용 · 관리	12.2.1 물질발자국(MF), GDP대비 및 1인당 MF 12.2.2 국내물질소비(DMC), GDP 대비 및 1인당 DMC
12.b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 · 상품을 진흥하는 지속가능 관광에 미치는 지속가능 개발 영향의 점검 수단을 개발 · 이행	12.b.1 모니터링과 평가 기제가 있는 지속가능관광 전략 및 정책, 이행된 실행계획의 수
13.1 모든 국가에서 기후 관련 위험과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및 적응력 강화	13.1.1 인구 100,000당 재난의 영향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수 13.1.2 국가 전체와 지방 재난위험감축전략을 보유한 국가의 수
13.3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축 및 조기 경보에 관한 교육, 인식 제고 및 인적 · 제도적 역량 개선	13.3.1 완화, 적응, 영향감소, 조기 경보 등을 초등, 중고등, 상급 교육과정에 통합한 국가의 수 13.3.2 완화, 적응, 기술이전, 개발 이행을 위한 제도, 시스템, 개인의 역량강화를 논의해 온 국가의 수
14.1 2025년까지, 해양쓰레기와 영양분 오염을 포함한 육상에서 기인한 모든 종류의 해양오염의 실질적 감소 및 방지	14.1.1 해안부영양화 지수(ICEP) 및 플라스틱 부유성 폐기물 농도

Goal	Indicators
14.2: 2020년까지, 심각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해양 및 연안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호·관리(회복력 증진, 복원)	14.2.1 생태계기반 접근법을 사용하여 관리되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비율
14.3: 해양산성화의 영향을 고려하고 최소화(과학적 협력 강화)	14.3.1 합의된 대표시료채취지점에서 측정되는 평균 해양 산도(pH)
14.4: 2020년까지, 파괴적이고 불법적 어업의 효과적 규제, 과학적기반의 관리계획 이행	14.4.1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 내의 어족비율
14.5: 2020년까지, 연안 및 해양의 적어도 10% 보전	14.5.1 해양보호지역 비율
14.a: 과학적 지식 증진, 연구역량 개발, 해양기술 이전, 정부간 해양학위원회의 결정인자 및 지침(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Criteria and Guideline) 존중	전체 연구예산 중 해양기술 분야 연구에 배정되는 비율
15.1: 2020년까지, 육상 및 내수생태계, 관련 서비스의 보전, 복원, 지속가능한 이용 보장 (국제적 합의에 대한 의무)	15.1.1 총 육지면적 중 산림 면적의 비율 15.1.2 생태계 유형 별 보호구역에 의해 보호되는 육상 및 담수 생태계 주요 장소(sites)의 비율
15.2: 2020년까지, 모든 유형의 숲에 대한 지속가능한 이행 촉진(산림황폐화 중지, 훼손된 숲 복원, 조림 증가)	15.2.1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진척도
15.3: 2030년까지, 사막화방지, 훼손 토지 및 토양 복원 (토지 훼손이 없는 세상, land degradation-neutral world)	15.3.1 전체 육지 중 황폐화된 토지의 비율
15.4: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산악생태계의 보전 보장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용량 증진)	15.4.1 산중 생물다양성 보호구역 범주 [2] 15.4.2 Mountain Green Cover Index
15.5: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2020년까지) 및 자연서식처 저하를 저감, 멸종위기종의 멸종 방지를 위한 시급한 행동 착수	15.5.1 멸종위기기 지수 (Red-list Index)
15.6: 유전자원으로 인한 혜택의 공평하고 공정한 공유 촉진, 국제적 합의에 따른 자원에 적합한 접근 촉진	15.6.1 공평하고 공정한 혜택의 분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정책적 장치를 마련한 국가의 수
15.7: 보호 생물종들의 밀렵 및 불법거래 종식을 위한 시급한 행동 착수	15.7.1 밀렵되거나 불법으로 포획되어 거래되는 야생동물의 비율

Goal	Indicators
15.8: 2020년까지,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그 영향의 저감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 도입	15.8.1 급속히 확산되는 외래종을 방지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관련된 국내법을 도입하고 이를 위한 자원을 배분한 국가의 비율
15.9: 2020년까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가치를 국가 및 지역의 계획, 개발 과정, 빈곤저감전략, 회계 시스템에 통합	15.9.1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2011-2020(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의 아이치 생물다양성 타겟2 (Aichi Biodiversity Target 2)에 따른 국내 목표 수립 진척 상황
15.a: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재정 동원	15.a.1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에 대한 공공지출 및 ODA
15.b: 지속가능한 숲 관리를 위한 중대한 자원 동원, 개발도상국에 조림과 보전을 위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	15.b.1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에 대한 공공지출 및 ODA
17.2 선진국의 ODA 공약 구현(GNI의 0.7%를 ODA 제공)	G 17.2.1 GNI대비 ODA 비율
17.6 과학, 기술과 혁신에 대한 지역 및 국제적 협력 강화,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지식 공유 강화	G 17.6.1 국가간 과학/기술협력 약정/프로그램 수 G 17.6.2 주민 100명당 광대역 인터넷 가입률
17.7 개도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확산	G 17.7.1 환경친화기술 확산을 위한 개도국 지원 총 승인금액
17.17 효과적인 공공, 민관, 시민사회 파트너십 장려/증진	G 17.17.1 민관 및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위해 할당된 금액(US\$)

IV.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관련 국가계획

1.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과 SDGs

■ 계획 개요

- 법적 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50조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
- 계획 범위: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 지속가능발전 비전, 목표, 추진전략과 원칙, 기본정책 방향 등
- 구성: 환경·사회·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비전하에 환경, 사회, 경제, 국제 분야 4대목표, 부문별 14개 전략, 50개 이행과제로 구성

〈 보호지역 관련 SDGs 주요 내용 〉

- **Goal 2.4: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제를 확보**
 -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 유기농 대상 직불금 지급기간 연장(5년 → 8년), 권역별 친환경농업연구센터(7개소) 활용, 저투입 자원순환형 유기농업기술 개발
 - 신뢰가는 농수산물 인증관리 및 인증제도 등 개선

- **Goal 6.6: 2020년까지 산, 산림, 습지, 강, 암반 및 호수를 포함 한 물 관련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
 - 전 국토 물의 저류·함양 기능 유지 및 향상: 수변생태벨트 내 물순환을 고려한 녹지공간 조성 기준을 정립하고, 천변 저류지를 확대 설치하여 수변의 물 순환 기능 향상
 -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생태유량 확보 및 수질 개선: 환경생태유량 법제화로 생태적 기능을 고려한 유량 관리(환경에 대한 수자원 배분을 통해 하천의 온전한 기능을 유지하고,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 운영에 반영)
 -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 전국 수체의 건강성 목표 및 기준(등급) 마련(최상, 양호, 보통, 불량, 최하)
 -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지점 확대(960개 → 약 3,000개) 및 양호(B) 이상 등급 목표 달성, 조사주기 설정(3년)
 - 훼손된 수생태계 복원: 훼손 심각한 경우 지자체 생태하천 복원사업 의무화, 여러 지자체가 포함된 대하천 및 지류는 환경부가 직접 복원, 멸종위기종 서식처 보호·복원 대책 수립 및 보호구역 지정, 수생태계 분야 전문 조사·연구 조직 신설로 과학적 연구 기반 강화
 - 수생태계 종·형적 연결성 확보: 회유성 어종이 본·지류의 상류까지 이동하도록 이동경로 조사 및 어도 개선 등을 통해 종적연결성 확보, 직강화된 하천 대상 옛 물길터 복원 추진(본류와 지류·지천의 생태적 연계) 등을 통해 하천과 하천 좌·우안의 생태계 온전성 극대화

- **Goal 8.9: 2030년까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상품을 홍보하는 지속가능관광 진흥 정책을 고안하고 이행**
 -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지역 관광자원 개발 및 노후 관광시설 재생사업 추진, 생태관광 저변 확대 및 다변화
 - 지역 관광자원 개발 및 노후 관광시설 재생사업 추진: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정책 강화, 전국 주요 야생화 군락지 관광 명소화 추진, 쇠퇴한 관광 지역의 관광 인프라 재생 추진
 - 생태관광 저변 확대 및 다변화: 생태관광 성공모델 육성, 지역 특색 프로그램 개발 및 맞춤형 생태관광 콘텐츠 발굴(국립공원과 생태관광지역 등 연계),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
 - 휴양·치유 인프라 확충: 산림휴양·치유 인프라 확충 및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국립공원 체험·휴양 기능 확대

- **Goal 12.8: 2030년까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개발 및 생활방식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인식을 갖도록 보장**
 - 국민의 친환경소비 실천 인식 제고: 친환경소비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로 학교교육과 연계, 웹툰, 이모티콘 개발 보급
 - 국립공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등 자연보전 기관과 연계한 방문객 맞춤형 기획 전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Goal 13.1: 모든 국가에서 기후 관련 위험과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및 적응력 강화**
 - 기후변화 관측·감시·예측 역량 강화,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 강화, 기후변화 취약성 통합평가 및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 생태계의 기후변화 위협요인 평가 및 적응방안 마련
 - 기후변화에 의한 생물다양성 및 국가 생태계 전반의 피해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과학적 평가 체계 수립·운영: 5년 단위 주기적인 '생태계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사업을 통한 국가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보전 전략 수립 지원

- 환경변화의 복합적 요인에 대한 생물의 반응현상 연구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취약한 생태계의 보전 및 적응 방안 마련
- 기후변화 취약 종 보전관리
 - 기후변화 취약종(양서파충류 및 거미류 등)을 대상으로 잠재적 생육지 변동 예측 분석, 생태계 유형별 생물 종 보호전략, 우선적용 대상지 선정 및 관리 강화, 연결성 확보 계획 추진
 -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100종)의 개화·개엽시기 모니터링 및 고산지역·풍혈지 등 특수지역의 취약 식물종 생육환경 조사·분석
 - 기후변화에 취약한 고산성·생육한계성 산림식물의 조사·증식·보존 및 현지(서식지) 내 복원·적응사업 실행

■ **Goal 13.2: 기후변화 조치를 국가 정책, 전략 및 계획에 통합**

- 부문별(농업, 산림, 해양, 건강)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농업부문 이행계획 수립·추진

■ **Goal 13.3: 기후변화에 관한 교육, 인식 제고 및 인적·제도적 역량 개선**

- 신기후체제 감축목표 이행계획 수립 및 후속협상 대응, 기후변화대응 글로벌 기술협력 활성화
- 개도국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REDD+) 시범사업 추진

■ **Goal 14.1: 2025년까지, 해양쓰레기와 영양분 오염을 포함한 육상에서 기인한 모든 종류의 해양오염의 실질적 감소 및 방지**

- 연안·해양 오염원 관리 강화
 - 환경관리해역(9개소)별 연안 유입 오염물질관리 강화, 특별관리해역은 연안오염총량관리제 확대
 -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금지('16.1.1~), 폐기물 해양배출 해역(3개소) 해양환경모니터링(저서생물, 퇴적물 등) 실시 등 폐기물 해양오염 예방
 - 주요항의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 추진

■ **Goal 14.2: 2020년까지, 심각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해양 및 연안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호·관리(회복력 증진, 복원)**

- 하구역법 제정 등 도서·연안 자연환경 통합관리체계 확립 및 내실화
 - '하구역법(가칭) 등 하구역 환경복원 및 관리 통합프로그램 추진
 - 유류오염 피해지역, 갯녹음 피해지역 해조류 서식지 조성 등 해양오염/연안개발로 인한 훼손서식지 개선·복원

■ **Goal 14.3: 해양산성화의 영향을 고려하고 최소화(과학적 협력 강화)**

- 해양폐기물, 해양산성화⁴ 등의 피해평가·복원기술 개발

■ **Goal 14.4: 2020년까지, 파괴적/불법적 어업 효과적 규제, 과학기반의 관리계획 이행**

-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자원관리체계 혁신
 - 어선 감척사업을 비롯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추진으로 연근해 어업허가 관리 및 적정수준의 수산자원량 유지
 -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정책 확대 추진(총허용어획량제도)

■ **Goal 14.5: 2020년까지, 연안 및 해양의 적어도 10% 보전**

- 해양(생태계, 생물, 경관) 보호구역 및 갯벌 습지보호지역 확대: 해양 보호구역 연 1개소 '20년까지 총 14개소, 갯벌 습지보호지역 연 1개소, '20년까지 총 20개소 확보

4 대기 중 CO2가 해수로 녹아들어 해수의 PH(약8.2, 약염기성)가 정상보다 낮아지는 현상

- **Goal 14.a: 과학적 지식 증진, 연구역량 개발, 해양기술 이전, 정부간 해양학위원회의 결정인자 및 지침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Criteria and Guideline) 존중**
 - 국가차원 해양수산생명자원 확보·관리체계 구축 및 활용기반 구축
 - 동·서·남해(제주포함) 권역을 대상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 현황, 서식지 등 기초조사, 지속적인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확보/이용 추진,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유용물질·기능을 이용하여 신약, 신소재, 바이오 에너지 생산원천기술 및 산업화기술 개발
- **Goal 15.1: 2020년까지, 육상 및 내수생태계, 관련 서비스의 보전, 복원, 지속가능한 이용 보장 (국제적 합의에 대한 의무 이행)**
 - 건강한 서식처 확충을 위한 국가 보호지역 확대
 - 새로운 보호지역 유형 및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운영관리 강화: 육상·담수 보호지역 통합관리 등을 위해 '(가칭)국가 보호지역 운영협의회'구축·운영, 보호지역 D/B 구축 등
 - 생태계 대표성 등에 기반하여 보호지역 지정 확대: 보호지역(습지, 생태경관, 특정도서, 지질공원 등)을 확대, 생태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에 대해 국립공원 추가지정 확대(태백산, 금정산, 팔공산, 순천만, 무안·신안갯벌 등)
 - 산림에서 생활환경·경관의 보호와 수원 함양, 재해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을 위한 산림보호구역 확대 지정
- **Goal 15.2: 2020년까지, 모든 유형의 숲에 대한 지속가능한 이행 촉진(산림황폐화 중지, 훼손된 숲 복원, 조림 증가)**
 - 산림자원의 가치제고
 - 산림지속성지수 산출 및 산림의 공익가치 평가를 통해 국민인식 제고 및 정책 의사결정 지원
 - 침엽수 인공림을 우량 활엽수림으로 유도하고 댐 유역 숲가꾸기 추진을 통해 수원함양 기능 강화 (활엽수 조림 매년 1만ha이상, 전국 11개 댐유역 산림 숲가꾸기 추진)
 - 적지조림을 위한 맞춤형 조림지도 고도화 및 한국형산림인증제 도입
- **Goal 15.3: 2030년까지, 사막화방지, 훼손 토지 및 토양 복원 (토지 훼손이 없는 세상 land degradation-neutral world)**
 - 국토생태축 연결성 확보
 - 훼손된 생태우수지역의 복원으로 핵심 생태축의 연결성 강화: 한반도 핵심 생태축 50곳에 생태통로 설치(~20)
 - 백두대간 훼손지역의 단계적 복원 및 생태적 관리강화: 훼손 유형별 가이드라인에 입각한 복원 및 경관 등 고려한 협력적 생태관리 추진
 - DMZ의 한반도 생물 거점화 및 국제적 보호구역(UNESCO MAB 등) 지정 등 추진: DMZ 및 접경지역 생태계 조사, 접경지역 보호구역 지정, 접경지역 훼손지 복원사업 등 추진
- **Goal 15.4: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산악생태계의 보전 보장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용량 증진)**
 - 산림자원의 가치제고
 - 산림습원 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산림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산림습원의 소생물권 관리를 위한 정밀조사 및 모니터링 추진(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습원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
 - 희귀·특산식물의 현지외 보전 강화를 통한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2020년까지 위협식물종의 75%를 현지외 보전함으로써 세계식물보전전략(GSPC)의 의무사항 이행(지역별 공립수목원을 활용하여 희귀·특산식물 전시·보존원 조성)

- **Goal 15.5: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2020년까지) 및 자연서식처 저하를 저감, 멸종위기종의 멸종 방지를 위한 시급한 행동 착수**
 - 멸종위기생물 보호시스템 정비, 증식복원·보전 인프라 건립
 -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시 지정·해제 운영 체계 정비, 증식·복원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계획수립, 원종확보, 증식연구, 사후관리·평가 등을 총괄 관리하는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운영
 - 국가 생물주권 확보를 위한 도서·연안생물, 육상생물 등 권역별로 특화된 국립호남권·강원권 생물자원관 건립·운영('18~)
- **Goal 15.6: 유전자원으로 인한 혜택의 공평하고 공정한 공유 촉진, 국제적 합의에 따른 자원에 적합한 접근 촉진**
 -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체계 마련(p.48-49)
 - 나고야의정서 발효('14.10)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 접근 사전승인과 이익 공유, 해외 유전자원 이용 신고 등 국내 이행체계 마련
 - 자생생물 및 생물자원에 대한 조사·발굴·연구 확대: 매년 신종·미기록종 1,000종 이상 발굴 및 목록화 ('16~'20년까지 신종·미기록종 5,000종 이상 발굴하여, 종목록을 '14년말 기준 42,756종에서 '20년 말까지 60,000종·'35년까지 85,000 종으로 확대)
 - 정부-산업계 파트너십 구축 및 나고야의정서 대응역량 강화
 - 야생 생물자원 산업화 지원 관리기반 구축: 생물소재 국산화, 해외 유용생물자원(표본, 유전자원 및 유용물질 탐색시료) 37.2만점 수집 및 확보(~'20년)
 - 자생 생물자원의 증식·배양·보전기술 개발
- **Goal 15.8: 2020년까지,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그 영향 저감·방지 수단 도입**
 - 외래생물 생태계 피해 예방 및 사후 관리 강화
 - 관리대상 외래종을 포괄적으로 확대지정, 생태계 위해 방지 강화: IUCN 지정 100대 악성외래종, 글로벌 침입종 DB(GISD) 등
 - '18년까지 전국 확산 또는 생태계피해가 높은 외래생물 30종을 선정하여 정밀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
 - 주요 유입경로 조사, 3년단위 외래생물 전국 실태조사(3개권역), 생태계교란 생물(동물 6종, 식물 12종) 전국 모니터링 추진
- **Goal 15.9: 2020년까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가치를 국가 및 지역의 계획, 개발 과정, 빈곤저감전략, 회계시스템에 통합**
 - 생태계서비스 평가 관리
 -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4개 분류, 55개 지표) 추진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국가사업 타당성평가를 위한 생태계서비스가치 평가 연구수행,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연계방안 검토,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정부·지자체 계획 및 개발전략에 통합
 - 생태계서비스 활용·증진을 위한 기반연구 수행 및 관련 정책 개발
- **Goal 17.2 선진국의 ODA 공약 구현(GNI의 0.7%를 ODA 제공)**
 -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 개도국 ODA 지속 확대('20 GNI 대비 0.2% 달성, '30년 0.3% 목표)
 - 유·무상 전략, 국가협력전략, 다자원조 전략 수립 등으로 유기적 연계를 통한 통합적 ODA 추진
- **Goal 17.6 과학, 기술과 혁신에 대한 지역 및 국제적 협력 강화,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지식 공유 강화**
 -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강화

- UNEP, UNESCAP 등과 환경분야 협력사업 추진
- 다자간 환경협력 강화: CBD-COP12 채택된 국제 이니셔티브(바이오브리치 이니셔티브, 평화와 생물다양성 다이얼로그,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 이행 촉진

■ Goal 17.7 개도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확산

- 수원국 개발전략 및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 지속 발굴
 - 기후변화 취약 개도국 대상 기후변화 적응 요소를 중점 고려한 ODA 사업 발굴
 -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 프로그램 등으로 국내 환경기술 전파(개도국 역량 강화)
-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UNOSD) 협력사업을 통해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한국형 정책 모델의 확산 추진

■ Goal 17.17 효과적인 공공, 민간, 시민사회 파트너십 장려/증진

- 참여적 거버넌스 구축:
 -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지방의제 21 등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지속가능발전 소통체계 활성화: 양방향 민간환경협의회 운영, 지속가능 패러다임 공유, 지속가능경영 확산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산업계 소통 강화, 종교단체 환경정책협의회와 환경실천협력 강화

2. 제2차 자연공원 기본계획(2013~2022)과 SDGs

■ 계획 개요

- 자연공원법(제11조)에 의거 수립, 자연공원의 이용, 관리, 보전에 관한 최상위 계획으로, 매 10년 주기로 수립
- '공원별 보전·관리계획' 및 '공원계획'의 지침 성격

■ 중점 추진과제

비전	자연과 인간이 만나는 생명의 요람
목표	자연공원의 핵심생태가치 증진, 국가와 지역의 자연자본으로서 역할 제고
5대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18개)
1. 생태계 보전 및 복원 강화	① 통합적 자원조사 및 DB 구축 ②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특별보호구역 확대와 핵심지역 보호 ③ 자연생태계 복원·회복 ④ 자연·문화경관 관리강화
2. 자연공원 관리 효율성 강화	① 공원특성을 고려한 관리기반 구축 ② 신규 공원관리 수요에 대응 ③ 국립공원 내 보호지역 통합관리추진
3. 자연생태가치 창출	① 자연생태가치 확대 ② 지역발전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③ 경제적 가치 활용기반 마련
4. 탐방 및 휴양 서비스 제고	① 자연친화적 탐방관리시스템 구축 ② 안전하고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 ③ 휴양·체험공간 조성 확대 ④ 생태관광 및 교육 활성화 ⑤ 취약계층·지역대상 생태복지 제공
5. 공원관리 파트너십 구축	① 공원관리 협력 강화 ② 갈등관리 효율화 ③ 사유지매수 확대 및 효율제고

■ SDGs 관련 주요 내용

- Goal 6.6 2020년까지 산, 산림, 습지, 강, 암반 및 호수를 포함 한 물 관련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
- 계곡 수생태계 복원: 계곡부 오염원(상가 등)에 대한 배출량 조사 및 수질관리대책 수립, 계곡 내 인공구조물(279개소)의 단계적 철거
- Goal 8.9 2030년까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상품을 홍보하는 지속가능관광 진흥 정책을 고안하고 이행
- 지역사회 발전을 통한 사회적 가치창출: 직거래장터운영⁵ 특산물홍보 등 판매촉진, 주민지원사업 확대(80억('12)→200억('15)) 등 주민 삶의 질 제고
- 지역민 대상 '국립공원 지키이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11년 529명)
- 공원구역 내 자연자원과 주변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지역단위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보급 (주민·지자체 참여를 토대로 운영), 탐방객 계층별 맞춤형 생태관광 운영(테마선정) 및 탐방해설 확대
- Goal 12.8 2030년까지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개발 및 생활방식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인식을 갖도록 보장
- 미래세대 대상으로 '자연공원 생태·문화교육 추진계획' 수립·이행
- Goal 14.5 2020년까지, 연안 및 해양의 적어도 10% 보전
- 해상·해안형 자연공원 내 특정도서, 습지 등 생태계 우수지역을 '공원자연보존지구'로 확대 지정⁶ 하고, 생태계 보전기능⁷ 강화
- Goal 15.1 2020년까지, 육상 및 내수 생태계, 관련 서비스의 보전, 복원, 지속가능한 이용 보장 (국제적 합의에 대한 의무)
-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는 야생생물서식지, 계곡·습지 등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확대('11년 공원면적의 3.5%(234km²) → '20년 5.0%)
- 유형별*공원자원 보전가치를 평가·등급화하고, 위치·지리정보와 연계한 '공원 생태자원지도(DB)' 작성·활용
- 생태축 복원: 축 단절지역에 생태통로 설치·훼손지 복원, 필요시 핵심지역 내 도로·철도·전기통신설비 등을 단계적으로 철거(국립공원 백두대간 단절 및 훼손현황 : 도로 16개소, 훼손지 47개소 175,270m²)
- Goal 15.5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2020년까지) 및 자연서식처 저하를 저감, 멸종위기종의 멸종 방지를 위한 시급한 행동 착수
-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공원 내 서식지 확보가 용이한 생물종 (포유류, 양서·파충류, 곤충, 식물)을 중심으로 증식·복원 활성화
- Goal 15.8 2020년까지,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그 영향의 저감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 도입
- 생태계교란종 등 관리: 생태계교란종(국립공원 내 37종), 관리대상 동물(유기견·들고양이 등) 지속 모니터링 및 포획
- Goal 17.17 효과적인 공공, 민간, 시민사회 파트너십 장려/증진
- 공원사무소 주관 '공원관리협의회'(주민·NGO 등)를 활용하여 공원별 보전·관리계획 수립 등 의사결정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확대
- 공원위원회 산하에 '갈등관리분과'(민간위원장 선임)를 구성하여 자연공원 갈등영향 심의, 갈등현안의 조정·해소 추진
- 갈등조정: 갈등유형화, 원인분석, 쟁점 확인, 협의·조정 절차 등을 포함하는 '갈등관리 규정' 제정
- 갈등 사후관리: 재발방지를 위해 우수사례집을 작성하고, 조정된 갈등은 제도개선(공원계획 반영, 필요시 법령정비)으로 연계

5 직거래장터('11) : 15개 국립공원 63개품목, 약 10억원 소득창출

6 현재 4개 해상·해안국립공원(육상 578km², 해상 2,752km²)내 공원자연보존지구 지정비율 : 4.1%

7 공원자연보존지구(해상지역) 내 행위제한 신설 : ①폐수배출시설·공작물 등 입지제한, ②함정어구 등 설치제한, ③서식지·산란지 등 훼손금지 등

- 기관 간 협력강화: 한반도 생태축 구축측면에서 공원 내 중복 지정된 보호지역별 사유지 매수제도, 국민신탁 등 연계·운영방안 마련

V. SDGs 반영한 보호지역 관련 추진과제_안

1. 추진과제 도출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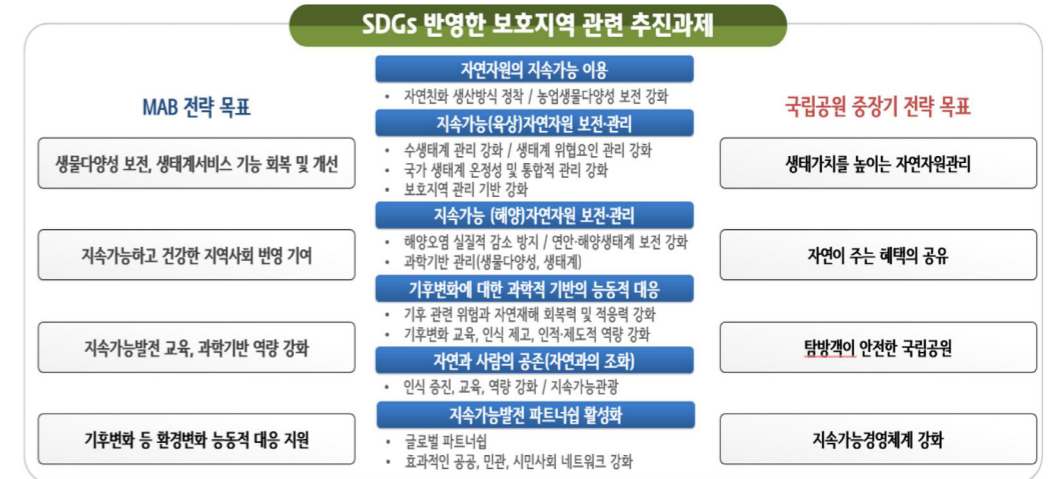
- SDGs 핵심 특성 반영: 3가지 차원(경제·사회·환경)에서의 지속가능발전이 조화되고 통합
- 국립공원 & 생물권보전지역 등 보호지역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기존 국가계획에서 담고 있는 핵심내용 반영
- 이행방향 설정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지표를 같이 선정할 수 있어야 함.
- SDGs 이행 지원: 자연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모델 개발·강화 → 국내외 보호지역에 전파·확산
- MAB 전략목표(15~25)와의 연계성: ①생물다양성 보전, 생태계서비스 기능 회복/개선, ②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번영 기여, ③지속가능발전교육, 과학기반 역량강화, ④기후변화 등 환경변화 능동적 대응 지원
- 국립공원관리공단 중장기 전략목표(18~22)와의 연계성: ①생태가치를 높이는 자연자원관리, ②자연이 주는 혜택의 공유, ③탐방객이 안전한 국립공원, ④지속가능경영체계 강화

• 총 6개 분야 15개 과제 도출: “SDGs 10개 목표, 32개 세부목표” 관련

추진분야	추진과제
자연자원의 지속가능 이용	환경 친화 생산 방식 정착 G 2.4, G 12.2, G 14.4 농업생물다양성 보전 강화 G 2.4, G 2.5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기반의 능동적 대응	기후 관련 위험과 자연재해 회복력 및 적응력 강화 G 13.1 기후변화 교육, 인식 제고, 인식·제도적 역량 강화 G 13.3
지속가능 (육상)자연자원 보전·관리	수 생태계 관리강화 G 6.6 건강한 생태계 대표성 확보 및 통합적 관리 강화 G 15.1, G 15.4, G 15.5 생태계 위협요인 관리 강화 G 15.2, G 15.3, G 15.7, G 15.8, 보호지역 관리기반 강화 G 15.4, G 15.9, G 15.a, G 15.b, G 15.6
지속가능 (해양)자연자원 보전·관리	해양오염 실질적 감소·방지 G 14.1, G 14.3, 과학기반 관리 (생물다양성, 생태계) G 14.4, G 14.a 연안·해양생태계 보전 강화 G 14.5, G 14.2
자연과 사람의 공존	인식 증진, 교육, 역량 강화 G 11.4, G 12.8 G 4.7 G 13.3 지속가능관광 G 12.b G 8.9 G 15.6
지속가능발전 파트너십 활성화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G 17.2 G 17.6 G 17.7 효과적인 공공, 민간, 시민사회 네트워크 강화 G 17.17

2. 추진 전략과제_안

- 국내 보호지역의 UN SDGs 이행(10개 목표, 33개 세부목표)을 위한 추진과제 도출



• 자연자원의 지속가능 이용

- 관련 SDGs 목표/세부목표: G 2.4, G 2.5, G 12, G 14.4

추진과제	과제 주요 내용
환경 친화 생산 방식 정착 G 2.4 G 12.2 G 1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친화(지속가능) 생산방식(농업, 어업, 양식업 등)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친화 생산방식 구체화 및 우수모델 발굴 - 환경친화 생산 모델 확산 - 친환경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환경·생태 정보 구축공유 • 환경친화 생산방식 지원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인·지원(Incentive) 제도 활성화: 생물다양성계약, 공원보호협약 등 확대 시행 - 지속가능 생산/판매/소비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자연자원의 지속가능 이용 농업생물 다양성 보전 강화 G 2.4 G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생물다양성 보전·관리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지역 내(인접) 농지(마을) 생물자원 및 생태계 모니터링 - 농업 생물다양성 관련 DB 구축 및 공유 플랫폼 구축 운영 - 보호지역내 마을과 농지가 갖는 고유한 특성과 주변 생태계와의 연결성 (생태적 기능) 유지·보전 강화 • 전통적 농촌경관 보전·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생태자원을 연결한 마을생태축 보전·복원, 마을 생활공간의 생물서식공간 보전복원, 전통지식에 기반한 마을생태산업 육성 - 마을생물다양성: 한계농지, 자투리땅 등 주민의 자발적 보전 - 국가중요농업유산, 세계중요농업유산(FAO) 등재 검토 ※ 미래 육상생물다양성 감소의 70%가 농업과 연관될 것으로 추정 ('14 GBO 4, '15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 목표(by 2030) :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내 지속가능 생산(농/어/양식업) 모델 정착 추진

환경친화(지속가능) 생산방식 정착	도입기 ('18~'20)	- 환경친화(지속가능) 생산방식 구체화 및 모델 발굴
	정착기 ('21~'25)	- 환경친화(지속가능) 생산 모델 확산
	발전기 ('26~'30)	- 보호지역 내(인접) 환경친화(지속가능) 생산 모델 정착
농업 생물 다양성 보전 강화	도입기 ('18~'20)	- 농업(마을) 생물자원 및 생태계 모니터링 시행
	정착기 ('21~'25)	- 농업 생물다양성 관련 DB 구축 및 공유 플랫폼 구축 운영
	발전기 ('26~'30)	- 국가중요농업유산,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 농지·마을 생태적 기능 증진 및 주변 생태계와의 통합적(연결성) 관리

• 과학 기반의 기후변화 능동적 대응

- 관련 SDGs 목표/세부목표: G 13.1, G 13.3

추진과제	과제 주요 내용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기반의 능동적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민감 생태계 미기상 관측 및 생태계 영향 모니터링 - 기후변화 생태계영향 통합 DB(정보기반) 구축, 장기 모니터링 - 기후변화로 생태계 변화예측 및 적응 시스템 구축(취약종 생육지 변동 예측, 생태계 유형별 보호전략) 기후변화 취약 중, 취약 지역(서식지) 보전관리 강화 자연재해 및 재난안전 관리 체계 (산불, 폭우, 산사태/낙석, 지진, 병해충 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자연재해 취약지역 위험평가 및 위험지도 작성 - 자연재해 취약지역 복원 및 관리 강화 - 기후변화 등 복합 환경재해 관리 강화(재해 상관·인과지도, 복합재해 대응매뉴얼) - 기후변화 대응 공원시설 적용기술 정립 및 정비 - IT 기반 기후변화 자연재해 재난안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기후변화 교육, 인식 제고, 인적·제도적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 관련 인식증진, 교육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다양성/생태계 변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 - 기후변화 관련 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적응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자 교육 활성화 - 기후변화 적응 자연생태계 관리지침 개발 - IT 기반 기후변화 자연재해 재난안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목표(by 2030) : IT 기반 기후변화 자연재해 재난안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기후 위험 및 자연재해 회복력 및 적응력 강화	도입기('18~'20)	기후변화 자연재해 취약성 평가 및 위험 지도 작성 IT 기반 기후변화 자연재해 재난안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생태계 변화예측 대응 시스템 구축 50%
	정착기('21~'25)	기후변화/자연재해 위험지도에 기초한 IT 기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자연재해 생태계 변화예측 대응 시스템 구축 100%
	발전기('26~'30)	IT 기반 기후변화 자연재해 재난안전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강화 기후변화 등 복합 환경재해 관리 강화(재해 상관·인과 지도, 복합재해 대응 매뉴얼 작성 등)
기후변화 교육, 인식 제고, 인적·제도적 역량 강화	도입기('18~'20)	기후변화 관련 인식증진,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정착기('21~'25)	기후변화 관련 인식증진,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산
	발전기('26~'30)	기후변화 관련 제도적 체계 및 전문 역량 완비

• 육상분야: 관련 SDGs 목표/세부목표 (G 6.6, G 15)

추진과제	과제 주요 내용
수 생태계 관리강화 G 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 생태계 오염원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 오염원 전수 조사 - 수질 관련 통합 오염원 관리체계 구축 물 관련 생태계(습지, 계곡, 하천 등) 보호·복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훼손된 수 생태계 복원 (ex. 사방댐/인공제방, 훼손지, 폐광지 등) - 수 생태계 중·황적 연결성 강화(회유성 어종 이동경로 조사 및 어도개선, 하천 좌·우안의 생태계 온전성 강화 등) - 중요 수 생태계 특별보호구 지정 확대
지속가능(육상) 자연자원 보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공원 추가지정 및 공원구역 확대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국립공원 추가 지정(육상, 담수생태계-하천, 하구 포함) - 공원구역 확대(인접 주요 생태계), 공원보호구역 제도 시행 광역적 경관(생태계)으로서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 생태축 연결성 확보(훼손지/단절지 복원) - 도립·군립공원 등 여타 보호지역 연계 관리(지원 등) - 주변 생태계와의 연결성 증진을 통한 광역 생태권역 차원 관리 멸종위기종(서식처) 복원·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멸종위기종 서식지 내 복원 강화(MVP, MVA 확보) - 멸종위기생물 증식복원보전 인프라 구축
생태계 위협 요인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래종/교란종 관리(유입경로, 분포 면화, 생태계영향, 확산 시나리오, 제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대상 외래종 확대 지정 및 DB 구축: IUCN 100대 약성 외래종 등 - 위해 외래종 유입경로, 분포 정밀조사,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강화 - 생태계 교란 확산 추세중 선정, 확산 예방관리 및 조기퇴치 추진 Human-wildlife conflict 관리 체계화: 멧돼지, 고라니, 염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야생동물 서식분포 및 영향 모니터링 강화 -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조절 및 피해예방시설/피해보상 체계 강화 밀렵, 밀거래, 불법 자원채취 근절: 밀렵/밀거래 사전대응체계 강화(상습/지능형 밀렵/밀거래 DB 구축 및 공유) 훼손 생태계 복원(ex. 훼손지, 백두대간, 태백산 폐광지 복원 등) 토양 건강성(토양침식, 산사태, 토사유출, 토양 비옥도, 자연표토 유실) 관리 IT 기반 통합 오염원(소음, 빛, 토양 등) 관리체계 구축

지속가능 (육상) 자연자원 보전 · 관리	보호지역 관 리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처 기반 생태계 온전성 보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처 유형별 생태계 구조와 기능 특성 조사 · 연구 - 서식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적응형관리(Adaptive management) 강화 • 생태계서비스 평가 및 ES 기반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계서비스(ES) 가치 평가/홍보, ES 가치 보전증진 -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 적용, 국가/지역계획에 ES 가치 반영(전략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활용 등) ※ 서식지 기반조사, ES 가치 평가, 관리효과성평가 → 가치 및 관리여건 이해 증진 → 가치 기반 용도지구(zoning) 시행 → 공원별 보전관리계획 → 적응형 관리 시행 • 사유지 관리 강화: 자원 확보, 매수/환지/협약/TDR/PDR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지 매수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국유화 대상지 조사 - 국공유지와 토지교환, 개발권 양도제/매입제 등 도입 - 관리계약 등 사유지 보전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확대 등 - 재정자립도 강화/자원 다양화(국립공원 복권사업, 보호지역기금 추진) • 자연(유전)자원의 접근 및 혜택공유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 연구를 위한 자원접근(Access control) 강화 - 자원 활용을 통한 혜택공유 제도화(이익의 보전관리 환원)
	G 15.4, G 15.9, G 15.a, G 15.b, G 15.6	

- 목표(by 2030) : 국가 생태계 대표성(서식처 유형별) · 건강성 확보 및 광역 생태권 관리체계 정착

수 생태계 관리강화 G 6.6	도입기('18~'20)	수질오염원 전수조사 및 통합 오염원 관리체계 구축
	정착기('21~'25)	통합 오염원 관리체계 시행
	발전기('26~'30)	수 생태계 오염원 100% 전수 정비, 수생태계 종합적 연결성 확보
건강한 생태계 대표성 확보 및 통합적 관리 강화	도입기('18~'20)	신규 국립공원 지정(ex. 하천 등), 공원보호구역 제도 도입
	정착기('21~'25)	광역생태권 관리체계 도입 · 구축, 공원보호구역 지정 확대
	발전기('26~'30)	광역생태권 관리체계 정착
생태계 위협 요인 관리강화	도입기('18~'20)	위해 외래종 유입경로 및 분포 정밀조사
	정착기('21~'25)	위해 외래종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제거 등) 강화
	발전기('26~'30)	사전 예방적 위해 외래종 관리 체계 정착
보호지역 관리기반 강화	도입기('18~'20)	생태계서비스(ES) 평가체계 구축 및 평가, 관련 정책 개발
	정착기('21~'25)	생태계서비스 기반 용도지구(Zoning) 지정
	발전기('26~'30)	생태계서비스 기반 적응형 관리(adaptive management) 체계 정착

• 해양분야: 관련 SDGs 목표(G 14)

	추진과제	과제 주요 내용
지속가능 (해양) 자연자원 보전 · 관리	해양오염 실질적 감소 · 방지 G 14.1 G 1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 · 해양 오염원 조사 및 관리 강화(사전예방적 해양환경관리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원 조사 및 관리: 항/선착장, 양식장, 생활하수(도서 등), 항로(소음, 진동, 유류 유출) - 오염 저감 방향: 오수처리시설, 오염폐기물 수거, 선박/항로 관리(회피/이격, 속도 등) - 해양폐기물, 해양산성화 모니터링 • 훼손 해역 조사 및 복원

지속가능 (해양) 자연자원 보전 · 관리	과학기반 관리 (생물다양성, 생태계) G 14.4 G 14.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 생태계기반 통합자원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자원조사/모니터링, 생태계서비스(ES) 평가, - 해양생물자원/ES Mapping(지도화) - 통합자원관리: 자원기반 zoning, 서식처유형별 관리 - 서식처유형별 관리: ex. 해조류, 산호, 조간대 관리 등 - 해양건강성 평가(지수) - IT 기반(VMS 등) 통합 관리체계 구축
	연안 · 해양 생태계 보전 강화 G 14.5 G 1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 국립공원 확대 (at least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국립공원 지정(갯벌, 12해리~EEZ관할해역) - 기존 국립공원 해양면적 확대 • 해양국립공원 용도지구(zoning)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 take zone 확대 (보호대상 해양생물/서식처) - 특별보호구 지정확대 • 해양공간 통합관리체계 (해양공간계획(MSP) 도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적 DB 기반 보전정책 강화 (인접해역, 수심별 관리) - 해양생태계 보전 · 관리 인프라 강화

- 목표(by 2030) : 사전예방적 해양환경관리 정착(해양공간 통합관리체계)

해양오염 실질 적 감소 · 방지	도입기('18~'20)	연안 · 해양 오염원 조사 및 모니터링
	정착기('21~'25)	통합 오염원 관리체계 구축 · 이행
	발전기('26~'30)	사전예방적 해양환경 관리 정착
과학기반 관리 (생물다양성, 생태계)	도입기('18~'20)	해양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ES) 평가
	정착기('21~'25)	가치 기반 용도지구(zoning) 시스템 구축
	발전기('26~'30)	해양공간 통합관리체계 운영
연안 · 해양 생태계 보전 강화	도입기('18~'20)	해양보호지역 확대(10%), 보존지구(no-take zone) 지정
	정착기('21~'25)	해양보호지역 확대(12%), 보존지구(no-take zone) 확대
	발전기('26~'30)	해양보호지역 확대(15%), 보존지구(no-take zone) 확대

• 자연과 사람의 공존: 관련 SDGs 목표/세부목표: G 11, G12, G4, G13

	추진과제	과제 주요 내용
자연과 사람의 공존	인식 증진, 교육, 역량 강화 G 11.4, G 12.8 G 4.7 G 1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보전 인식증진 제고 프로그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세대에 친숙한 흥미유발 콘텐츠 강화: 웹툰, 게임, 가상체험, 애니메이션, 이모티콘, 캐릭터 개발, 학교교육 연계 등 - 방문객 맞춤형 기획 전시, 교육 프로그램 강화 - 생애주기별 환경교육 프로그램: 학교교육 연계(Teacher's book 제작, 학년별 교재 이용 확산), 은퇴세대/지역주민 대상 평생교육 운영 등 - 국가 기념일 지정: "국립공원의 날"지정, UN 기념일 지정 추진 연계(세계 국립공원 및 보호지역의 날) → 휴식일 지정 -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인증 확산 • 수요자 맞춤형 환경정보의 실시간 측정, DB구축, 가공,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계절 변화, 공기 질(대기오염 저감, 미세먼지 발생량, 미세먼지 저감 등) 측정 및 DB 구축 - 대표적인 대국민 알림메시지 발굴 · 제공 (예시, 국립공원 쾌적성 지수)

자연과 사람의 공존	인식 증진, 교육, 역량 강화 G 11.4, G 12.8, G 4.7, G 1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지역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지역 예비전문가 지원 시스템(교육, 연구의 장 제공) 구축: 보호지역 아카데미, 연구공모제, Post-Doc 프로그램, 전문학술지 발간 등 - 전문가 양성 기관 설립: 대학 협업을 통한 공원관리학 신설, (협동과정 석·박사과정 개설, 대학원 대학 건립) - 공원기술 전문성 확보를 위한 디자인센터 건립: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 개발·적용, 국립공원 기술정보 정립(시설적용 사례집 발간), 기술 지원단 인력풀 구성
	지속가능관광 G 12.b, G 8.9, G 1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생활 속의 국립공원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 속 국립공원 홍보관, 이동식 탐방안내소 운영 - 생태체험 및 환경교육 인프라 확충: 자연사박물관, 네이처센터, 생태탐방연수원 등 - 지역사회 참여형 생태관광(일자리 창출 등): 생태관광지역 조성·운영·관리 가이드라인 개발·배포, 교육 지원, 컨설팅 전문가 파견·지원 • 자연·문화 기반 지속가능 관광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양·치유·관광 산업분야에 있어서 국립공원의 역할 및 발전방향 수립 - 자연보전 기반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건강성 강화 성공모델 육성·발굴·확산 - 고품격 맞춤형 생태관광 콘텐츠 발굴: 전문 주제별/권역별 콘텐츠 연계 발굴, 탁월한 경험 제공, VR/AR 콘텐츠 강화, 자연치유 프로그램, 자연과 문화의 연결 등 - 우수 생태관광인증제도 확산/강화

- 목표(by 2030) : 모든 국민이 생태계 가치를 이해하고 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인식 증진, 교육, 역량 강화	도입기('18~'20)	수요자 맞춤형 환경정보 측정 및 제공 미래세대에 친숙한 흥미유발 콘텐츠 강화 (게임, 웹툰, 애니메이션 등)
	정착기('21~'25)	대국민 대표 메시지 개발·제공 (ex. 쾌적성 지수 개발, 국가 기념일 지정(국립공원의 날))
	발전기('26~'30)	보호지역 전문가 양성기관(대학원 대학, 디자인 센터 등) 설립
지속가능관광 활성화	도입기('18~'20)	치유·관광 산업에 있어서의 국립공원의 역할 정립, 고품격 맞춤형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정착기('21~'25)	지속가능관광 성공모델 육성·확산, 생태체험 인프라 확충 (네이처센터, 자연사 박물관 등)
	발전기('26~'30)	우수 생태관광 인증제도 강화

• 지속가능발전 파트너십 활성화

- 관련 SDGs 목표/세부목표: G 17

	추진과제	과제 주요 내용
지속가능발전 파트너십 활성화 G 17.2, G 17.6, G 17.7, G 17.17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 분야 국제적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과학기술협력 강화: Mega-diversity 국가, 동북아시아지역 중심 - 개도국 협력을 통한 해외 생물자원 연구 및 역량강화 사업 지원 (관리경험 및 과학기술 공유 등) -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효과적 국립공원 관리 실현 및 기타 보호지역에 공유·확산(국제적 인증, IUCN Green List 등) - 국제보호지역(UNESCO BR, 람사르습지, 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 지정확대 추진 - 국제기구/협약 등에 전문가 파견을 통한 국제적 역할 증대 • 남북협력 및 한반도 생태공동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기구/협약을 통한 자연환경분야 남북협력 사업 추진 (한반도 생물다양성 자료집, 한반도 Red-list, 한반도 보호지역 Atlas, 두루미 번식지/월동지 협력체계, 크낙새 복원 등) - DMZ의 한반도 생물 거점화 및 국제적 보호지역(UNESCO BR) 지정: DMZ/접경지역 생태계조사, 접경 보호지역 지정, 접경 훼손지 복원사업, 이동성 종 서식분포/이동경로 조사, 설악-금강 생태평화공원 등 추진
지속가능발전 파트너십 활성화 G 17.2, G 17.6, G 17.7, G 17.17	효과적인 공공, 민간, 시민사회 네트워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지역 관계기관/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지역 통합 DB 구축 및 관리 -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 대학, 연구기관, NGOs 등 학술 네트워크 강화 (공동연구, 전문가 포럼 운영 등) •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협력 네트워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과 함께하는 쌍방향 환경정보 협업 플랫폼 구축: Civil Science 활용 강화(지역주민, 준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연환경 모니터링 활성화), 정보공유 플랫폼을 통한 시민환경 모니터링 강화 (생물다양성 탐사활동 등 자연생태 모니터링 대회) - 시민사회 및 이해당사자간 소통 강화 (보호지역 기반 마을의 지속가능발전 지원·진단) -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확산, 국립공원 프랜즈 그룹 활성화

- 목표(by 2030) : 동북아(한반도) 생태공동체 구축 선도, 자연 보전으로 하나되는 국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도입기('18~'20)	국제기구/국제협약을 통한 과학기술·정보·경험 공유 활동 강화, 우수한 보호지역 관리에 대한 국제적 인증 추진
	정착기('21~'25)	한국 주도의 다자간 협력 강화, 국립공원 국제적 인증(IUCN GL) 완료
	발전기('26~'30)	동북아 생태공동체 구축 이니셔티브 주도
효과적인 공공, 민간, 시민사회 네트워크 강화	도입기('18~'20)	한국보호지역포럼 활성화(전문가/NGOs 등 중심)
	정착기('21~'25)	보호지역 분야 통합 정보공유 플랫폼 운영 활성화
	발전기('26~'30)	다양한 계층의 보호지역 프렌즈 그룹 정착

VI. 향후 추진방향 및 시사점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사회·경제·환경의 조화되어 통합적인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으며, 특히 환경 관련 목표의 효과적인 성취가 MDG와는 다른 SDGs의 차별적 정체성을 부여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다양한 개발목표를 담고있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적절한 자원 마련이 매우 중요 →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새로운 자원 확보 노력 필요 (추진과제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DB 구축/정보 교류 강화, 주기적인 소통 등)
- 광범위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 지구적 맥락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현황과 비전을 잘 반영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추진 필요 → 어떤 분야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국민,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관련 주체가 참여 필요, 효과적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필요
- 거의 모든 목표들이 상호 연관성이 깊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폭넓은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 → 인식증진 프로그램 강화, 국가 주요 정책·계획에 SDGs의 주류화 필요



SDG 14-해양:

해양수산부 국제기구팀

홍근형 사무관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 및 이용 이행 방안

- 해양수산부 국제기구팀 흥근형 사무관

I. UN SDGs 개요

2000년 9월 UN 191개 회원국이 참여하여 범지구적 의제(빈곤의 감소와 보건 및 교육의 개선, 환경보호 등에 관한 8가지)로 채택된 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 Millenium Development Goals)가 2015년을 기점으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새로운 의제가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9월 28일 UN 총회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193개국 정상들의 서명으로 발효되었다. 새롭게 발효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이행되는 국제적 공동목표로서, ① 인류의 보편적 문제(빈곤, 질병, 교육, 여성 등), ② 지구환경 문제(기후변화, 환경오염, 생물다양성 등), ③ 경제사회 문제(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등)를 해결하고자 17개의 주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었다.

SDGs의 17개의 주목표는 다음과 같다.



(출처: <http://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

목표 1	End poverty in all its forms everywhere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목표 2	End hunger, achieve food security and improved nutrition and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기아 종식, 식량안보와 영양개선 달성 및 지속가능한 농업 촉진
목표 3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건강한 삶 보장 및 복지와 안녕 증진
목표 4	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폭넓고 공평한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 촉진
목표 5	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 성 평등 달성과 여성 역량강화
목표 6	Ensure availabil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for all 물과 위생시설의 이용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목표 7	Ensure access to affordable, reliable, sustainable and modern energy for all 경제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동시에 현대적인 에너지 접근 보장
목표 8	Promote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안정적이고 종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생산적인 완전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촉진
목표 9	Build resilient infrastructure, promote inclusive and sustainable industrialization and foster innovation 탄력적인 인프라 구축과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촉진 및 혁신 강화
목표 10	Reduce inequality within and among countries 국가 간 및 국내 불평등의 감소
목표 11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종합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동시에 탄력성 있는 도시와 주거지 구축
목표 12	Ensur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목표 13	Take urgent action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s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긴급대응
목표 14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s, seas and marine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
목표 15	Protect, restore and promote sustainable use of terrestrial ecosystems, sustainably manage forests, combat desertification, and halt and reverse land degradation and halt biodiversity loss 육지생태계 보호 · 재생과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및 산림관리와 사막화 방지,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목표 16	Promot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t all levels 평화롭고 종합적인 사회구축과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및 사회 각층에 효과적이고 책임적이며 종합적인 제도 구축
목표 17	Strengthe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revitalize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구현과 재활성화 수단 강화

17개의 주목표 중 14번째 목표인 SDG 14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 및 이용(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s, seas and marine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으로서 해양 분야를 총괄한다고 할 수 있겠다. SDG 14에는 10가지의 세부목표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4.1	by 2025, prevent and significantly reduce marine pollution of all kinds, particularly from land-based activities, including marine debris and nutrient pollution 2025년까지 특히 육상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해양오염, 해양쓰레기, 부영양화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상당 부분 감소시킨다.
14.2	by 2020, sustainably manage and protect marine and coastal ecosystems to avoid significant adverse impacts, including by strengthening their resilience, and take action for their restoration, to achieve healthy and productive oceans 2020년까지 해양 및 연안 생태계의 회복성을 강화하여 상당한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 및 연안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해양을 위해 복원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14.3	minimize and address the impacts of ocean acidification, including through enhanced scientific cooperation at all levels 모든 방면에서의 강화된 과학적 협력을 통해 해양 산성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를 해결한다.
14.4	by 2020, effectively regulate harvesting, and end overfishing,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fishing and destructive fishing practices and implement science-based management plans, to restore fish stocks in the shortest time feasible at least to levels that can produce maximum sustainable yield as determined by their biological characteristics 2020년까지 최소한의 실현가능한 기준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어족자원을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지속 가능한 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해, 수확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남획·IUU(불법·미신고·비규제 어업)와 파괴적인 어업 관행을 종식시키며 과학에 기반한 관리계획을 시행한다.
14.5	by 2020, conserve at least 10 per cent of coastal and marine areas, consistent wi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and based on best available scientific information 2020년까지 국가 및 국제법에 일치하도록 최선의 과학적 정보에 기반하여 적어도 10%의 해안 및 해양 지역을 보존한다.
14.6	by 2020, prohibit certain forms of fisheries subsidies which contribute to overcapacity and overfishing, and eliminate subsidies that contribute to IUU fishing, and refrain from introducing new such subsidies, recognizing that appropriate and effective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for developing and least developed countries should be an integral part of the WTO fisheries subsidies negotiation. 2020년까지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적정하고 효과적인 특별 차등 대우가 세계무역기구(WTO) 어업 보조금 협상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어야 함을 인지하며, 생산과잉과 남획을 조장하는 모든 형태의 어업 보조금을 금지하고, IUU 어업을 조장하는 보조금을 없애며, 이와 같은 형태의 새로운 보조금의 도입을 금지한다.
14.7	by 2030 increase the economic benefits to SIDS and LDCs from the sustainable use of marine resources, including through sustainable management of fisheries, aquaculture and tourism 2030년까지 어업, 양식, 관광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군소도서개발국과 저개발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킨다.

14.a	increase scientific knowledge, develop research capacities and transfer marine technology taking into account the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Criteria and Guidelines on the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in order to improve ocean health and to enhance the contribution of marine biodiversity to the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SIDS and LDCs 개발도상국, 특히 군소도서개발국과 저개발국의 발전과정에서 해양의 건강을 개선하고 해양 생물다양성 기여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적 지식을 향상시키며, 연구 역량을 발전시키고, 정부 간 해양학위원회와 해양기술이전의 기준을 고려하여 해양기술을 이전한다.
14.b	provide access of small-scale artisanal fishers to marine resources and markets 소규모 영세어민들이 해양자원 및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14.c	ensure the full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as reflected in UNCLOS for states parties to it, including, where applicable, existing regional and international regimes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oceans and their resources by their parties 당사국에 의한 해양과 해양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및 보존을 위해 당사국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지역적·국제적 체제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반영한 국제법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한다.

II. UN SDGs 관련 국내 진행상황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이행되어야 할 국제적 공동목표인 SDGs가 결정됨에 따라, 국내적으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

우선 지속가능발전을 녹색성장의 상위개념으로 정비하고 관련법 정비 및 위원회 통합·격상 등을 통해 추진체계를 강화하려고 한다. 「지속가능발전법」을 기본법으로 격상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現 환경부 직속)와 녹색성장위원회(現 총리실 직속)를 통합하여 대통령 직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개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또한, 기존의 저탄소·녹색성장에서 기후변화 대응체계는 분리하고, 녹색성장은 사회적 형평성이 강조되는 녹색경제 개념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III. UN SDG 14 관련 국제 진행상황 : Ocean Conference

1 2017년 해양 컨퍼런스(Ocean Conference) 개요

2017년 6월 5일부터 9일까지 미국의 뉴욕 UN 본부에서 SDG 14를 논의하기 위해 전세계의 해양 관련 담당자들이 모두 모여 해양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현재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앞으로 무엇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인 해양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UN 회원국, 국제기구, NGO, 시민사회, 학계 및 민간부문 관계자 등 총 1,5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컨퍼런스에는 특히, 국가원수 및 정부수반 14명, 장관급 40여명이 참석하여 그 회의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외교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이 참석하여 5일간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SDGs 17개 목표 중에 특정목표와 관련해서 최초로 제기된 UN 차원의 고위급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해양 분야의 미래를 논의하는 국제적 회의는 미국 주도로 2014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Our

Ocean Conference, 2015년부터 22개국이 참석하고 있는 Because the Ocean 등이 있는데, 이번에 UN에서 SDG 14를 정하고 UN 차원에서 고위급회의를 개최하여 2030년까지의 실천방안을 논의하게 되었다. 5일 동안의 회의에서는 국제협력 강화, 해양환경관리의 중요성,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 개발도상국 지원 확대 등이 논의되었으며, 별도의 홈페이지(oceanconference.un.org)를 마련하여 모든 사람들이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5일 동안의 회의는 크게 3가지 결과물을 남겼는데, 이는 행동촉구선언문(Call for Action), 자발적 기여(Voluntary Commitments)와 파트너십 대화(Partnership Dialogues)로 나눌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 각각을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2. 행동촉구선언문(Call for Action)

행동촉구선언문은 2030년까지 SDG 14 이행을 위해 행동이 필요한 사항들을 모든 회원국이 합의로 채택한 선언문이다. 이번 해양 컨퍼런스를 위해 2017년 2월 준비회의가 개최되어 6월에 해양 컨퍼런스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 여러 번의 검토와 의견조화를 통해 동 선언문이 완성되어 채택되었다. 행동촉구선언문은 총 14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회원국 및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지켜나가야 할 내용이 담긴 선언문 13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 우리는 모든 이해당사자가 해양과 해양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뤘고자 한 제도와 파트너십에 더하여 다음 행동을 긴급히 취할 것을 요구한다.

- 목표 14와 특히 해양과 관련된 목표들과 목표 14의 실행을 돕기 위한 기타 절차를 통합되고 조율된 방식으로 실행하고 목표 14와 기타 목표의 긴밀한 연결성과 잠재적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여 정책과 행동을 촉진
- 국제기구, 지역 및 지역 하위 기구와 기관, 규율, 프로그램 등 모든 수준에서 기관 간 협력과 정책 일관성, 조율을 강화
- 정부와 전 세계 및 지역, 지역 하위 기관과 프로그램, 과학계, 민간 부문, 기부자 단체, 비정부 기구, 지역사회 단체, 학문적 기관, 기타 관련부문의 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민간 파트너십 등에서 효과적이고 투명한 이해당사자들 간 파트너십을 강화 및 증진
- 바다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인간 활동이 바다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바다의 자연적 문화적 중요성과 바다의 현 상태와 역할 그리고 바다에 관한 지식 확대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을 증대시킬 통합 전략 개발
- 바다에 대한 지식과 바다 보존 및 복구, 지속 가능한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를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해양 관련 교육 개발 계획 지원
- 해양 생물다양성이 개발도상국, 특히 SIDS(소규모도서개도국) 및 LDCs(최빈개도국)의 개발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바다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증진시키고, 기후 변화와 바다의 건강 및 생산성과의 관계를 더욱 잘 이해하며, 이용 가능한 최신 과학 기반의 의사 결정을 증진시키고, 과학 및 기술적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전통지식 등 자료와 지식을 수집 및 공유하고, 학제 간 연구와 지속적인 해양 및 연안 관측 등 해양과학연구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시킬 것
- 선박의 타격이나 수중 소음, 침투외래종 등 해양 및 해양생물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기타 인류 활동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특히 해양쓰레기나 영양분 오염, 비처리 폐수, 고형 오물 배출, 유해 물질,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버려지거나 잃어버린 어구, 플라스틱 및 마이크로 플라스틱 등 육지 기반의 활동으로 인한 모든 종류의 해양 오염을 예방 및 급감시키기 위하여 행동 가속화
- 쓰레기 발생 감소를 위해 시장에 기반을 둔 해결책을 장려하고, 환경 친화적인 쓰레기 관리 및 폐기, 재활용을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 재사용 및 재활용 가능한 제품이나 자연 상태에서 생분해 되는 제품 등 대체재를 개발하여 쓰레기 방지 및 최소화 촉진,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개발, 3R(감소, 재사용, 재활용) 도입
- 플라스틱 및 마이크로 플라스틱, 특히 비닐봉지나 1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해당사자들과 공동으로 생산, 마케팅, 및 이용을 감소를 위한 강력한 장기 전략 시행
- 해양 회복력을 증진시키고 해양 생물다양성을 보존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이용하기 위하여, 해양보호

구역과 기타 통합적이고 여러 분야에 걸친 접근법, 이용 가능한 최신 과학 기반의 해양공간계획 및 연안통합관리, 이해당사자 참여, 국제법 및 국내법과 일치하는 수준에서의 예비 생태계 접근법 적용 등 효과적이고 적절한 지역 기반의 관리 도구 이용 지원

- 해양 및 연안 산성화, 해수면 상승, 해수 온도 상승에 대한 회복력을 증가시키고, 기후 변화가 우리의 바다에 영향을 미치는 맹그로브, 감조습지, 해초, 산호초, 더 넓게 연결된 생태계 등 연안 및 블루카본 생태계뿐만 아니라 바다에 미치는 기타 악영향을 해결할 효과적인 적응 및 완화 방법을 개발 및 이행하고, 관련 의무와 약속을 성실히 이행
 - 과학 기반 관리 방법, 예비적 생태계 접근법, 모니터링, 제어 및 집행,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관리되는 어류 자원 소비, 협력 및 조정 강화와 지역 수산 관리 기구를 통해 최대 지속 가능한 생산량에 대한 의무 달성을 위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 관리를 증진시킬 것
 - 파괴적 어업 관행과 IUU(불법, 비규제, 비보고) 어업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해당 행위자나 이로부터 이익을 받는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해당 활동이 가져오는 이익을 박탈하고 항만국 및 기국 의무를 효과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파괴적 어업 관행과 IUU 어업 근절
 - 상호 정보 교환이 가능한 어획문서 제도와 어류가공품의 추적가능성 개발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협조 및 조정을 강화
 - 해양 자원 및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 관리의 맥락에서 어민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규모 및 영세 어민들에게 제공되는 역량 강화와 기술 지원을 강화
 -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을 위한 적절하고 특별한 조치가 협상의 구성 요소가 되어야 함을 인식하며 WTO에서 진행되는 해당 사안과 관련한 논의를 종결시키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는 등 생산 과잉 및 남획에 기여하는 수산 보조금을 금지하고, IUU어업에 기여하는 보조금을 철폐하며, 새로운 형태의 보조금 도입을 자제하기 위하여 단호히 행동
 - 특히 SIDS와 LDCs를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차원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산업, 관광, 양식업, 해상교통, 재생 가능 에너지, 해양 생명 공학, 해수의 담수화 등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해양 기반 경제 강화 및 증진 지원
 - 2030 의제와 아디스아바바 행동 의제, 기타 관련 결과에 따라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지속 가능한 해양 관련 활동 개발 및 목표 14 이행을 위해 필요한 수단을 집결시키기 위한 노력 증대
 -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의 해양 생물 다양성(BBNJ)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하여, UN 해양법 협약 하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를 개발하기 위해, 총회 결의안 69/292에 따라 설립된 준비위원회 회의와 의견 교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총회가 제72차 회의 종료 이전에 준비위원회 보고서를 고려하여, 정부 간 회의 소집 및 개최일을 결정하도록 함
 - 파트너십 대화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지지하고, 회의에서 마련된 각각의 자발적 약속의 이행에 전념
 - 미래의 업무 진행을 강화하기 위한 기회를 포함한 목표 14의 실행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고위급 정책 포럼에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2030 의제 검토 절차와 후속조치에 기여
 - 첫 주기 중 개최되는 고위급 정책 포럼에서의 논의를 고려하여 목표 14를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한 시행을 지지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 연구

3. 자발적 기여(Voluntary Commitments)

이번 해양 컨퍼런스에서는 회원국 및 국제기구 등이 SDG 14 이행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웹 사이트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어떠한 이해관계자가 어느 수역에서 예산이나 현물자원 등을 통해 무엇을 기여할 것이며, 그 수혜자는 누구인지 등을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번 컨퍼런스가 종료된 6월9일까지 총 1,406건의 자발적 기여가 등록되었는데, 기여단체별로는 정부가 616건(4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NGO, UN(전문기구 포함), 시민사회 등의 순으로 등록을 많이 하였다. 또한, SDG 14 세부목표별로 분류하면 14.2(해양생태

계 보전) 목표에 가장 많은 719건(51%)이 등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14.a(개도국 해양기술이전), 14.1(해양오염 방지) 목표 순으로 등록된 자발적 기여가 많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 6건의 자발적 기여를 등록하였는데, 해양수산부가 4건,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가 2건을 등록하였다. 6건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수산분야 ODA(해양수산부)

우리나라는 해양수산분야의 ODA(공적개발원조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확대하여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할 계획을 등록하였다. 2017년에는 500만 달러를 지원하고, 매년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가면서 수산생물질병 장비 구입 및 해양조사방지 지원 등의 현물(in-kind) 지원도 병행한다. 또한, 전문가 파견 교육 및 연안개도국 초청 교육도 실시하여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2017년에는 국제협력 컨퍼런스 2회 개최, 피지에 음향측심기, 위성항법장치 지원 등을 통해 항해용 해도 제작, 세네갈 및 가나에 수산시장 건립 지원, 키리바시에 기자재 지원 그리고 마이크로네시아에 태평양해양과학기술기부지 내에 관상생물 배양시설 건축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2) 해양산성화 방지(해양수산부)

태평양 소도서해역에서의 해양산성화 영향 최소화를 위해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자발적 기여로 등록하였다. 팔라우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535만 달러를 투입하여, 산호초 해역 예비조사 및 시스템 시범운영, 산성화 관측 시스템 관리 운영 담당자 실무교육, 해양산성화관측시스템 설치를 통한 시범연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3) 해양환경관리(해양수산부)

매년 3,00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양환경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별관리해역의 연안오염총량관리 및 해양보호구역 관리(2003년부터 시행),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정화(1988년부터 시행), 갯벌생태계 복원(2010년부터 시행), 해양환경측정망 운영(1980년부터 시행) 등을 통해 한반도 주변해역의 환경관리를 통한 자발적 기여를 이행할 계획이다.

4)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을 위해 매년 6,00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국내적으로 어획증명제도(CDS : Catch Documentation Scheme)를 도입하여 해당 어족자원이 적법하게 어획되었는지를 관리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바닷속에 방치된 폐어구에 물고기 등 해양생물이 걸려죽는 유령어업(Ghost Fishing) 방지를 위해 생분해성 어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5) 해색(海色) 이미지, 해양환경정보, 오염관리지식 공유(KIOST)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아시아-태평양과 인도의 개도국과 군소도서개도국을 대상으로 하여 기술을 이전하는 자발적 기여를 등록하였다. 해색 원격 감지 데이터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참치 어업을 위한 해양환경 관련 현황 및 예보 정보를 제공하며 런던의정서 경영공학 대학원을 설립하여 개도국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런던의정서 경영공학 대학원(Graduate School of London Protocol Engineering Master of Project Administration)은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 연안 및 항만개발·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모집하여,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지식과 기술 및 경험을 전수하고 우리나라와 교육대상국 간의 연안개발 관련 교류 및 상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설립되었다. 대학원 과정으로서, 2018년 3월에 개원할 예정이며 2년 4학기 32학점으로 운영되고 첫 해에 10여명의 학생이 교육받을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개도국 지원사업으로서 학비 및 생활비 등이 지원되며, 국내교수진 및 해외의 저명한 학자를 초청하여 강의를 실시하고 현장학습을 통해 살아 있는 지식도 전수할 예정이다.

6) 산호초 생태계 해양생물의 종 동정(種同定) 및 유전분석 역량 증진(KIOST)

서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3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 역량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여 서태평양 해양생물 다양성 포털사이트 구축과 서태평양 DNA 바코드 해양생물 다양성 도서 발간을 지원할 계획이다.

4. 파트너십 대화(Partnership Dialogues)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SDG 14의 10개 세부목표를 7개 대화 주제로 분류하여, 분야별로 회원국, 국제기구,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토의를 통해 SDG 14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였다. 7개 대화 주제별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오염문제 해결(SDG 14.1)

육상으로부터 유입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추구, 대안 연구 및 모범사례 공유,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의되었다.

2) 해양 및 연안생태계 관리, 보호, 보존, 복원(SDG 14.2 / 14.5)

2020년까지 10%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며, 해양공간계획의 확대와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수산업 규제 등이 논의되었다.

3) 해양 산성화 최소화 및 해결(SDG 14.3)

해양산성화 방지를 위해 저탄소 경제가 실현되어야 하며, 군소개발도서국이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하므로 기술 전수 및 교육을 통한 인식제고의 촉구 등이 논의되었다.

4)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SDG 14.4 / 14.6)

불법어업의 방지를 위해 항만국조치협정(PSMA : Port State Measures Agreement) 가입국의 확대가 필요하며, 친환경 어구 개발과 어획증명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5) 군소도서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의 경제적 이익 증대 및 소규모 영세어민의 해양자원 및 시장 접근 제공(SDG 14.7 / 14.b)

관광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해양환경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어족자원관리를 통한 영세어민 보호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6) 과학적 지식 및 연구능력 개발과 해양기술 이전 증진(SDG 14.a)

국가관할수역을 넘어서는 심해저에서의 과학적 연구를 장려하고 기후변화가 진행되면서 해양환경 예측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7) UN 해양법에 반영된 국제법 이행을 통한 해양 및 해양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 개선(SDG 14.c)

해수면 상승 등 현재 직면한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법적 틀 마련과 해양 거버넌스 관련 국제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IV. SDG 14 이행 관련 UNESCO IOC 진행상황

1. UNESCO IOC 개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 International Oceanographic Commission)는 1960년 설립되어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148개국의 회원국과 40개국의 집행이사국으로 구성된 IOC는 유네스코 산하의 유일한 해양과학 전담기구로서 전지구적인 해양과학 조사 및 해양서비스를 촉진하고 회원국의 해양환경관리 개선, 지속 가능한 개발 실현, 정책결정과정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1961년 IOC 1차 총회에서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하여 1993년부터 8회 연속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전 IOC 및 서태평양지역위원회(WESTPAC)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는 등 IOC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한국해양학위원회(KOC : Korea Oceanographic Commission)를 구성하여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외교부, 기상청,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해양전문가 등 총 21명의 구성되어 있다.

IOC의 주요 해양과학 프로그램으로는 과학 분야에서 유해조류적조, 광역해양생태계, 국제지구연구, 국제해색위성전문가그룹 등이 있으며, 해양서비스 분야에서 국제해양자료 및 정보교환, 해저지형도 등이 있다. 또한, 응용해양학분야에서 지구해양관측시스템, 해양기상학위원회, 데이터부이협력패널 등이 있으며, 이 밖에 능력배양프로그램과 UN 해양법 전문가회의 등의 해양과학 프로그램이 있다.

2. 최근 IOC 논의내용

2017년 6월 개최된 제29차 IOC 총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해양과학 10개년 계획

IOC는 SDG 14 달성을 위해 UN에서 1970년대에 추진한 IDOE¹ 50주년을 계기로 “국제해양과학 10개년 계획(Ocean Decade)” 이행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해양자원·환경 보전과 해양 관련 다양한 정보의 공유를 통해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국제공동 해양탐사·연구 사업을 말한다.

금번 IOC 총회에서는 동 계획을 승인하고 2019년 UN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2021~2022년부터 세계 해양탐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나라는 Ocean Decade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IOC 사무국과 MOU를 체결하고 재정적·인적 지원을 추진하여, 국제 해양과학분야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탐사·개발 역량 확보를 통해 해양강국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2) 전지구해양과학보고서(GOSR) 발간 추진

세계 각국의 해양 관련 현안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하고, 향후 해양연구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원국의 해양과학 관련 시설, 인프라, 투자 및 인력 등을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전지구해양과학보고서(Global Ocean Science Report)가 이번 총회에서 제1판이 발간·배포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발간이 추진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전문인력을 IOC에 파견하여 동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제2차 편집위원회의 개최를 지원한 바 있다. 또한, 동 보고서의 지속적인 발간에 필요한 Data Portal 구축 등을 위해 2018년 이후 IOC 사무국에 재정적·인적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3) 대양수심도(GEBCO)의 “Seabed 2030” 프로젝트 추진

대양수심도(GEBCO : General Bathymetric Chart of the Oceans)는 IOC와 IHO(국제수리기구) 공동으로 해양지형 등과 관련된 통계와 정보제공 등을 위한 프로젝트로서, 현재 대규모 해저지형(500m 이상)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해저지형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고 있다. 또한, GEBCO 운영위원회에서는 소규모 해저지형(100m 이상)에 대한 조사 확대 및 전세계 바다 해저지형(Seabed 2030)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Seabed 2030 프로젝트가 해저지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므로 적극 지지하면서, 지원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V. SDG 14와 UNESCO의 교육, 문화 및 과학 분야 증진 목표 간의 연관성

금년 6월에 개최된 해양 컨퍼런스에서 채택된 행동촉구선언문에는 해양 분야의 교육, 문화 및 과학 분야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바다의 자연적·문화적 중요성 및 해양 지식 확대, 인식 증대 전력 개발, 해양 관련 교육 개발 계획 지원, 과학 및 기술적 혁신 촉진을 위한 지식 수집 및 공유, 학제 간 연구, 연안 관측, 해양과학연구 지원을 통해 SDG 14를 이행해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결국, SDG 14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 및 이용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 문화, 과학 분야에 있어서의 개선과 국내적·국제적 파트너십 확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곧 교육, 문화, 과학이 SDG 14 달성을 위해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자 목표가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SDG 14는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과 유네스코의 교육, 문화 및 과학 분야 증진 목표의 상호지향성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SDG 14가 해양 컨퍼런스를 통해 국제적으로 그 중요성과 방향성이 정해졌고, 이에 발맞춰 우리 정부 또한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체계를 개편하고자 함에 따라, 국내적으로도 정부와 학계, 민간사회, NGO 등이 파트너십을 맺고 SDG 14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SDG 14를 비롯하여 17개의 SDG 모두 2030년을 넘어 인류가 계속되는 한 달성해야 될 목표이기에, 앞으로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¹ International Decade of Ocean Exploration : 미국 주도로 1971~1980년에 실시된 전세계 52개국이 참여한 국제공동 해양탐사 프로젝트



SDG 6-물: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

임광섭 박사



물 안보 분야의 SDGs 기여

-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 임광섭 박사

목 차

105 제 1장.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물 안보

- 1.1 물 안보 개념 및 의미
 - 1.1.1 전통적 안보
 - 1.1.2 안보의 패러다임 변화
 - 1.1.3 물 안보(Water Security)
 - 1.1.4 SDGs 통합시스템으로서의 이해
- 1.2 물 안보 도전과 과제
 - 1.2.1 기후변화와 물 위기, 경제발전
 - 1.2.2 지속가능한 물과 위생, 물 인권

113 제 2장. 국제사회 물 패러다임의 변화

- 2.1 스톡홀름에서 Rio+20 까지
- 2.2 MDGs시대에서 SDGs시대로의 이행
 - 2.2.1 새천년개발목표
 - 2.2.2 새천년개발목표와 물
 - 2.2.3 Post-2015 개발의제 시대의 개막
- 2.3 2030 개발의제의 시대
 - 2.3.1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물

120 제 3장. 물 분야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이행

- 3.1 UNESCO IHP 8단계 전략과 사업
 - 3.1.1 UNESCO IHP
 - 3.1.2 UNESCO IHP 8단계 전략과 사업
- 3.2 UNESCO i-WSSM
 - 3.2.1 UNESCO i-WSSM의 물 안보 사업
 - 3.2.2 UNESCO i-WSSM의 물 안보 추진전략과 과제

128 제 4장. 결론 및 제언

131 참고문헌

제 1장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물 안보

세계인구의 13%인 약 7억 명은 안전한 음용수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며, 36%인 약 25억 명은 기본적인 위생시설도 없이 생활하고 있다. 또한, 2011년 아프리카 가뭄, 태국의 대홍수, 중국의 가뭄 등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물과 관련하여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미래에는 인구증가, 기후변화, 도시화 및 산업화가 심화됨에 따라 물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2016년도 Global Risks의 영향력 측면에서 물위기가 2015년 1위, 2016년 및 2017년은 3위로 선정되는 등 물 관련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물 관련 문제 이외에도 순위권에 포함된 기후변화, 극심한 이상기온 등도 물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최근 물 위기는 기존의 '환경문제'에서 '사회문제'로 범주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에너지-식량-건강-생태-문화 등 인간의 삶의 질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연관된 문제로 확대 인식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물 위기가 급격히 부각됨에 따라 이의 해결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5년은 국제사회 거버넌스 및 정책 패러다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해였다. 2000년 국제사회가 인류의 빈곤 퇴치라는 삶에 가장 절대적인 개발목표로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할 빈곤, 의료, 교육 등 사회 환경 현안에서 해결해야 할 단순명료한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2015년 9월 UN 지속가능 세계정상 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서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하여 2030년까지 전 세계가 경제성장, 기후변화 등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보전 세 가지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 오늘날의 필요도 충족시키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합의를 마쳤다. 17개 목표 및 169개의 세부이행과제는 인권의 실현과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의 역량강화를 비롯하여 지속가능발전의 세 핵심축인 경제, 사회, 환경을 균형 있게 통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속가능개발목표에는 기후변화와 예측이 불확실한 다양한 자연재난, 특히 물과 물 관련 재해가 빈곤 감감, 기후변화 대응, 인간정주의 모든 삶의 영역에 연계요소로 녹아 있다. 이는 곧 기후변화 적응과 특히 물 안보 분야는 무엇보다 중요한 관심 분야로 부각이 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에서 SDG6을 "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확립(Ensure availabil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for all)"으로 하고 수자원관리 및 물과 위생 분야의 중요성을 전 세계가 공감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기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물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6번째 목표뿐만 아니라, 빈곤의 근절(SDG1), 기아근절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증진(SDG2)을 비롯한 다양한 목표들에서 물 분야가 직접·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더욱 심각해진 물 관련 재해로부터 리질리언스(Resilience) 확보 등,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전반적인 기초에서 물 안보 확보를 얻을 수 있다(박지현, 홍일표 외, 2016).

따라서 물 분야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이행을 위한 노력은 국제사회의 물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동반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 현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다.

1.1. 물 안보 개념 및 의의

유엔미래보고서에 의하면 2025년 세계인구의 절반 수준이 물 부족 상황에서 생활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OECD는 세계인구의 40% 이상이 심각한 물 스트레스 지역에 거주(Marchal, V 외, 2012)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또한 UN(2012)은 피크 오일(peak oil) 개념과 유사한 피크 워터(peak water)라는 용어가 생성될 만큼 물 부족 사태는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으며, 1970년대 석유파동(oil shock)이 아니라 이제는 물 파동(water shock)에 대비해야 한다고 세계경제포럼(WEF) 수자원 이니셔티브 보고서는 경고하고 있다. 이는 곧 물 부족의 심화와 불확실한 미래는 현재의 인류에게 물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생존에 필요한 충분한 물의 공급, 안전하고 깨끗한 물의 공급,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물의 공급은 여전히 인류의 난제이다. 이에 주요 국가들은 물 지배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2010), 기후 변화와 세계 인구 증가 등의 원인으로 국제사회는 물을 국가적인 안보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1.1.1. 전통적 안보

전통적인 '안보(Security)'의 개념은 국가적 차원에서 전쟁이나 전쟁에 준하는 위기사항을 전제하는 말로 그 영역이 전쟁, 무력도발, 국경분쟁 등과 같은 사안에 국한되어 국가안보 개념으로 통용되어왔다. 자코모 루치아니(Giacomo Lucini)는 국가안보란 국외 타 국가로부터 침략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전통적인 안보의 개념은 주로 군사적 수단에 의한 폭력행사의 방지를 목적으로 했다.

안보 이슈가 학문적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는 20세기 중반으로 이후 1980년대까지는 주로 군사·지리적 차원에서의 안보 확보방안이 논의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탈냉전시대가 도래하면서 학계에서는 주로 군사용어로 사용돼 온 '전통적 안보(Traditional Security)'의 개념을 환경과 에너지, 식량,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인류 위협요소들을 자각하게 됨과 동시에 다양한 관점에서의 위기에 주목해 '비전통적 안보(Non-traditional Security)'라는 개념을 새롭게 착안하여 단순히 군사적 충돌이 아닌 개인의 안전과 안위까지도 고려하는 포괄적인 위기 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박지현, 홍일표., 2016).

1.1.2. 안보의 패러다임 변화

비폭력적인 위협에서 인간의 생존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로 더 넓게 정의되고 있다(박한규, 2007). 유엔개발계획의 인간개발보고서(UNDP, 1994)에서는 인간안보를 '인간 개개인이 기아, 질병, 억압과 같은 고질적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가정, 직장, 사회에서의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럽게 겪게 되는 고통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인간안보의 범주를 경제, 식량, 건강, 환경, 개인, 공동체, 정치안보 등 7가지로 제시하였다. 이중 환경안보는 국가내의 환경적 위협으로, 그 중에서도 큰 위협이 물에 대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후 국제사회에서 물 부족이 점차 민족 분쟁과 정치적 긴장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수질오염의 증가는 위생상태의 악화로 이어지며, 안전한 위생시설 이용의 제약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물 안보(water security)'라는 개념이 물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물 안보란 전체적인 물 관리와 수자원의 보호 및 이용 사이의 균형에 대한 복합적인 개념으로 세계물파트너십(Global Water Partnership, GWP)과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 WWC)에 의해 소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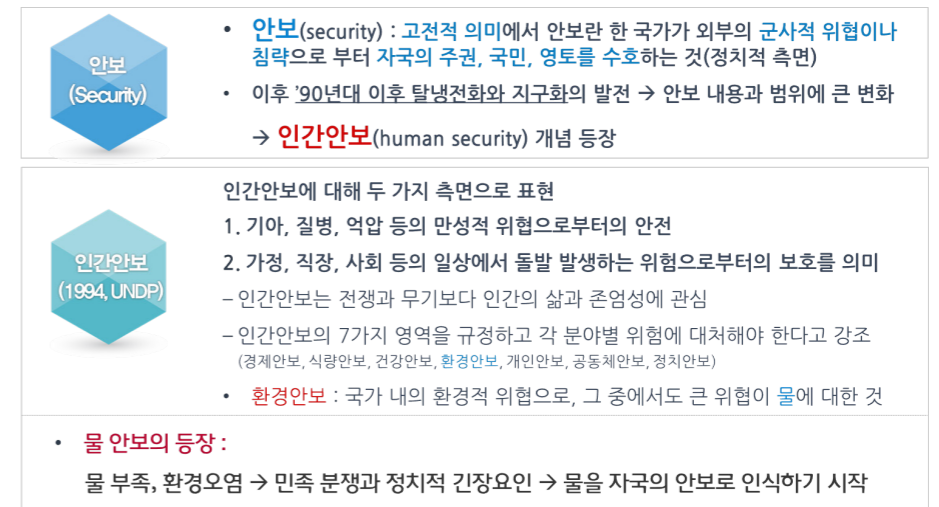


그림 1.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

1.1.3. 물 안보(Water Security)

물 안보는 제한된 수자원 배분의 복잡성을 협상하기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으며, 환경보호 및 공유 수자원 분쟁 해결로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촉진할 수 있는 매개체로, 정책입안자, 기구, 개인 등 물 관리 접근을 위한 공동언어로 물 안보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광의의 개념으로 인식되어 현재는 널리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발도상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인간에 대한 환경의 위협에 대응하고 인간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 안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사무총장 Michel Jarraud은 '수자원은 정치, 경제, 보건, 식량, 에너지, 개인, 환경 그리고 다른 문제들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안보의 정의에 잘 부합하며 이들을 연결하는 중앙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통해 개발도상국에서의 물 안보의 중요성을 더욱 더 잘 엿볼 수 있다.

물 안보 (UN Water, 2014)

☞ 생계유지, 인간의 행복,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자가 오염(water-borne pollution)과 물 관련 재앙을 예방하며, 정치적 안정과 기후적인 평화를 통해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양과 질을 갖춘 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류의 능력

UN Water(2014)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 안보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물 안보는 기본적으로 인간과 환경의 영위를 위한 좋은 물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우선적으로 홍수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의 인간의 안전, 가뭄시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구조적 및 비구조적 노력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생태계를 배려한 인간과 생태계의 물 배분 문제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다른 안보의 개념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물 안보의 특수성이다. 최근 몇 년에 걸쳐 물 위기가 글로벌 위기의 발생가능성과 영향력 측면에서 상위 5위 이내에 지속적으로 포함되었다는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기존의 관리방식으로는 물 위기에 대응하는데 한계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다보스 포럼으로 알려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2015년도 Global Risk 보고서를 살펴보면, 물 위기는 단일 위험요소로서는 향후 10년의 경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한층 더 물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특히 세계

경제 및 지구환경시스템에 대한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양 시스템 모두에 충격이 발생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WEF, F. E. M., 2013). 따라서 인간의 생존뿐만 아니라 여러 부문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수자원의 대응력 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다. 더욱이 문제는 국가 간, 분야 간에 고도로 연계된 오늘날의 사회에서, 한 나라의 수자원 위기는 그 나라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파장이 다른 지역과 다른 분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1.1.4. SDGs 통합시스템으로서의 이해

이렇듯 물 안보는 단순히 인구증가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아니다. 빈곤 국가나 개발도상국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 요컨대 물 관련 위기는 다차원적 위기인 것이다. 그것은 개인에서부터 지역, 국가, 더 나아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벨을 포함하며, 무수히 많은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섹터와의 협력, 수많은 시행착오와 막대한 자본 투자 등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하지만 SDGs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이행과제는 회원국 정부 및 전문가와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 간 합의의 산물로서 특정 목표가 다루는 주제가 다양한 수준에서 물 관련 목표(SDG6)를 포함한 여러 목표와 이행과제에 중첩된 특성을 보여 목표 및 세부이행과제들 상호간의 논리적 구조, 인과관계, 우선순위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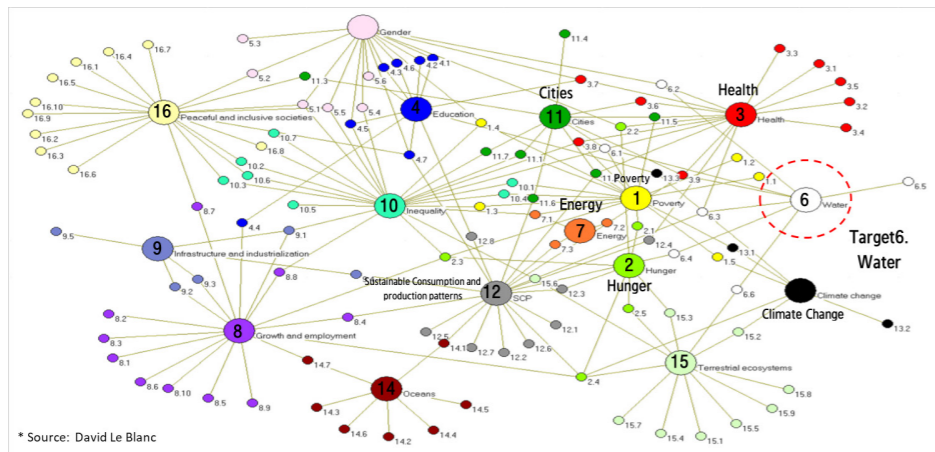


그림 2. Inter-Connected SDGs

이처럼 2030년까지 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게 얽힌 여러 영역과 부문에 걸쳐 일치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물 안보는 여러 SDGs와 각종 개발목표를 연결시키는 연계매체로 인식하고 이를 이행해야 하겠다. 어느 한 영역에서 얻어진 물의 효율성은 다른 영역에서의 제약사항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우리 사회에 더 큰 편익을 실현시키고, 분배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SDGs는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행해야 할 것이다.

1.2. 물 안보 도전과 과제

물이 인체에 7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인간의 생존에 있어 필수적이다. 또한 물은 인간에게 식량, 에너지,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며 인간의 삶의 모든 부분과 불가분 관계에 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 인구증가, 도시화로 인한 물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그 관계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범지구적인 물 위기는 각 국가의 물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지리적 특수성, 국가 발전도, 사회 및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발도상국의 재해방지 및 하천개발 등 물 관련 지원요청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개별국가나 사회가 직면한 물 위기를 단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며, 특히 물 위기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이를 개별국가 차원에서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이제는 개별국가가 아닌 국제사회가 함께 물 문제를 해결해갈 시대가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21세기 최대의 물 위기를 맞이한 현시점에서 물 위기가 인간의 활동과 생존에 미치는 영향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 위기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제1장 1.2.절1에서는 현재 기후변화와 물 위기가 인간의 경제활동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들을 살펴보고, 제2장 1.2.2절에서는 이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함께 그로 인해 '물 인권'이 확보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2.1 기후변화와 물 위기, 경제발전

물은 식량, 에너지, 보건 등 우리사회에 전반에 걸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인간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그 필수적인 요소는 최근 전 세계는 기후변화로 인해 수온의 변화, 가뭄 및 홍수 등 심각한 수문사상 변화로 인해 위기를 맞이하였다(Bates, 2009). 특히 극한 수문사상의 이변은 커다란 수문학적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그 변화로 인한 물 가용성, 안정성, 접근성 및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물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물 뿐만 아니라 식량 및 에너지 등 물 집약적 자원들의 생산도 함께 제약을 받게 되었다. 곧 물은 식량 및 에너지 생산과 같은 인간의 경제적 활동에 필요충분적인 요소로,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지역의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4년 OECD에서 발간한 CIRCLE(Costs of Inaction and Resource scarcity: Consequences for Long-term Economic growth) 보고서에 의하면, 2060년에는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7%에서 2.5%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세계은행은 기후변화에 의해 악화된 물 부족은 2050년에 북부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일부지역에 국내총생산(GDP)의 6%의 감소를 유발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OECD,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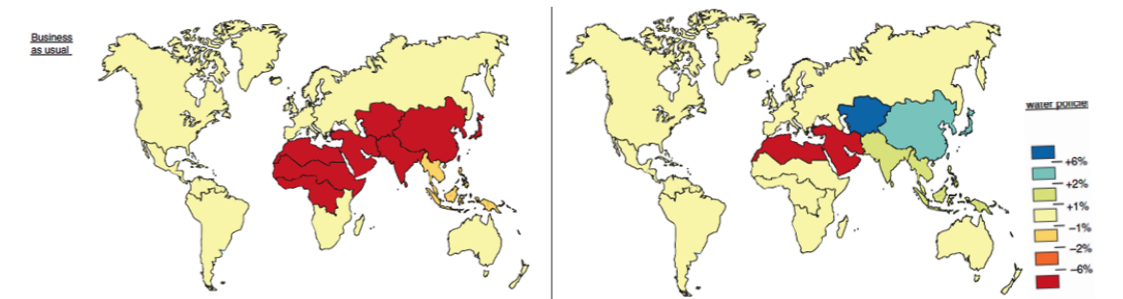


그림 3. 2050년 물 부족으로 인한 GDP 예측(자료:세계은행)

그 뿐만 아니라, 본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과 이로 인한 경제적 위기는 인구증가,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물 수요의 증가에 의해 앞으로 더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OECD, 2014). 2015년 발간된 UN세계물개발보고서에서는 인구가 증가 및 도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현재 식량생산의 60%, 농업의존도가 큰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100%를 추가적으로 생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에 필수자연자원인 물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Connor, 2015). 또한 에너지 생산 측면에서는 앞으로 신형성장국과 개발도상국의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산업용수 수요가 2050년에는 2000년 대비 4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Connor, 2015).

즉,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물 수요라는 상충된 상황에서 수자원의 '안정적 공급 및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물 위기는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개발 목표 이행을 방해한다는 의미이다(Connor, 2015).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사회는 기존에 단일적으로 수행되어왔던 물 위기 대처방식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깨닫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물 공급 및 관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물 안보'를 새롭게 떠오르는 현시대의 과제로 정의하고 있다(그림 4).



그림 4. 물 안보와 지속가능발전과의 관계(Sadoff et al., 2015)

지난 2016년 스웨덴에서 개최된 세계물주간에서 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Angel Gurría는 '전략적으로 물 안보에 투자하는 것은 매년 전 세계 경제성장에 최소 5천억 달러를 기여하는 것'이라고 OECD/GWP 보고서를 인용하여 물 안보 증진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렇듯 오늘날 물 안보는 물 위기 해결하기 위한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경제성장과 더불어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핵심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국제사회의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 및 통합적인 이행체계구축이 전 세계 물 안보 개선 및 증진을 위해 필수적일 것이다.

1.2.2. 지속가능한 물과 위생, 물 인권

지난 1990년대부터 약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안전한 식수원에 대한 접근성이 없는 인구의 수가 급격하게 줄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현재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안전한 식수원에 대한 접근성을 갖고 있다(그림 5).

Improved water(WHO & UNESCO, 2017)

☞ An improved drinking water source is one that, by the nature of its construction, adequately protects the source from outside contamination, particularly faecal ma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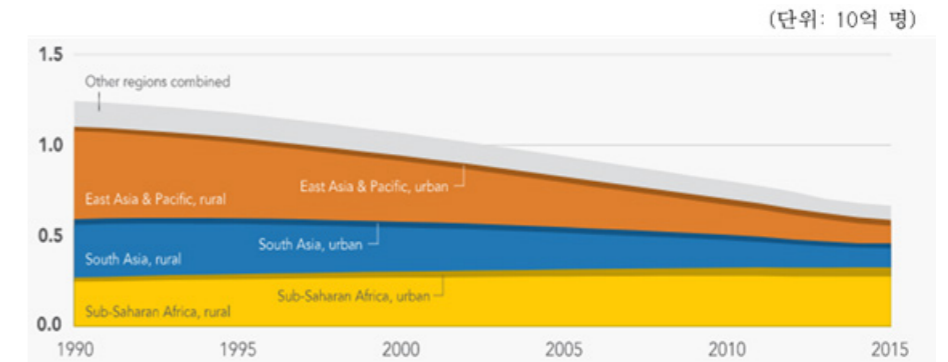


그림 5. 안전한 물에 대한 접근성이 없는 인구의 수 (WDI)

하지만 2015년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여전히 6억3천300만 명에 이르는 인구가 깨끗하지 않은 식수원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대한 접근성을 갖고 있는 인구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 특히 이 지역의 농어촌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안전한 식수원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위치한 콩고민주공화국의 경우 국민평균 안전한 식수원에 대한 접근성을 갖고 있는 인구비율이 75%에 달하지만, 농어촌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25%이하만이 안전한 식수원에 대한 접근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HO, 2015). 또한 사회·경제적 인프라가 부족하고 공공부문 거버넌스가 취약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안전한 물에 대한 접근성을 갖는 인구의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Molden,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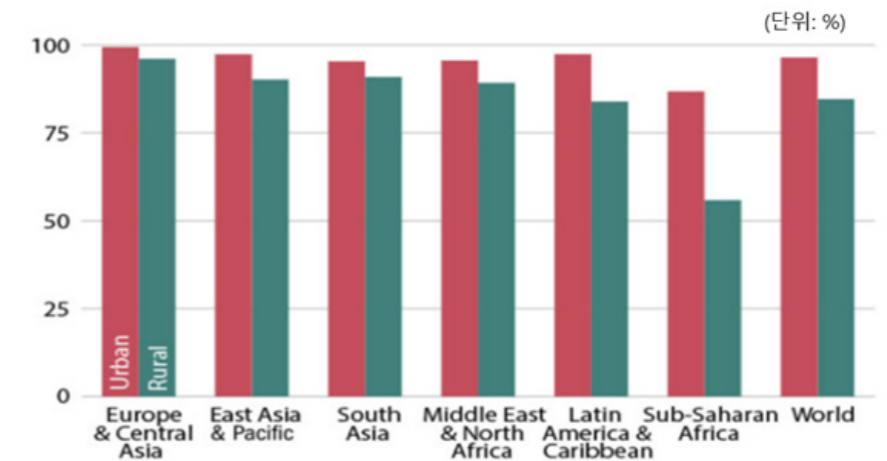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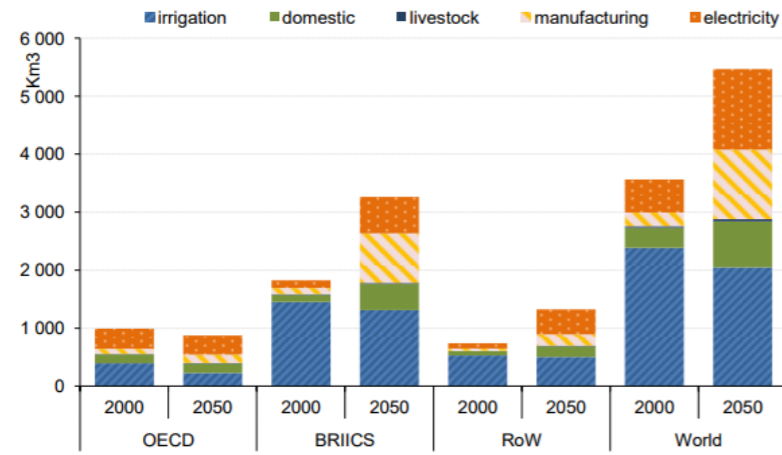


그림 6. 2015년 안전한 식수원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 비율(WDI)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약 2억4천만 명이 여전히 안전한 식수원에 대한 접근성을 갖지 못할 것이며, 그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OECD, 2012). 또한 국제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물에 대한 수요가 현재보다 약 55%정도 증가할 것이며(그림 7), 이는 안전한 식수원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취약집단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OECD, 2012).



Note :BRIICS = Brazil, Russia, India, Indonesia, China and South Africa; RoW = rest of the world

그림 7. 국제 물 수요 : 비교 시나리오(OECD)

이러한 점에서 새천년개발목표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로의 이행은 전 세계 개발도상국과 취약계층의 '안전한 식수 대한 접근성'에 대한 커다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새천년개발목표 안전한 물과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없는 인구를 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획일적이고 단순한 목표를 설정하여 "접근성(거리, 시간, 재정)"에 대한 경제, 사회, 지형, 기후와 같은 다양한 사항들이 고려되지 못했다(이지은 외, 2015). 그뿐만 아니라 새천년 개발목표는 목표달성에 있어 '평균수치'에 치중하여 "대륙 간, 국가 간, 국가 내 지역 및 계층 간"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Back, 2013).

이러한 새천년개발목표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2016년 유엔회원국들은 보편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식수와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결의하고, 2002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일반총평 15 (General Comment No. 15)에서 논의된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sufficient) 안전하며(safe) 수용가능하고(acceptable) 물리적으로 접근가능하며(physically accessible) 지불 가능한(affordable) 물에 대한 권리"인 물 인권에 대해 재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개발목표는 인권을 기반으로(Human rights-based approach)한 접근방식을 개발계획, 정책, 개발과정에 통합시켜 안전한 식수와 위생시설에 대한 모든 사람의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접근성 향상을 지향하고 있다(UN-HR, 2010).

물에 대한 인권(Right to Water)

- ☞ 모든 사람이 충분하고, 안전하며, 수용가능하며, 물리적으로 접근가능하고 여유 있도록 해주는 물의 국내 이용
- * 유엔의 물 인권 관련 지침서 NO. 15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언약(ICESCR)

지속가능개발목표를 통해 1970년대부터 오랜 시간 논의 되었던 물 인권은 식량권, 주거권,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권에 이르기까지 다른 인간의 권리를 실현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로써 국제사회에서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국제사회는 모든 사람에 대한 안전한 식수에 대한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접근성을 확보하여, 물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과 위생에서 국가 및 지역 간 격차, 소득별 격차,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제적인 협력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제 2장 국제사회 물 패러다임의 변화

오늘날 물 위기가 도래하면서 물은 사회·경제발전과 지속가능개발에 있어 논의의 중심이 되었다. 국제적으로 물에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물은 다양하게 논의되었으며, 현재 물 관련 지속가능개발목표가 탄생하기까지 역사적인 논의들이 존재 하였다. 그러므로 최초로 환경과 관련된 국제회의인 유엔인간환경회의부터 현재 2030 개발의제가 논의되기까지의 물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2장에서는 지난 40년간의 국제 물 거버넌스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1. 스톡홀름에서 Rio+20까지

1970년대는 미국 상원의원인 게이로드 넬슨에 의해 '지구의 날'이 1970년에 선포된 것을 필두로, 로마클럽이 1972년대 발간한 『성장의 한계』까지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점차 고조되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1972년에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한 국제회의인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가 스톡홀름에서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서는 수자원개발과 환경보호라는 측면에서 권고사항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수자원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김창수, 2012). 그 후 5년 뒤인 1977년 아르헨티나 마르델플라타에서 개최된 유엔 물 회의는 처음으로 물을 중심 의제로 개최된 회의이며, 본 회의에서 '인간의 권리'로써의 '물'에 대해 최초로 선포되었다. 또한 마르델플라타 회의에서는 그 당시 새롭게 떠오르는 수자원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또한 마르델플라타 행동강령 공표하여 수자원 평가, 물 사용 및 관리, 물 정책 등 다양한 안전들에 대한 제언과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1980년대에는 마르델플라타 행동강령의 일부로써 1981년부터 1990년까지 10년을 '국제 식수 및 위생 10개년 계획'의 해로 정하여 식수 공급과 위생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이윤 외, 2013). 마르델플라타 유엔 물 회의 이후, 물 문제는 1922년에 개최된 두 번의 국제회의를 통해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이를 통해 1992년은 물에 대한 논의에 있어 역사적인 날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1992년 1월 더블린에서 개최된 국제물환경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Water and Environment)에서는 물의 희소성, 여성의 역할, 물의 경제적 가치, 수자원의 개발 관리 참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더블린 선언(Dublin Statement on Waters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 채택되었다(이윤 외, 2013). 1972년 개최된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의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같은 해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최대 규모의 국제환경회의인 유엔 환경개발회의가 개최되었다. 본 회의를 통해 리우선언과 의제인 아젠다 21이 채택되었으며, 담수 수질의 보호 및 공급 등 담수(Freshwater)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조을생 외, 2014). 리우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차후 1994년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음용수 공급과 환경 위생에 관한 각료급 회의'에서 행동계획이 수립되었고, 이후 각종 국제회의에서 언급되면서 국제적으로 물 문제에 대한 정치적인 논의를 확고히 하였다.

리우회의가 개최되던 해 유엔 총회에서는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선포하였고, 1993년 제 1회 '세계 물의 날' 행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양한 주제와 주관기관에 의해 행사가 개최되어 국제적으로 물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단일적으로 논의되었던 물 문제가 물 관련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세계물포럼을 통해 통합적인 차원에서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이윤 외, 2013). 세계물포럼은 식수의 양적 부족 및 오염에 대한 국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물 관련 각국의 정부, 국제기구 및 국제비정부기구(INGO) 등으로 구성된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가 1996년에 출범을 통해 시작되었다(김창수, 2012).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는 1997년부터 3년마다 세계물포럼을 개최하여, 전 세계가 직면한 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유하고 물 문제의 공동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제적인 논의의 장을 형성하였다(표 1).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을 개최하여 국내에서의 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창출하는 큰 계기를 마련하였다.

표 1. 역대 세계물포럼 개최지 및 주제

회차	연도	개최지	주제 및 성과
1차	1997	모로코 마라케시	Vision for Water, Life and the Environment '마라케시 선언' 채택
2차	2000	네덜란드 헤이그	From Vision to Action '세계 물 비전' 발표
3차	2003	일본 교토/시가	A Forum with a Difference 각료선언문 발표
4차	2006	멕시코 멕시코시티	Local Actions for a Global Challenge 장관선언문 발표
5차	2009	터키 이스탄불	Bridging Divides for Water 국가수반호소문/장관선언문 발표
6차	2012	프랑스 마르세유	Time for Solutions
7차	2015	대한민국 대구·경주	Water for Our Future
8차	2018	브라질 브라질리아	Sharing water

* 자료: 한국물포럼, 제 7차 세계물포럼 지역별 과정

2002년 브라질 리우회의 10주년을 기념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가 개최되었고, 이를 통해 요하네스버그 선언과 요하네스버그 실행 계획(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ion)을 수립되었다. 본 회의에서는 브라질 리우회의 이후 지난 10년간 국제사회의 노력과 도전과제들에 대해 재점검하였으며, 2000년에 수립된 새천년개발목표의 물 관련 주요 세부목표인 '안전한 식수와 위생적 환경에 대한 접근 불가 인구의 반감'을 명시하여 국제사회에 수립된 목표이행을 촉구하였다. 또한 요하네스버그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의 결과로 UN-Water가 2003년 출범하여, 위생을 포함한 모든 담수(Freshwater) 관련 문제에 기여하고 있는 UN기관들 협력과 조정을 담당하는 협의체 역할을 하고 있다(윤용남, 2016).

2012년 브라질 환경개발회의(UNCED)가 개최된 후 20년 만에 다시 한 번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CSD)가 열렸다.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는 리우회의라고 소위 일컫는 환경개발회의 개최 후 20년 뒤인 2012년에 다시 한 번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어 Rio+20 이라고도 명명된다. 본 회의에서는 과거에 결의된 행동계획을 재확인하고, 빈곤퇴치, 녹색경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체제 및 분야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Rio+20 회의에서는 물 관련 새천년개발목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물이 지속가능한 인류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자원임을 재확인하여 물 문제를 인류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김창수, 2012).

이처럼 현재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물 관련 지속가능개발목표 6번은 1970년대부터 끊임없이 변화하는 패러다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전히 전 지구적으로 물 문제는 최우선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 정부, 비정부 기구 등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물 관련 도전과 과제를 명확히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이를 조속히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 1972년 :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한 국제회의(but 수자원 관련 언급 미비)
- 1977년 : 아르헨티나 마르델플라타 UN 물 회의
물을 중심으로 개최된 **최초 국제 회의**, 물 인권 언급
- 1992년 1월: 더블린 국제물환경회의
물의 희소성, 여성의 역할, 물의 경제적 가치, 수자원의 개발관리 참여 논의 → **물의 중요성 확대**
- 1992년 6월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UN 환경개발회의
리우선언과 의제 아젠다 21 채택 → 담수 수질의 보호 및 공급 등 담수에 관한 내용
- 1993년 :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선포
현재까지 다양한 주제와 주관기간에 의해 국제적인 '물 행사'로 인식됨
- 1996년 :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 출범 (**Multi-water → One Water** 계기)
1997년부터 3년마다 세계물포럼 개최 → **범국가적인 물에 대한 통합적 논의** 시작
-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물 관련 MDGs 이행 촉구: '안전한 식수와 위생적 환경에 대한 접근 불가 인구의 반감'
- 2012년 : 브라질 Rio+20 UN 지속가능발전회의
'The Future We Want' 결의안 발표
- 물이 **지속가능한 인류발전 중요 자원**임을 재확인(빈곤퇴치, 녹색경제) → **지속가능발전 논의 발의**
- 물 문제를 인류 공동대처가 필요한 **'수평적 문제'**로 간주
- **안전한 마실 물 공급, 기후변화** 등을 최우선 분야로 명시

그림 8. 물 관련 국제적 노력

2.2. MDGs시대에서 SDGs시대로의 이행

오늘날 우리는 새천년개발목표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로 이행하는 대대적인 변화의 시기를 거쳐 2030개발의제 시대를 맞이하였다. 절대빈곤퇴치와 인류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2000년 UN정상회의의 'UN 새천년 정상선언'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세계은행 및 국제통화기금(IMF)의 국제발전목표(IDGs)를 바탕으로 2001년 UN총회에서 최종 채택된 새천년개발목표는 2015년 국제사회에 수많은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과제를 남기고 막을 내렸다(손혁상, 2007; 김세원, 2015).

2.2.1. 새천년개발목표(MDGs)

Post-2015로 일컫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가 채택되기 이전까지 새천년개발목표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15년 동안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개발의 이정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새천년개발목표에는 빈곤, 교육, 양성평등, 보건, 질병, 환경, 개발협력 등 분야마다 광범위하고 폭넓은 내용을 다룬 8개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김세원, 2015). 그 뿐만 아니라 새천년개발목표는 일정기간 내에 달성해야 할 21개의 세부목표와 성과측정을 위한 60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임원혁, 2012).

특히 새천년개발목표는 국제사회에 사회개발 및 빈곤퇴치 중심의 목표달성을 위한 국제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인간개발의 중요성과 문제의식을 제고하여 범지구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오정화 외, 2014; 김세원, 2015). 또한 새천년개발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결과중심의 글로벌 목표"로, 개발협력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여 개발도상국의 개발계획과 국제개발협력 수행기관 사업전략에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임소진, 2012; 임원혁, 2012). 새천년개발목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극심한 빈곤 상태의 감소, 질병퇴치, 보편적 초등교육의 실현,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 등의 세부목표에 있어서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새천년개발목표의 의의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는 수립과 이행과정에서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으며 국제사회에 수많은 과제를 남겼다. 앞서 언급했듯이 새천년개발목표는 빈곤, 위생, 교육과 관련한 세부목표에 관해서는 목표대비 성과를 거두었으나 그 외에 목표들에 있어서는 계획했던 것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김세원, 2015). 또한 새천년개발목표가 얼마나 목표들의 성과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는지 논란의 여지가 분분했으며, 빈곤감소를 통한 사회발전과 인간개발측면만 강조한 나머지 경제성장과 관련된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지 못했다(K-water, 2016). 그 뿐만 아니라 새천년개발목표는 이행과정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불평등, 인권, 기후변화 등 사회·경제·환경 관련 범지구차원의 문제들을 포함시키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환경오염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임소진, 2012). 또한 새천년개발목표 수립에 있어 소수의 선진 공여국들이 참여하여 개발도상국의 필요, 목표 이행을 위한 국가별 역량차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같은 취약국가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점은 새천년개발목표의 분명한 한계로 자리 잡고 있다(임소진, 2012).

2.2.2.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물

새천년개발목표의 한계는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와 기초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를 반으로 줄인다(Halve, by 2015,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without sustainable access to safe drinking water and basic sanitation)'라는 물과 위생관련 세부목표 7번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에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앞서 제1장 1.2.2절에서 언급했듯이, 새천년개발목표는 안전한 식수원에 대한 접근성을 갖는 인구가 증가했다는 양적측면의 성과를 갖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대륙 간, 국가 간, 국가 내 지역 간 계층 간,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김진우 외, 2013). 예를 들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안전한 식수원에 대한 인구수가 증가하였지만, 2015년 기준 1억 5천 9백만 명의 인구가 지표수에서 직접 식수를 얻고 있으며, 이들 중에 58%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한다고 보고했다(WHO & UNICEF, 2017). 새천년개발목표를 통해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가능 인구수가 증가하였지만, 이 목표에는 안전한 식수의 수질, 식수시설까지 거리, 이용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시점인 2015년 기준 안전한 식수를 얻기 위해 30분 이상을 이동하여 식수에 대한 접근율이 떨어지거나, 안전하지 않은 우물과 샘을 이용 또는 지표수에서 직접 식수를 얻는 것을 포함하여 기본적인 식수 공급이 부족한 인구는 약 8억 4천 4백만 명에 이른다(WHO & UNICEF, 2017). 그 뿐만 아니라 새천년개발목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한 식수원에 대한 접근성 고려가 부족하여, Wateraid에서 발간된 보고서에는 2015년 저소득 국가의 경우 여전히 식수를 얻는 일은 대부분 사회적 취약계층인 여성과 여아의 몫이며, 식수시설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하기 때문에 위험에 쉽게 노출되며 교육에 대한 기회도 박탈당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Wateraid et al., 2015). 이처럼 물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는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 가능한 인구의 수는 증가시켰지만,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식수에 대한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접근성은 보장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2.2.3. Post-2015 개발의제 시대의 개막

국제사회는 목표수립과 이행에 있어 수많은 한계를 보여준 새천년개발목표를 보완하여 다가올 앞으로의 15년을 준비하기 위해 2011년부터 UN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후 UN 사무총장의 주도하에 2011년 추진전략의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2012년 새천년개발목표 향후 논의방향을 위한 보고서인 '우리가 원하는 모두를 위한 미래 실현하기(Realiz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가 발간되어 Post-2015 개발의제를 위한 프레임워크가 제시되었다(K-water, 2013; 임소진, 2012). 본 보고서가 발간된 201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지속가능발전회의(Rio+20)에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 선언문을 채택해 경제위기, 불평등, 기후변화 등 범지구적인 문제를 모든 국가가 함께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를 계기로 회의 당시 Post-2015개발의제 내용으

로 제시된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수립할 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2015년 뉴욕 UN 개발정상회의에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된 지속가능개발목표가 채택되었다. 전 세계 UN회원국들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 동안 전 세계의 빈곤과 불평등,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실천을 합의하였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국제사회 개발협력에 지침서 역할을 한 새천년개발목표 시대는 막을 내렸고, 지금의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현재 지속가능개발목표는 지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

2.3. 2030 개발의제의 시대

2015년 새천년개발목표 달성기한이 끝나고 인구증가, 사회적 불평등, 기후변화 등이 점차 심각해지고 복잡해지는 범지구적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수립된 지속가능개발목표는 새천년개발목표의 수많은 한계가 보완되어 탄생하게 되었다. 지속가능개발목표는 사회발전과 인간개발에 치중된 새천년개발목표의 한계를 넘어, 사회발전·경제성장·환경보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소외계층을 포함한 포용적인 성장을 강조하였다(그림 9).

그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개발목표는 기후변화와 같은 범지구적인 문제를 위한 목표 이행을 개발도상국에 한정하지 않고 선진국도 이행 대상으로 포함시켜 보편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목표이행에 있어 정부위주의 참여방식을 고수하여 획일성과 일방성을 치우친 새천년개발목표와 달리, 지속가능개발목표는 목표이행에 있어 정부,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토록 하여 포용성을 강화하였다. 지속가능개발목표는 17개의 169개의 세부목표를 설정하여 상호 연계된 개발목표에 대한 통합적으로 접근토록 하였다(그림 10).

	MDGs(2002-2015)	SDGs(2016-2030)
목적	지구상의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고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을 개선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 오늘날의 필요도 충족시키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
구성	8개 목표 + 17개 세부목표	17개 목표 + 169개 세부목표
대상	개발도상국이 달성해야 하는 문제	[보편성] 개도국 중심이나 선진국 공동의 문제
분야	빈곤, 의료, 교육 등 사회발전 분야 중심	[변역성] 경제성장, 기후변화 등 경제·사회·환경 통합 고려
자원	공적개발원조(ODA) 중심	국내공공재원, ODA, 민간 자원 등
참여	정부 중심	[포용성] 정부,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 참여
보고	자발적으로 유엔에 보고	유엔이 주도하여 보고를 권고함

그림 9.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비교



그림 10. MDGs와 SDGs(인용: 2030 SD의제에 대한 국가통계 대응방안 수립)

지속가능개발목표는 성과가 불분명한 새천년개발목표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목표달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설정하였고(현재 232개 지표) 고위급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 HLPF)에서 의무적으로 목표달성을 감시하도록 하여 모니터링 및 평가를 개선하여 국제적으로 목표이행을 강화하였다(K-water, 2016).

2.3.1.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물

앞서 언급된 새천년개발목표의 물 관련 목표의 한계들은 지속가능개발목표의 물 관련 세부목표와 각각의 측정지표를 통해 보완되었다. 지속가능개발목표의 물 관련 목표6번 '모든 사람의 물과 위생설비 이용 및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보장(Ensure access to water and sanitation for all)'은 새천년개발목표에서 미흡했던 안전한 식수에 대한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접근을 강조했다(표 2).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속가능개발목표의 물 관련 세부목표 6.1번에서는 식수에 대한 접근성을 '모든'이들에게 보장되어야함(보편성)을 언급함으로써 새천년개발목표에서 '안전한 식수에 접근성이 없는 인구를 반으로 줄인다'라는 정량적인 목표에서 벗어나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을 갖는 것을 '인권'적인 차원에서 보았다고 할 수 있다(이지은 외, 2015). 지속가능개발목표의 물 관련 세부목표 6.1번은 '여성, 취약계층, 시골지역, 특수 집단의 접근성을 강조'하여, 새천년개발목표에서 고려되지 못한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 대륙 간, 국가 간, 지역 간, 사회적 계층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려 하였다(이지은 외, 2015). 그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개발목표의 물 관련 목표(6.3-6.8번)에서 이전에 고려되지 않았던 수자원 관리, 폐수 및 수질관리까지 고려하여 물에 대해 사회, 경제, 환경을 고려한 통합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개발목표 6.b번은 식수위생분야에 있어 지역사회참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의사결정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자원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지향하고 있다. 지속가능개발목표 6번은 각각의 세부목표를 측정하는 지표를 추가하여 새천년개발목표의 한계를 극복하

고 있다(K-water, 2016). 현재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전 세계 국가들이 물 관련 지속가능개발목표 6번을 이행함으로써 인간의 삶에 필수자원인 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표 2. 목표 6의 세부목표와 제안 지표

목표 6(Goal 6)	모든 사람들의 식수와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관리 능력 확보
세부목표(Target)	
6.1	2030년까지, 안전한 식수에 대한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접근성 보장
지표	안전 식수를 이용할 수 있는 인구율(%)
6.2	2030년까지, 개선된 위생시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성 보장(취약계층, 여성 및 여성청소년에 집중 관심)
지표1	개선된 위생서비스에 대한 접근비율
지표2	비누로 적절하게 손 씻는 비율
6.3	2030년까지 오염물질 감소, 유해폐기물 제거, 위해 화학물질 방출 최소화, 폐수비용 50% 감소, 재활용 및 재사용률 x% 까지 증대함으로써 수질향상
지표1	안전하게 처리된 폐수 비율(%)
지표2	인간 및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수역의 비율(%)
6.4	2030년 까지, 물 사용의 효율성 증대, 지속가능한 물 사용 보장
지표1	물 스트레스
지표2	물 생산성
6.5	2030년까지, 국제공유하천협력을 포함 모든 수준에서 통합수자원관리방안 실행
지표1	통합수자원관리 이행상황
지표2	국가 간 공유수역 관리를 위한 운영방안 실행정도
6.6	2020년까지, 산, 숲, 습지, 강, 대수층과 호수를 포함한 물 관련 생태계 보호 및 복원
지표	시간 경과에 따른 습지 규모 변화율(%)
6.a	2030년까지, 물 집수, 담수화, 물 효율성, 폐수처리, 재활용 및 재사용 기술 등 물과 위생관련 활동 및 사업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및 역량강화 증대
지표	정부지출계획 중 물과 위생시설에 관련된 ODA의 비율
6.b	물과 위생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
지표	물과 위생시설 관리에 지역 사회의 참여를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한 지방 행정 단위의 비율

* 자료: KOICA, K-water

제 3장 물 분야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이행

최근 들어 기후변화 등을 비롯한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변화는 수자원(물) 분야에서도 가장 뜨거운 논의의 주제이며, 해결이 시급한 당면과제들의 새로운 출현과 심화로 인해 효율적인 수자원 이용 및 확보,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 분야에서 인류의 지속적 번영 추구를 위한 안정적 물 확보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극한 홍수와 가뭄, 지진 해일과 같은 물 관련 재해에 대한 대응방안의 모색 등에 있어, 다소 포괄적이고 그 개념과 범위가 절대적이지 않은 “물 안보(water security)” 개념이 대두되었으며, 이미 다수의 국가에서 수자원 현안 해결을 위한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국토해양부, 2011). 특히 개발도상국 불안정한 식수 공급과 위생, 물 관련 재해, 생태계 파괴, 비효율적인 치수 관리, 물 분쟁 등은 물 안보 확보를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이며, 이는 곧 개발도상국의 물 분야의 지속가능개발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가장 큰 이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 기업 및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이해당사자들에게 물 안보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물 안보 증진을 위한 관련 전략과 연구·교육을 통한 개도국으로의 이행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미 국제사회는 각 지역 및 국가의 정책적 아젠다로 물 안보를 상정하여 양질의 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 강화를 확산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국내에서도 분야별 물 안보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 및 수자원관리에 대한 물 안보 확보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수립을 구현하고 있으며(국토해양부, 2011), 국제적인 추세 및 지역 협력 동향을 파악하여 위기관리, 거버넌스 구축 등 전 지구적 대응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및 정책적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의 물 안보 현황을 진단하고 제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3.1. UNESCO IHP 8단계 전략과 사업

UN은 여러 물 관련 산하기구를 두고 홍수, 대풍, 수문변화, 물 분쟁 등 물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윤용남, 2016). 이중 UN의 물 관련 산하기구로 유네스코(United Nation Educational, Scientific, Organization, UNESCO)가 대표적이며, 1964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회의에서 국제수문개발 10개년 계획(International Hydrological Decade, IHD)을 수립하면서 수문학분야에 기술개발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10개년의 계획이 종료된 이후부터 유네스코는 소위 ‘UNESCO Water Family’라 불리는 거대한 물 관련 네트워크를 개발하여, 현재는 전 세계에 유네스코 물 관련 기관 44개(Water Chair), 물 관련 카테고리 2 기관 35개, 유네스코 수문학프로그램 국가위원회, 세계 물 평가프로그램(World Water Assessment Programme, WWAP) 등 물 관련 국제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국제수문학프로그램(International Hydrological Programme, IHP)은 “범지구적인 수자원 평가, 수자원 분야의 연구 및 교육훈련”을 위한 유네스코의 3대 프로그램¹ 중 하나로, 국제수문개발 10개년 계획(International Hydrological Decade, IHD) 종료 후 후속 중장기계획으로 수립되었다.

1 유네스코 3대 사업: 세계 물 평가 프로그램(WWAP), UNESCO-IHE, UNESCO-IHP

3.1.1. 국제수문학 프로그램(UNESCO IHP)

국제수문개발 10개년 계획(International Hydrological Decade, IHD)의 후속으로 시작된 유네스코 IHP는 물 순환 및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연구 및 개발도상국 인재육성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유네스코 국제수문학프로그램은 전 세계 190여 개국의 회원국과 36개 집행 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은 유네스코 정부간이사회(Intergovernmental Council, IC)에서 결정한다(K-water, 2017). 유네스코 국제수문학프로그램은 6년마다 새로운 프로그램의 단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현재 물 안보(Water Security)를 주제로 하는 8번째 단계(8th Phase)인 ‘IHP-VIII Water Security – Responses to Local, Regional, and Global Challenge’ 2014년부터 2021년에 걸쳐 추진 중이다.

3.1.2 UNESCO IHP 8단계 전략과 사업

유네스코 국제수문학프로그램은 새로운 도전과제가 Rio+20에서 수립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합의된 의제들을 이행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물 안보 증진을 목표로 8단계(IHP-VIII) 프로그램을 수립하였다. 유네스코 국제수문학프로그램의 8단계(IHP-VIII) 프로그램은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파리협정, 샌다이 프레임 워크 등 국제사회 간 합의된 의제를 이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Donoso et al., 2012).

유네스코 국제수문학프로그램은 지난 6단계와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친환경시스템, 교육, 수자원관리, 역량강화를 고려한 광범위한 과학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것에 주목했다(표 3). 이에 반해, 유네스코 국제수문학프로그램의 8단계는 수자원 관리에 대한 토착주민을 포함한 토지이용과 인구, 인간행동의 역할, 문화적 신념 및 태도를 이해하고 대표하는 것을 새로운 도전과제로 삼고 있다(Donoso et al., 2012).

표 3. IHP 단계별 사업(1975-2021)

IHP 단계	사업주제
① IHP 1단계(1975-1980)	IHD 연구 유지
② IHP 2단계(1981-1983)	Hydrology and the Scientific Bases for Rational Water Resources Management
③ IHP 3단계(1984-1989)	Hydrology and the Scientific Bases for Rational Water Resources Management
④ IHP 4단계(1984-1989)	Hydrology and Water Resources Sustainable Development in a Changing Environment
⑤ IHP 5단계(1990-1995)	Hydrology and Water Resources Development in a Vulnerable Environment
⑥ IHP 6단계(1996-2001)	Water Interactions: Systems at Risk and Social Challenges
⑦ IHP 7단계(2002-2007)	Water Dependencies: Systems under Stress and Societal Responses
⑧ IHP 8단계(2014-2021)	Water Security: Responses to Local, Regional and Global Challenges

* 자료: UNESCO IHP

이러한 맥락에서 유네스코 국제수문학프로그램 8단계는 기후변화, 인구증가, 국제화에 따른 기술 및 정보의 격차 등 복합적으로 변화하는 전 지구적 환경을 고려하여 물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물 안보’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이전의 단계들과 달리 ‘통합적 물관리, 공동유역, 국제적 변화, 물 거버넌스, 인간범주(Human Dimension)’를 포함한 범분야 이슈(cross-cutting issue)를 고려했으며, 이러한 이슈들은 6개 주제의 세부사업주제에 반영되어 있다(표 4).

‘물 안보’를 주제로 다양한 범분야 이슈를 고려한 유네스코 국제수문학프로그램 8단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적응접근법과 모든 단계에서 국제수문학프로그램 국가위원회, 물 관련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 등 국제수문학프로그램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표 4. UNESCO-IHP 8단계 사업 주제

사업 주제	세부 사업 주제
I. 물 관련 재해 및 수문학적 변화	I-1 세계적인 변화의 적응에 관한 위험관리
	I-2 인간과 자연의 결합된 프로세스 이해
	I-3 지역 및 세계적인 지구 관측시스템을 통한 혜택
	I-4 불확실성 해결 및 의사소통 향상
	I-5 극한적인 수문 사상에 대한 수문학적, 과학적 근거 개선
II. 환경변화로 인한 지하수의 중요성	II-1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 강화
	II-2 대수층의 함양 관리를 위한 전략 수립
	II-3 대수층에서 기후변화 영향의 적응
	II-4 지하수 수질 보호의 장려
	II-5 국경지역 대수층의 관리 증대
III. 물 부족과 수질 평가	III-1 수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할당, 관리, 계획, 관리 방식을 개선
	III-2 현재 물 부족에 대처하고 바람직한 수자원 관리 계획전략 수립
	III-3 수자원 기관들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도구 개발 촉진
	III-4 IWRM 프레임 워크 내에서 수질 및 오염 문제를 해결 - 법, 정책, 제도, 인간의 능력을 향상
	III-5 상수도의 안전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 개발 및 수자원 오염 관리
IV. 미래의 물과 인간 활동	IV-1 혁신적인 전략 및 기술
	IV-2 통합 관리 방법에 대한 시스템 변경
	IV-3 도시 물 관리 통합을 위한 기관과 리더십
	IV-4 개발도상국의 신생 도시화의 기회
	IV-5 농촌 정착의 통합 개발
V. 지속 가능한 생태수문과 공학의 조화	V-1 유역의 수문학적 특성 - 잠재적인 위협을 식별 및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기회
	V-2 생태계 가능성 향상을 위한 유역 생태 구조 형성 : 생물의 생산성과 다양성
	V-3 생태 수문학계의 해결책과 물, 생태계 회복과 생태계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생태공학
	V-4 도시 생태수문학 - 잠재적으로 삶의 건강과 질적 향상을 위한 도시경관에서의 우수의 정확 및 유지관리
	V-5 해안 연결 및 생태계 기능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한 생태수문학의 규정
VI. 물 안보를 위한 교육	VI-1 물 부분에서 제3차 물 교육 및 전문 능력 향상
	VI-2 물 교육자의 직업 교육 및 훈련 접근
	VI-3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물 교육
	VI-4 비공식 물 교육을 통한 물 문제의 인식 증진
	VI-5 국가 간 물 협력을 위한 교육

* 자료: 국제수문학프로그램(IHP) 제8단계(2~4차년도) 연구사업 소개

3.2. UNESCO i-WSSM

i-WSSM 센터는 국가 간 조약에 근거한 국제기구로서 유네스코와 독립된 기구로서 독립된 법인으로 국토교통부 예산을 활용하여 기본 운영자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K-water에서는 센터 운영을 위한 관련 인력파견 및 현물(사무소)을 지원하고 있다.

3.2.1. UNESCO i-WSSM의 물 안보 사업

센터는 아래와 같이 연구, 교육 및 정보 플랫폼이라는 기능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물 안보 전략을 지원하고 있다.

- 연구 분야에서는 '지속가능개발목표 실현을 위한 통합형 문제해결 연구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넥서스 기반기술을 통한 개도국의 물 안보 개선을 하고자 한다.
- 교육 분야에서는 '사례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개도국의 물 문제 해결 및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수원국의 수요를 고려함과 동시에 센터 고유의 특화된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맞춤형 과정(Tailor-made) 및 사례 및 현장중심의 교육과정과 문제해결형 역량개발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 마지막으로 센터를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물 관련 연구 및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전문가가 모이는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물 안보 정보플랫폼 구축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통해 물 관련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3.2.2. UNESCO i-WSSM의 물 안보 추진전략과 과제

물 관련 분야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6) 시행을 위한 물 안보 분야의 해외 선진국 사례를 보면 물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관리전략이 수립되고 있으며, 기본원칙과 목표의 설정이 우선시 되고 이러한 원칙에 입각한 세부 대응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원칙설정에서는 공통적으로 통합적인 수자원관리 체계, 수자원의 균형적인 공급, 재해에 대한 대비, 생태계 회복을 통한 탄력성 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선진국 및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물 안보 확보를 위한 전략 및 정책동향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한 물 안보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2년 제20차 UNESCO-IHP 정부간위원회에서는 “물 안보 강화 : 지역, 국가 및 국제적 난제에 대한 대응”을 2014년부터 2021년까지로 예정된 8단계 사업의 주제를 제시하였는데, 인구의 증가, 물 부족, 이상기후에 따른 홍수 및 가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구의 물 문제와 같은 물 안보 등을 주요 주제로 선정하여 6개 주제(표 4)에 대해 30개의 핵심영역(Focal Area)을 제시하였다.

UNESCO-IHP 8단계 사업주제로 구분하여 물 분야 지속가능개발 목표 이행을 위해 센터와 유네스코 IHP 한국위원회에서 수행중인 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센터의 경우 앞서 언급한 연구·교육·정보플랫폼 분야 모두 지속가능개발의 3대 축인 경제, 사회, 환경 분야에 맞추어 풍부한 수량 확보(Adequate), 적합한 수질공급(Acceptable), 재해 및 분쟁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 접근성(Access)과 경제, 사회, 환경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3A” for Water Security를 추진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그림 11).



그림 11. "3A" for Water Security

가. 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i-WSSM)

1) 연구사업

센터의 연구 분야에서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현을 위한 통합형 문제해결 연구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넥서스 기반기술을 통한 개도국의 물 안보 개선을 위한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수행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관점에서 개도국이 자국의 경제성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분야, SDGs 등 국제사회 아젠다를 실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분야, 다학제간 융합적인 연구접근이 필요한 분야, 물 관련 공적원조사업(ODA) 등과 같이 유네스코 중장기 전략에 대응하여 개발도상국의 물 안보 관리 능력을 개선시킬 수 있거나 국제사회가 공조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또한 국내외 학계 및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를 통한 센터 차원의 과감한 연구투자 및 전략적 액션플랜 수립에 중점을 두고 연구수행 중이다. 이외 센터는 대학과 기관들, 국외의 연구소들과 협력하여 수자원에 관한 국제적 이슈들에 관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이며, 국가 혹은 지역 전문가들과 연구자들에 대한 관련 교육 과정을 체계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나 국제기구로부터 전문가를 초빙할 계획이며, 수자원과 관련된 국가적 혹은 지역적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관련 국가나 국제기구 등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국제적 물 문제 해결에 본 센터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17년 연구사업 성과

- i-WSSM 센터 개관기념 「물 안보」국제 세미나('17.05.12)
- 미주개발은행(IDB)과 NEXUS 국제공동연구 추진 기획('17.06-)
- UNESCO, IDB, K-water, IWRA, WWC 등과 넥서스 국제공동연구 기획

- i-WSSM 센터 운영전략 수립연구('17.07-'18.01)
- 중국 사천대학교 칼론지 학장 면담('17.09.20)
- 센터와 사천대학교 향후 아시아 지역의 미래 물관리 개선방안 공동연구 및 상호협력 기반 논의(Ms. Gretchen Kalonju & Prof. AN Rui-dong)
- 아시아 국제물주간(AIWW) 행사시 개도국 물 안보 특별세션 세미나('17.09.22)
- 아시아 물관리 상호 협력방안 논의 및 국가별 물안보 이슈 공유
- 대한민국 국제물주간(KIWW) 행사시 드론기반 하천관리 국제세미나('17.09.22-09.23)
- K-DRUM 모형 개발 공동연구 기획('17.10)
- SIDS(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군소도서개발국) 지원전략 수립('17.10.22-10.25)
- 유네스코 Apia 물 안보 컨퍼런스 참석 및 향후 연구, 교육 협력방안 논의
- IHP 인간정주 프로그램(Human Settlement) 연구협력 논의('17.10.29)
- UNESCO-IHP 사무총장(Ms.Blanka Jimenez) 면담
- UNESCO-IHP 인간정부 프로그램 담당자(Dr. Alexandros M.) 면담
- 적정기술 국제 컨퍼런스 세션('17.12.01)
- SDGs 실현을 위한 물과 적정기술 논의, 적정기술학회 향후 협력
- 「미래 물 안보 포럼」운영('17.12-)
- i-WSSM, KOICA, K-water, 한국수자원학회, 적정기술학회 공동주관
- 미공병단(U.S.Army Corps of Engineers) 수자원분야 협력방안('17.12.4-6)
- Smart Water Management 파주 사례집 발간('17.12)
- WWDR 2017 한국어판 요약보고서 발간('17.12)

2) 교육사업

교육 분야에서는 '사례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개도국의 물 문제 해결 및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수원국의 수요를 고려함과 동시에 센터 고유의 특화된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맞춤형 과정 및 사례 및 현장중심의 교육과정과 문제해결형 역량개발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석·박사 학위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국제적인 물 전문 교육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하고 있다.

센터는 수자원에 관한 지역 및 개발도상국의 역량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신뢰와 지속적인 개발, 이용 및 보존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이전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해당 국가 간 기존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연구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새로운 파트너 관계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센터는 전 지구적 수자원 불균형 및 물 부족 등 물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물 관련 기술들을 체계적으로 보급, 확산시킴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

2017년 교육사업 성과

- 중남미 5개국 및 미주개발은행(IDB) 국제교육('17.06.25-7.1/10명)
- 주제 : 기후변화를 대비한 스마트한 물관리 방안
- 아시아 물 안보 개선을 위한 아시아 전문가 국제교육('17.09.17-09.26/10명)
- 아시아 물 안보 개선 및 수자원 전문가 역량강화 교육
- 미래 세대 물 교육('17.10.25-10.26/오산초등학교 150명)
- 중앙아시아 스마트 물 관리를 위한 초청연수('17.11.19-11.25/8명)

- 중앙아시아 상하수도 분야 중심의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강의 및 현장학습
- 캄보디아 현지진단 및 문제해결과정('17.11-'18.03)
- 주제 : 메콩강 삼각주 지역 물 안보 개선을 위한 통합 홍수관리 사업 기초조사
- 국내 전문가 파견, 현지 정밀 기술진단 통한 문제해결 및 ODA, 사업연계
- 일본 ICHARM 석박사 운영과정 벤치마킹 및 협력논의('17.12.24-12.26)

3) 네트워크(정보플랫폼)

마지막으로 센터를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물 관련 연구 및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전문가가 모이는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물 안보 정보플랫폼 구축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통해 물 관련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센터를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물 관련 연구 및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전문가가 모이는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UNESCO-IHE의 PoWER 등 국제적인 연구·교육기관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여 물 관련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경주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수자원 불균형 및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추진지원 체계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물 안보 이슈 발생 시 효율적인 물 안보 전략지원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다.

2017년 정보플랫폼(네트워크) 성과

- 국내 Cat2 센터 초청 간담회 개최('17.04.20)
 - 국내 센터 운영성과 및 발전방향 등 공유
- K-water 협력방안 구축 세미나 개최('17.04.27)
 - K-water의 연구 및 교육 연계방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 및 제언
- 아태지역 공동 협의체 구성논의('17.05.12)
 - 아태지역 물관련 Cat2 지역 Focal Point 및 정기 모임 구체화 논의
- MOU 체결('17.05.26/충남대학교 국제수자원연구소)
- 아시아 국제물주간(AWW) 부스 운영('17.09.20-09.22)
- 대한민국 국제물주간(KWW) 행사시 제8차 워터비즈니스 포럼 운영('17.09.20, 09.21)
 - 정부 및 민간기업 연계 해외사업 발굴을 통해 물 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 AWC 가입 및 이사기관 추진('17.09.21)
- 제8차 세계물포럼 세션 코디네이터 참여의향서 제출('17.10)
 - ① Capacity : 'How to expand support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apacity building to achieve SDG 6' 코디네이터 제안(채택 유력)
 - ② Governance (Corss cutting) : 'The new policy agenda for IWRM' 코디네이터 제안
- UNESCO-IHP 제25차 아태 지역별 운영위원회 활동 및 성과보고('17.11.13)
- IHP 국가별 위원회「Catalogue of Hydrologic Analysis Modules」운영위원회 회원활동('17.11.13)
- 업무협약 체결('17.11.17/한중아시아 협력포럼 사무국)

센터의 사업으로부터 얻어진 모든 연구·교육·네트워크 성과 등은 주로 개발도상국의 연구자나 전문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활용될 것이며, 연구 및 교육활동을 통해 구축된 인적 네트워크는 향후 세계적인 물 관련 정보 네트워크의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양한 국가나 기관들과 연구, 역량강화 및 정보 네트워크에 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되고 기존 IHP 센터, UNESCO-IHE 및 UN 등 국제기구들과도 활발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국제적 물 문제 해결 및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는 데 있어 크게 기여할 것이다. 자세한 센터의 활동사항 및 자료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www.unesco-iwssm.org)

나. 유네스코 IHP 한국위원회

국제수문학프로그램(International Hydrological Programme, IHP) 사업은 UNESCO에서 운영하는 4개의 자연과학 프로그램(국제수문학프로그램, IHP; 정부간해양학위원회, IOC; 인간과 생물권계획, MAB; 국제지구과학계획, IGCP) 중의 하나이다. 1964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던 UNESCO 제13차 회의에서 국제수문개발 10개년 계획(International Hydrological Decade, IHD)이 제창되어 1965년 당시 131개의 UN 회원국들 중 108개 회원국들이 1965년부터 1974년까지 10년간을 사업 기간으로 하여 시험유역 조사를 기반으로 한 수문분야 기술개발에 주력하였다. 1974년 UNESCO 파리 총회에서는 IHD 사업에 대한 확장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IHD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으로 국제수문개발계획(International Hydrological Programme, IHP)을 수립하였다(UNESCO, 1991). IHP 사업은 우리나라에 적합한 수문해석 기법을 연구 조사하여 다른 회원국과 정보 교환을 토대로 수자원 기술발전과 국제 기술협력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문학적 순환에 관한 연구와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를 위한 전략 및 정책을 제안하고, 최근 발생하는 수자원 문제에 대하여 의사 결정자에게 대응조치에 필요한 기술적 자원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1단계 사업(1975~1980)으로 한강의 경안천 및 금강의 무심천 대표 시험 유역이 운영되었으며, 1976년에 낙동강 유역의 신천 대표 시험 유역이 추가로 선정되어 운영되었다. 이후 우리나라의 수문순환과정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2단계 사업(1981~1983)부터 6단계 사업(2002~2007)까지 한강수계의 평창강, 금강수계의 보청천, 낙동강수계의 위천에서 시험유역을 운영하였으며, 7단계 사업(2008~2013)에서는 한강수계의 청미천 유역, 금강수계의 대동천 유역을 대표 유역으로 선정하고 유역 내의 각종 자료에 대한 관측,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8단계 사업(2014~2021)이 진행되고 있다.

2012년 제20차 UNESCO-IHP 정부간 위원회에서는 “물 안보 강화 : 지역, 국가 및 국제적 난제에 대한 대응”을 2014년부터 2021년까지로 예정된 8단계 사업의 주제를 제시하였는데, 인구의 증가, 물 부족, 이상기후에 따른 홍수 및 가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구의 물 문제와 같은 물 안보 등을 주요 주제로 선정하여 표 4와 같이 6개 주제에 대해 30개의 핵심영역(Focal Area)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사업주제에 대한 8년간의 8단계 사업을 위해 2차례의 기획연구가 이루어졌으며, 1차년도(2014년), 2~4차년도(2015~2017년), 5~8차년도(2018~2021년)로 구분하여 표 4와 같은 연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3차년도 6개 연구 사업이 진행 중이며, 3년(2~4차년도, 2015~2017년) 동안 연구가 수행될 예정이다.

6개 연구사업 중 3개 과제는 일반과제로서 8단계 기획과제에서 선정된 연구주제를 국내 연구진이 수행하고 있으며, 2개 과제는 국제협력과제로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연구목표로 국외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5~8차년도 연구 사업에서는 UNESCO 및 WMO에 접수된 개도국 국제협력사업과 연계한 국제협력과제를 수행하여 개도국에 대한 연구자들과의 학술 네트워크 구축과 연구기술지원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과거 시험유역 운영에 중점을 두었던 시험유역 과제는 유량측정 전문기관의 존재, 계측기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예산 효율화를 위해 기존 전문기관의 시험유역에 대한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및 새로운 모니터링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학술적 연구와 현업의 협력을 통한 시험유역 운영의 플래그십 형태의 연구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5~8차년도(2018~2021년) 사업주제로는 세계적인 변화의 적응에 관한 위험관리(일반과제), 지역 및 세계적인 지구 관측시스템을 통한 혜택(일반과제), 잠재적으로 삶의 건강과 질적 향상을 위한 도시경관에서의 우수 정화 및 유지관리(일반과제), 물 부족에 대해 다루고, 바람직하지 않은 경향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국제협력과제), 개발도상국의 신생 도시화의 기획(국제협력과제), 용담 대표시험유역 관련 연구(시험유역과제) 등을 계획하고 있다.

IHP 연구 사업을 통해 얻은 연구 성과는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5월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에서는 IHP 연구 성과 기획세션을 통해 전년도에 이루어진 연구 사업에 대한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또한 한국수자원학회와 MOU 체결을 통해 교류 중인 뉴질랜드, 미국, 베트남 등의 외국학회에 참여하여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IHP 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IHP 연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연구 성과는 웹 사이트(www.ihpkorea.or.kr)에서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국제수문학프로그램(IHP) 및 한국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과거 IHP 대표 시험유역에 대한 현황

및 수문자료를 DB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IHP 연구 사업을 통해 수행한 연구보고서와 성과발표 자료 등 관련 문헌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IHP 연구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연구 성과와 시험유역의 수문자료에 대한 IHP 웹사이트의 지속적인 자료 갱신을 통해 수자원 종사자에 대한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제 4장 결론 및 제언

전반적인 SDGs의 이행은 한국의 경제·사회 제반 문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행복한 국가 실현을 위한 국가발전전략을 재검토하는데 기여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국내 이행 현황의 경우 SDGs 이행을 위한 리더십 및 국민적 공감대 부족, 부처 간 상이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통합적인 접근 보다는 기존 업무 체계 하에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별도의 통합적 이행체계 없이 기존 업무 분장 하에서 SDGs에 산발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조정 강화가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SDGs는 정부, 민간, 시민사회 등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의제인 만큼, 리더십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범정부적·통합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이 실현되어야 국가, 나아가 지구촌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2050년에 전망된 지속가능한 세상에서 수자원은 건전하고 공평한 전 지구적인 경제에서 인류의 복지와 생태계의 고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고 각종 물 관련 서비스도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망은 상당한 노력이 경주되고, 상호 연계되고 보장되는 국제적인 조치가 취해질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다.

국외 SDGs 대응 정책을 통해 국가차원 및 기관차원(유네스코 물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i-WSSM))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4.1. 국가차원의 시사점

1) 정권 및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아젠다 실행

- 독일의 경우 2000년대부터 꾸준히 지속가능발전이 국가 아젠다로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국가 아젠다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 정치적 상황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기존 아젠다는 지속성을 잃고 이와 관련된 정책에 큰 관심과 지지도가 사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때문에 국가 아젠다 실행에 존속성을 부여해야 장기계획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
- 또한 아젠다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도가 필요하다.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실행하려면 국민적 관심이 정치적 상황보다 더 큰 힘으로 작용되어야 할 것이다.

2) 주도적으로 아젠다를 실행할 수 있는 기구 창설

- 독일의 경우 지속가능발전은 최우선순위 아젠다이기에 지속가능발전 국무장관위원회의 의장은 국무장관이 맡고 있다. 이 위원회를 통해 모든 부처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에 참여하고 협업을 도모한다.
- 콜롬비아의 경우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위해 고위급 기관 협동의회를 구성하였다. 각 부처의 고위급 인사(장관)들로 구성되어 있어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및 프로세스 결정이 신속하고 용이하다.
-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구는 부재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도 아직 확립된 상태도 아니다.
- 2012년 11월 「지속가능발전법」에 의거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였지만 특별한 활동이 없는 상태이다. 그 이유는 이 기구는 환경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주도적인 위치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보다는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따라서 우리나라도 독일과 콜롬비아처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높은 수준에서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 한 부처만 담당하는 것이 아닌 각 부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동의회를 구성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협력적 실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다차원적 거버넌스를 통한 아젠다의 실행

- 독일의 경우 크게 정부, 국회, 전문기관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다루고 있고 각자 맡은 역할도 상이하다. 특히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기관인데 정부에게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담은 제안을 작성하여 다양한 관점의 공공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 콜롬비아의 고위급기관 협동의회는 3달에 한 번씩 회의를 가지는데 시민단체 등 비정부기관들도 초빙하여 대화의 다양한 관점을 확보하고 있다.
- 싱가포르 국가기후변화사무국의 경우 관련 각 부처들이 참여하는 기후변화정부부처협동위원회와 시민·공공·민간부문이 함께 참여하는 기후변화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어 다차원적으로 기후변화 관련 이슈를 다루고 있다.
- 우리나라도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도 참여할 수 있는 다차원적 거버넌스를 확보해야 한다.

4) 국가상황(정책)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성과 검토 메카니즘 국내 도입

- 독일의 경우 국무장관회의의 요청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국가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예비조사를 시행하였다.
- 콜롬비아도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해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 네덜란드도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청의 주도 하에 국가상황을 감안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환경적 부문을 평가하였다.
- 싱가포르 또한 2015 지속가능한 싱가포르 블루프린트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싱가포르의 현재 수준을 진단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 한국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행하기에 앞서 한국의 수준진단과 국가 상황을 고려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 SDGs 이행 책무는 회원국 정부에 있으며, 글로벌 수준의 이행성과 검토는 유엔 총회(GA) 및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고위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을 통해 진행된다. 하지만 국내 아젠다 2030 이행 거버넌스 강화 차원에서 이행 및 성과 검토와 관련된 국내 역할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위상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유엔의 경우 이행성과 검토를 위한 지표(Indicators)와 관련하여 진전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시의성과 신뢰도 및 편의성 높은 양질의 통계(data) 구축을 권장하고 있다. 각 기관의 사업을 포괄하는 세분화되고 성과 검토 지표 개발에 주력 대응해야 할 것이다.

5) 아젠다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국가 계획내 주류화

- UN SDGs 대응 국내 기본 정책방향은 SDGs 이행기간인 2015~2030년 간의 주요 국가계획에 연계된 목표 이행 메카니즘을 수립하는 것이다.
 - 녹색성장의 도입으로 환경과 경제에 치우친 영역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사회분야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고, 사회, 경제, 환경이 균형을 이루도록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하며, 특히 국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2014)가 지적한 바와 같이 환경 분야의 지속가능발전 노력을 강화해야 함. 특히 국가계획의 연계 강화에 있어 SDGs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이행과제에 대응하는 국내 각종 국가계획 상의 이행 목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장기 계획 목표 수립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지속가능발전목표 각각에 연계된 물 관련 목표 6에 대한 주요 국가계획으로는 다음과 같다. SDG6 (식수,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관리능력 확보) :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환경보전종합계획, 제4차 국토종합계획_수정계획 등

4.2. 유네스코 i-WSSM 센터의 시사점

1) 중점목표 선정을 통한 전략 수립

- 국제기구들은 이들의 역할과 관련된 목표들을 선정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프로그램과 활동방안을 수립하였다.
 - UN-Water는 물과 위생(Goal 6)과 도시(11.5), FAO는 기아(Goal2), UNEP은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Goal 12), 그리고 WHO는 건강(Goal 3)에 중점

2) 기존 프로그램 및 목표들을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연계

- 몇몇 국제기구의 경우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해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기 보다는 기존 프로그램에 목표들을 연계
 - FAO의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 수립한 전략적 목표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전반적으로 일치한다고 판단하였고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노력
 - UNEP 또한 기관의 주요 아젠다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이 지속가능발전목표 Goal 12에 주요 주제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한 프로그램들과 목표들을 연계하여 수행

3) 파트너십 구축과 강화의 중요성 강조

-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기 때문에 공통적이거나 다른 분야의 기구들과 파트너십을 강화 혹은 새로 구축하고 있는 추세
 - UN-Water의 경우 여러 국제기구들과 함께 물과 위생의 통합 모니터링 이니셔티브를 수립하여 최종적으로 이에 대한 글로벌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표로
 - FAO의 경우에도 국제기구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사회보호 부문에서 기구의 역할을 확대하였고 UNEP의 경우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10개년 프레임워크에서 국가,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주요 프로그램을 주관
 - WHO도 마찬가지로 주제에 따라 그에 맞는 국제기구들과 협업하여 멤버국가를 지원

4) 해외기업의 매개체 역할 수행

- 수에즈(SUEZ)는 글로벌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세션을 구성하여 중요한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

물 분야 측면에서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6) 이행을 위한 노력에 대한 글을 맺고자 한다. 사실 역사상 물의 통제와 조정력을 확보하는 일은 한 국가의 중요한 과제이자 도전이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비해 수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더욱 대규모로 이용한다. 싸고 풍부한 물은 산업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물과 관련한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사회의 번영과 안정을 이루어 내었다. 이와는 반대로 수자원 기반시설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쇠퇴와 정체의 표시였다. 이는 수자원이 에너지, 식량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인데, 오늘날 그 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 물 문제는 한 나라의 성장과 안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더욱이 기후변화로 인한 물 관련 재해는 수자원 관리가 미흡한 개발도상국에게 더 큰 파괴력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물은 문명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 물이 우리 사회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심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개발도상국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을 지원해야 하겠다. 물 안보는 단순히 수요-충족 차원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세원. (2015).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산업 ODA 정책방향. 연구보고서 2015-775.
2. 김진우, 신태선, & 최한주. (2013). 연구 논문: 국제사회의 물 관련 주요 이슈 및 동향 (MDGs 와 Post-2015 개발의제를 중심으로). 저널 물 정책 · 경제, 22, 79-93.
3. 김창수. (2012). 물 인권과 물 관리 거버넌스. 물과 인권: 국제사회의 물 인권 논의와 국내 도입의 이슈 (pp. 434-500).
4.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2010) 물 경영시대
5. 박지현, 홍일표. (2016). 지속가능개발과 물 안보,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KWRA, 76-77.
6. 박한규. (2007). 지구화시대에 있어서 안보 개념의 다차원적 분석: 인간, 안보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1(3), 985-1004.
7. 손혁상. (2007). "새천년개발목표와 인권: 경쟁과 상호보완의 동학," 인권평론, 6(2):265-295.
8. 오정화, 박영실. (2015).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에 대한 국가통계 대응방안 수립. 통계개발원.
9. 윤용남. (2016). UN의 지속가능발을 위한 활동과 물. 한국수자원학회, 49(3), 82-97.
10. 이운, 구재남, 김선아, 박준현, 임혜숙. (2013). 개도국 물 인권 확립을 위한 녹색 ODA 활성화 방안 (Establishing the green ODA vitalization policy for the human right to water in developing countries). 정책보고서 2013-10.
11. 이지은, 차승만. (2015).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p.110-132, 한국국제협력단.
12. 임소진. (2012). 국제사회의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수립동향 및 한국 ODA 의 기여방안. KOICA 개발정책 포커스, 14(1), 1-65.
13. 임원혁. (2012). 새천년개발목표의 교훈과 2015년 이후 개발의제에의 함의. 한국개발연구원.
14. 정관수, 이주현, 김상호. (2016). 국제수문학프로그램(IHP) 제8단계(2~4차년도) 연구사업 소개. 수자원학회, 49(4), 8-13.
15. 조을생, 독고석, 강한나. (2014). SDGs 관점의 물인권 지원을 위한 한국의 ODA 전략방향 연구 (A study on strategic directions for Korea's ODA on supporting the right to water i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정책보고서 2014-21.
16. 한국한국수자원공사(K-water). (2016). SDGs의 물관련 주요내용 및 개발지표.
17. 한국한국수자원공사(K-water). (2017). 물과 미래.
18. 홍일표, 박한주, 박지선, 김초롱. (2011). 물안보 확보를 위한 전 지구적 전략과 사례 및 우리나라의 대응체계. 국토해양부.
19. Back, E. (2013). Everyone, everywhere. A vision for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post-2015. Wateraid.
20. Bates, B. (2009). Climate Change and Water: IPCC technical paper VI. World Health Organization.

21. Connor, R. (2015). The United Nations 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 2015: water for a sustainable world (Vol. 1). UNESCO Publishing.
22. Donoso, M., Di Baldassarre, G., Boegh, E., Browning, A., Oki, T., Tindimugaya, C., ... & Zubari, W. K. (2012). International Hydrological Programme (IHP) eighth phase: Water security: responses to local, regional and global challenges. Strategic plan, IHP-VIII (2014-2021).
23. Florescu, E. (1997). State of the Future. J. C. Glenn, & T. J. Gordon (Eds.), Washington, DC., USA: American Council for the United Nations University.
24. Marchal, V., Dellink, R., Van Vuuren, D., Clapp, C., Chateau, J., Magné, B., & van Vliet, J. (2011). OECD environmental outlook to 2050.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5. Molden, D. (Ed.). (2007). Water for food, water for life: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water management in agriculture. Earthscan.
26.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2012). OECD Environmental Outlook to 2050: The Consequences of Inaction, OECD Publishing, Paris.
27.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14). Costs of Inaction and Resource scarcity:Consequences for Long-term Economic growth.
28. Sadoff, C. W., Hall, J. W., Grey, D., & Wiberg, D. (2015). Securing water, sustaining growth. XQ-15-801.
29. UNDP. (1994). 유엔개발계획 인간개발보고서.
30. UN-HR, O. H. C. H. R. UN-HABITAT (2010). (The) Right to water, fact sheet no 35. OHCHR, Geneva.
31. WaterAid, Oxfam, Unilever and Next Drop. (2015). Water for women.
32. WEF, F. E. M. (2013). Global risks 2013. World Economic Forum.
33.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 UNICEF. (2017). Progress on drinking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2017 update and SDG baselines.
34.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2015). Progress on sanitation and drinking water: 2015 update and MDG assessment, World Health Organization.

웹사이트

1. <http://datatopics.worldbank.org/sdgatlas/SDG-06-clean-water-and-sanitation.html>
2. <https://en.unesco.org/themes/water-security/hydrology/IHP-VIII-water-security>
3. http://kofid.org/ko/pdf/IssueBrief_9.pdf
4. https://www.soas.ac.uk/cedep-demos/000_P514_IEL_K3736-Demo/module/topindex.htm#
5. <http://waterjournal.blog.me/220474467913>
6. 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A/RES/70/169
7. <http://www.unwater.org/what-we-do/inspire-action/>



SDG 4, 8-지질다양성:
국립공원관리공단 국가지질공원
사무국 유완상 박사



지질공원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 국립공원관리공단 국가지질공원사무국 유완상 박사

I. 서론

2015년 9월 UN에서는 MDGs(새천년 개발 목표, Millenium Development Goals)가 종료되면서 2030년까지 새로이 SDGs(지속가능발전 목표)가 새롭게 수립되었다(United Nations, 2015). SDGs는 MDGs에서 그동안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지속가능성의 부재를 극복하고, 더욱 폭넓은 항목에 있어 세계의 발전을 제시했다(Kwon and Park, 2017).

이에 UN 회원국인 대한민국도 다양한 부문에서 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6년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과 관련한 연구를 하였으며, 각 항목별로 어떤 이행이 필요한지 제시하고 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6).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2017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지속가능발전 포럼을 개최하고자 총 3회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였다. 청소년, 여성, 물, 해양, 생태, 그리고 지질다양성을 주제로 2017년 11월 30일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유네스코 과학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을 통해 유네스코의 교육, 과학, 문화라는 주제에 걸맞은 다양한 기관 및 단체에서 SDGs 이행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실행 계획 등을 엿볼 수 있었다. SDGs를 이행하는데 있어 포럼을 통해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더욱 실질적인 이행전략을 공유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곧 SDGs를 통해 인간은 더욱 인간답고, 자연은 더욱 자연답게 만드는 정책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프로그램과 국가지질공원제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지질공원을 통해 SDGs는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지질공원 제도의 측면에서 알아보고, 그러한 제도를 통해 지질공원에서 각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SDGs를 이행하고 있는지 일부 사례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지질공원의 당면과제와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II. 지질공원

1. 지질공원의 역사

지질공원(Geopark)는 1990년대 지질유산(geological heritage 혹은 geoheritage)라는 개념이 생겨나면서 시작되었다(UNESCO, 2017; Lee, 2008; Lee, 2010). 유산으로 물려받은 지질자원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보존이 필요한데, 이러한 보존이 기존의 보호지역 지정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역주민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다. 즉, 방문객에게 지질유산을 개방함으로써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게 되고, 지역주민은 이로 인해

소득이 늘고, 더불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지게 되며, 결국엔 지역의 지질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보존을 피하게 된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을 기반으로 한 지질공원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던 유네스코는 유네스코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추진하였으나 실패하고, 특별후원(ad hoc)을 통해서만 지질공원을 지원하게 된다. 2000년 말 유럽은 유럽지질공원 네트워크(Europe Geoparks Network, EGN)를 결성하여 지질공원 간의 정보와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면서 지질공원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다. 이후 지질공원은 2004년 EGN에 가입된 지질공원과 중국의 8개 지질공원이 모여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Global Geoparks Network)를 출범시킴으로, 지질공원은 유럽을 넘어 세계무대로 비로소 향하게 된다. 2015년 11월 지질공원은 유네스코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확정되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이어 유네스코의 3개 보호지역이 된다(Ryu and Moon, 2016).

2017년 12월 현재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35개국 127개로, 대부분 유럽과 아시아, 특히 중국에 주로 분포한다. 중국이 가장 많은 35개의 세계지질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유럽의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아시아권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일본이 총 8개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뒤로는 2개를 보유한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등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질공원 네트워크(Asia-Pacific Geoparks Network, APGN)의 경우, 한국의 위상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제7차 APGN 총회에서 APGN 자문위원단의 부의장 2명 중 1명이 한국인으로 선출되었으며, 자문위원도 12명 중 2명이 선출되었다. 이 뿐만아니라 GGN, APGN 등 국제회의에 나가보면 우리나라의 지질공원 제도와 우수사례, 특히 제주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대해 상당한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이수재 박사를 통해 지질공원의 개념이 들어오게 되고(Lee et al., 2003), 2005년 김유봉 박사는 지질공원의 국내 도입을 주장하였다(Kim et al., 2005). 제주도는 2010년 심사를 통과 대한민국 1호 세계지질공원이 되었다. 환경부에서는 국가나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제도와 달리 주민 혹은 기초 지자체가 주체가 되는 상향식(bottom-up) 인증 제도인 지질공원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2011년 11월 자연공원법을 개정하여 지질공원제도를 추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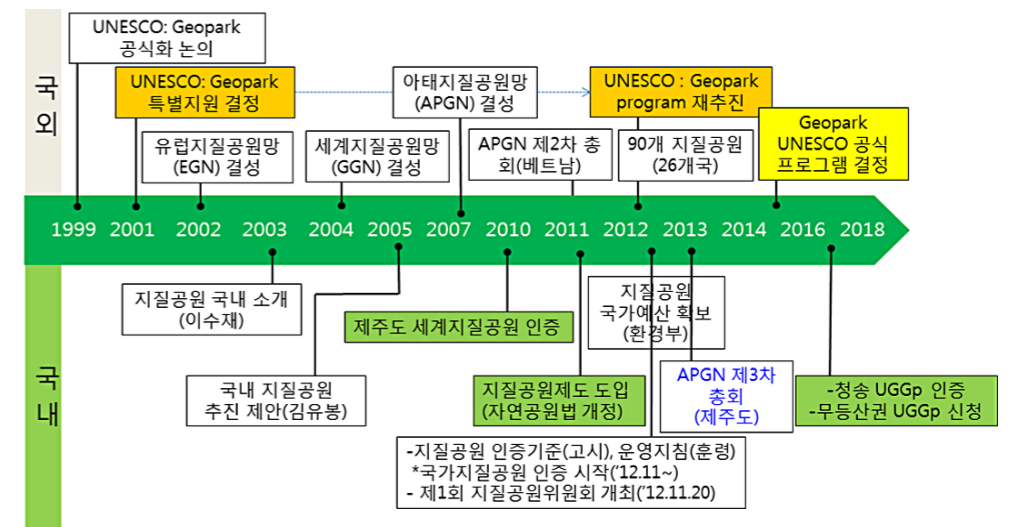


그림 1. 국내외 지질공원의 역사

이후 환경부에서는 울릉도·독도 지질공원과 이미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제주도 지질공원을 2012년 12월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지질공원 제도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게 된다. 환경부는 2012년 지질공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2013년 1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지질공원사무국을 설치하여 인증 등 다양한 업무에 대해 환경부를 대행하게 된다(그림 1).

이후, 2013년 12월 부산 국가지질공원, 2014년 4월 청송 국가지질공원과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철원, 화천, 인제, 양구, 고성), 2014년 12월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화순, 담양), 2015년 12월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포천, 연천), 2017년 1월 강원고성대 국가지질공원(태백, 정선, 평창, 영월), 2017년 9월 경북동해안

국가지질공원(경주, 포항, 영덕, 울진), 전북서해안권(고창, 부안) 국가지질공원 등, 2017년 12월 현재 10개의 국가지질공원이 인증되었다(그림 2). 이 중 청송은 2015년 11월 유네스코에 세계지질공원을 신청하여, 2017년 5월 제주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되었다. 2016년에는 무등산권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신청을 하여, 서면 및 현장심사를 마치고, 현재 인증을 기다리고 있으며, 2018년 4월경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마찬가지로 국가지질공원도 4년에 한번씩 지질공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재인증(revalidation, 우리나라 지침에는 '조사·점검') 제도를 둔다. 따라서 2017년 울릉도·독도와 제주도가 국가지질공원 조사·점검을 무사히 마쳤고, 2017년 12월 현재 부산이 조사·점검 중에 있다.



그림 2. 국가지질공원 현황: 제주와 청송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며, 무등산권은 2016년 세계지질공원을 신청하여 2018년 4월 등재여부 확정 예정

이미 지정된 국가지질공원 외에도 현재 국가지질공원을 추진하는 지역도 다수 있다. 전라북도의 진안·무주, 인천의 백령·대청권, 충북 단양, 경기도 화성이 현재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국가지질공원 인증 신청을 준비 중이며, 현재 전라남도 해남군,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남도에서도 국가지질공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국가지질공원사무국에서는 2015년 중장기발전계획에서 2022년까지 17개의 국가지질공원과 8개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 목표는 2022년까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지질공원의 개념

지질공원의 역사는 상기한 바와 같이 그리 길지 않다. 세계지질공원의 경우, EGN을 시작으로 하면 이제 17년이 되었고, GGN 창설을 기준으로 하면 약 13년의 역사를 가진다. 국가지질공원은 자연공원법 개정(2011년 11월) 이후로 2017년 12월 현재 만 6년이 되었고, 최초의 국가지질공원 인증일인 2012년 12월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만 5년이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 보호지역인 국립공원과 비교해도 지질공원의 역사는 짧다.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은 2017년 50년이 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립된지는 30년이 되었다. 현재 국립공원은 가장 마지막으로 지정된 태백산까지 포함해서 총 22개이다. 하지만 지질공원은 약 5년의 짧은 역사에 비해 지질공원의 수적인 발전은 괄목할만하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에 비해 지질공원은 질적인 발전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직 일반 국민들의 지질공원 인지도가¹ 낮은 편이고, 국가지질공원 내에서 살고 있는 지역주민의 인지도도²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Ryu and Moon, 2016).



그림 3. 지질공원 개념도

유네스코에서 정의한 지질공원(Geopark)은 크게 네가지로 볼 수 있다. 즉, 지질공원이란 단일의 통합된 지리적 지역(a single unified geographic area)으로, 국제적인 지질학적 중요성을 가진 장소와 경관(sites and landscapes of international geological significance)을 가지고 있으며, 보호·교육·지속가능발전의 전인적인 개념으로 관리되는 곳(managed with holistic concept of protection, educ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질공원 내의 지질유산의 보호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상향식(bottom-up)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바로 지역 공동체의 참여(involving local communities) 없이는 불가능하다(UNESCO, 2017a).

지질공원은 가치있는 지질과 경관을 기본으로 하되, 지질만을 다루지는 않는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서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지질공원(geopark)은 지질학 공원(geological park)이 아니며, 지질·지형 즉 더 전위에서 삶을 영위하는 모든 생물과 인간을 포함한다(그림 3). 따라서 생태, 역사·문화 등은 지질공원을 구성하는 요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지질유산과 비지질유산의³ 연계(link)는 지질공원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유네스코는 이러한 지질공원의 정의와 개념을 지질공원에 구현하는 지질공원의 4대 핵심 요소(fundamentals features)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UNESCO, 2017b).

첫째, 국제적인 지질학적 가치(Geological heritage of international value)이다. 지질학적 가치는 공인·출판된 연구(peer-reviewed, published research)를 근거로 국제적인 비교연구(globally comparative assessment)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 가치에 대한 평가는 1차적으로는 독립된 그룹인 세계지질학연맹(International Union of Geological Sciences)이 하고 있으며, 현장 실사 시 현장 평가팀(UNESCO Global Geopark Evaluation Team)에 의해 이를 점검하게 되어있다.

1 국가지질공원사무국에서 2017년 5월, 7월 8개 국가지질공원(경북동해안, 전북서해안권 제외)을 대상으로 지질공원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질공원을 방문한 탐방객의 20% 정도만이 방문 지역이 지질공원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2 Ryu and Moon(2016)에 따르면, 2015년 실시한 지역주민의 지질공원 인지도 설문조사에서, 제주, 청송, 울릉도독도의 경우 약 50%에 이르지만, 나머지 지질공원은 약 20~30%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단일 지자체, 세계지질공원이거나 추진지역, 혹은 인구수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 비지질 유산은 지질적인 요소 이외에 자연 및 인문 유산을 의미한다.

둘째, 관리(Management)이다. 지질공원의 관리는 국내법에 의해 공인된 실질적인 조직을 갖춘 기관을 통해 하도록 되어있으며, 공무원, 지역 주민, 지역 업체 등 지질공원과 관계된 다양한 주체가 포함되어야 하며, 지질공원의 사회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리계획'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셋째, 가시성(visibility)이다. 지질공원은 지질관광(geotourism)을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지질공원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 지질공원의 관련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한다. 즉, 지질공원의 지질명소(geological site)를 쉽게 설명하는 안내(해설)판, 가이드북, 리플릿 등의 다양한 인쇄물을 비롯한 온-오프라인의 모든 홍보 활동을 포함한다.

넷째, 교류·협력(Network)이다. 교류·협력은 지질공원 제도의 또 다른 핵심요소로서, 해당 지질공원의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국내외 지질공원 간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GGN, APGN에 참석하여 교류하는 것을 권장하는 한편, 국내외 다양한 지질공원 교류를 장려한다. 이러한 교류협력은 다른 지질공원과 우수 사례 등을 교환함으로써 더 나은 지질공원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되면 GGN의 가입은 의무 사항이다.

▶ 국가적·세계적 가치의 지질유산

- 지질·지형 전문가를 통해 지질유산의 가치 평가
- 공인·출판된 연구결과를 통한 가치의 입증

▶ 지질공원 관리

- 실질적인 관리조직이 필수 조건(⇒지자체를 선호)
- 지속적인 관리·운영 역량 절실

▶ 가시성

- 지구과학의 대중화와 밀접한 관련
- 홈페이지, 리플릿, 가이드북, 해설판, 지도 등 가시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모색

▶ 교류·협력

- 지자체간, 국가·세계지질공원간 교류·협력의 중요성
- 지질공원간 정보와 우수 사례의 공유

그림 4. 지질공원의 4대 핵심 요소 정리

3. 지질공원 제도의 이해

지질공원은 전술한 바와 같이, 유네스코, 국가, 혹은 지자체가 보호지역을 지정하는 지정제가 아니라, 지질공원을 준비하는 조직·기관이 필요한 조건들을 준비해 심사받아 조건들이 완비되면 부여받는 인증제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필수조건과 같은 사항들이 존재하며, 신청을 준비하는 지질공원 후보지는 이러한 사항에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 유네스코 가이드라인에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지질공원이 1년 이상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었어야 하는 것이 필수 사항이다. 한국의 경우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지질공원이 반드시 1년 이상 운영될 필요는 없다. 다만, 한국의 지질공원 후보지들은 보통 2~3년 전부터 타당성 조사, 학술조사, 인증 신청을 위한 용역 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미 지질공원에 대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⁴ 또한 인증을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 관광 프로그램, 지역 주민 참여 및 협력 등 소프트웨어가 개발·운영될 수 밖에 없고, 안내판(해설판), 지질공원 센터, 지질 트레일 등과 같은 하드웨어도 이미 설치되어야 하므로, 지질공원이 운영된 것으로 본다.

4 2017년 9월 환경부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의 개정이 있었다. 개정 전에는 인증 기준 필수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조건을 준비하여, 서면심사 및 현장 실사를 거쳐 인증을 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신청 서류만을 검토하여 후보지 적합여부 등을 평가하여 후보지로 선정되면 그 이후에 나머지 인증기준을 충족시켜 인증받는 제도로 바뀌었다.

3. 해설과 환경교육		1,000
가. 영역 내의 연구, 정부와 교육 과학 활동		180
지질공원 관련 협력(협약) 대학 및 연구소가 1개 이상		50
연구실적 (지질공원 관련)	2년내 신청지역에 관한 석사학위 논문이 1편 이상	40
	3년내 신청지역에 관한 석사학위 논문이 1편 이상	50
	5년내 신청지역에 관한 석사학위 논문이 1편 이상	40
나. 신청 지역 내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200
정규직원 중에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있음(지구과학분야 정규직원 제외)		50
1개 이상의 정기적인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40
협력기관(업체)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1개 이상 있음		30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유치원생	20
	초등학생	20
	중·고등학생	20
	대학생	20
다. 교육 자료의 종류		120

그림 5. 국가지질공원의 자체평가표 예시: 점수는 취득할 수 있는 최대 점수를 의미

지질공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지정을 받은 후에 교육 프로그램 혹은 안내판과 같은 인프라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미 다 완비한 후에 심사를 받는다. 한국의 국가지질공원 제도도 유네스코의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질공원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심사를 위한 기준이 필요하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서는 자체평가표(Self-evaluation form)를 제시하고 있다(그림 5). 평가표는 총 7가지 부문이 있으며, 각 부문에 대해 세부항목이 있다. 이들 항목들은 모두 정량화하여 점수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후보지는 평가표의 각 항목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되, 반드시 관련 자료를 증빙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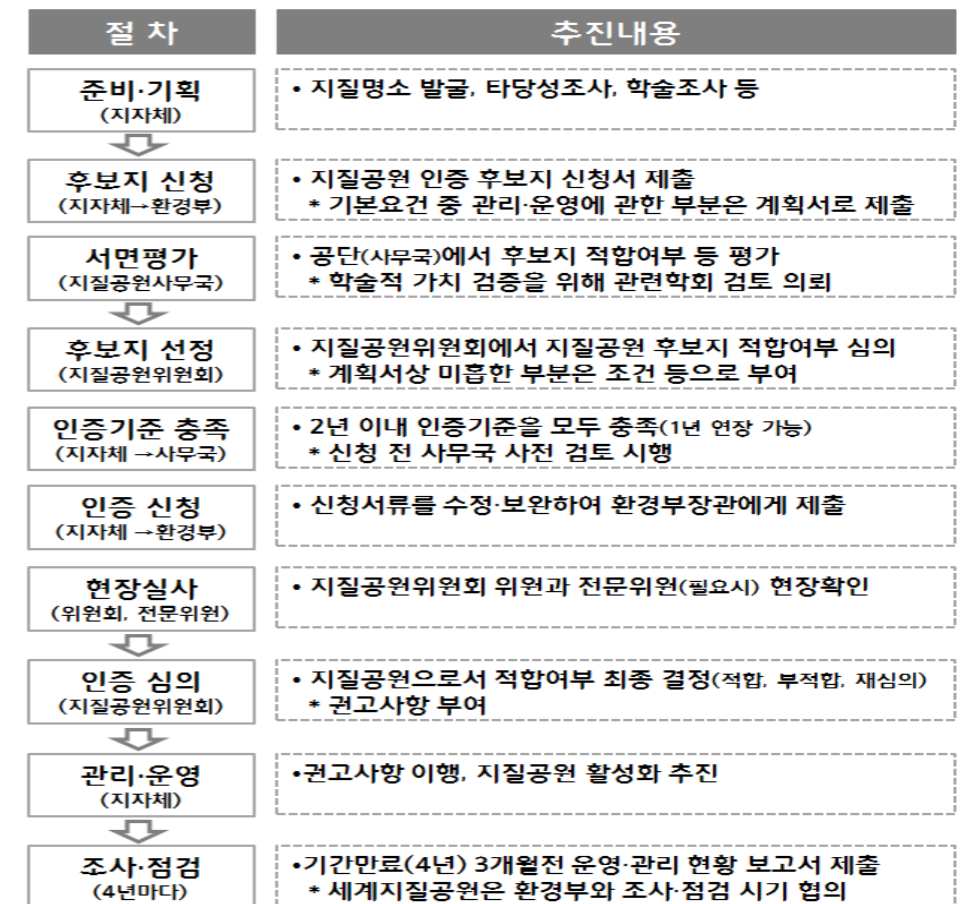


그림 6. 국가지질공원 인증 절차도(2017년 9월 개정)

III. 지질공원과 SDGs

지속가능발전 목표 17개 중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서는 지질공원과 관련있는 SDGs를⁵ 8가지로 제시하였다(그림 7). 이 장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에서 제시한 SDGs가 지질공원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하나씩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7.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서 제시한 지질공원 관련 8개 SDGs(붉은 색 사각형 내)의 로고

1. SDG1 빈곤 퇴치(No Poverty)

빈곤 퇴치에 있어 지질공원은 재해 위험 감소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이 목표는 특별히 타겟 1.5와 관련이 깊다. 지질공원은 기후 관련 재해 및 그 밖의 다른 자연재해에 대해 경각심을 알리고, 재해 복구 훈련을 통해 지역 사회에서 재해에 취약한 주민들의 삶을 도움으로 빈곤퇴치에 기여할 수 있다.

2. SDG4 양질의 교육(Quality Education)

지질공원은 지역 주민 그리고 지질공원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교육은 지질공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축 중의 하나로서 목표 4.7으로 지질공원이 SDGs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항목이다. 지질공원은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및 지역의 문화·역사 등을 지키는데 있어 효과적인 제도 도입에 틀림없다. 이 부문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⁵ 지질공원 관련 SDGs는 다음과 같다: 1번 빈곤 퇴치, 4번 양질의 교육, 5번 성평등, 8번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11번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12번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13번 기후변화와 대응, 17번 지구촌 협력

3. SDG5 성평등(Gender Equality)

타겟 5.5 즉, 여성의 효과적인 참여와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지질공원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세계 각국의 지질공원과 우리나라의 국가지질공원도 여성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질공원해설사가 자연공원법에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에서 양성하고 있다. 지질공원해설사를 양성하기 시작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366명이 양성되었고, 약 200여명이 지질공원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양성된 해설사 중 여성:남성의 비율은 6:4로 높은 편이다.

또한 지질공원은 반드시 지구과학 관련 전공자를 지질공원 전문가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지질공원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를 합쳐 총 14명의 지질공원 전문가가 있으며, 이 중 여성은 5명이다. 지질공원위원회의 경우, 민간위원 11명 중 3명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소 30% 이상을 여성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4. SDG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목표 8의 세부 타겟은 8.9로, 지속가능한 (지질)관광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은 지질공원의 주요 기둥 가운데 하나(one of the key pillars)라고 명시하고 있다. 관광과 지역 문화 및 산물의 진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해설사와 지질전문가의 고용은 직접적인 고용창출로 이어지며, 지질공원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 방문객이 많아지면 그만큼 간접적인 소득창출과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5. SDG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세계의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11.4가 세부 타겟이다. 지질공원은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지질학적 가치를 통해 지역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되고, 이는 결국 지속가능한 정주 공간을 만들어내게 된다.

6. SDG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세부 타겟은 12.8과 12.b이며, 지질공원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활방식을 교육하고 그 인식도를 높임으로써, 주민과 방문객에게 자연과 조화되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한다. 또한 지질공원은 다음 장에서 다루겠지만 지역 농수산물 판매를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 기념품 등을 만들어 내고 있다. 우수한 지역의 산물에 지질공원 레이블을 부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이뤄낼 수 있다.

7. SDG13 기후변화와 대응(Climate Action)

세부 타겟은 13.3으로, 지질유산에는 고기후의 기록이 남아있으며 이를 잘 알수록 현재 기후변화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다. 지질공원은 지질 및 지형의 대중적인 해설을 통해 방문객을 교육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를 늦추고,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교육함으로써 SDGs에 기여할 수 있다.

8. SDG17 지구촌 협력(Partnerships for the Goals)

세부 타겟은 17.6, 17.9, 17.16으로, 지질공원은 전술한 바와 같이 네트워킹을 강조한다. 지역 내 주민 간, 국내외 지질공원 간 정보 교류 및 우수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지질공원의 발전을 꾀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국제적으로는 2년에 한번 교차적으로 개최되는 GGN, EGN, APGN의 참석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국지질공원네트워크(Korea Geoparks Network, KGN) 회의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있으며, 해설사 대회 및 심포지엄 등을 통해 국가지질공원 간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지질공원 간 교류는 지질공원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내 국가지질공원들은 해마다 국제 행사에 참여하여 발표 및 홍보부스 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지질공원들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그림 8. 2017년 제7차 APGN 단체 사진

2017년을 예로, 중국 지진동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서 개최된 제7차 APGN 심포지엄에 중국을 비롯해 약 1,000명이 참석하였으며, 국내에서도 63명이 참석하였다. 사무국을 포함 총 3개의 홍보부스가 운영되었고, 구두 및 포스터 발표가 9건이 있었다(그림 8).

IV. 지질공원을 통한 SDGs의 이행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서 제시한 8개의 SDGs 모두 지질공원을 통한 실질적인 이행이 가능하며, 특히 지속가능발전목표 4(양질의 교육)와 8(일자리와 경제발전)은 지질공원의 활용면에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장에서는 국내의 국가지질공원 및 세계지질공원에서 8가지 지질공원 관련 SDGs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먼저 지질공원 제도 내에서 SDGs의 이행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후 국가지질공원에서 이러한 목표를 이행한 실질적인 사례를 일부 지질공원을 예로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질공원 인증 제도와 SDGs 이행

전술한 바와 같이 지질공원은 세계·국가지질공원 모두 인증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인증제를 위해서는 인증을 위한 적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세계지질공원 내에서는 자체평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지질공원 내에서는 여기에 추가하여, 인증필수조건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2017년 9월 개정된 국가지질공원 인증절차가 일부 바뀌었지만 인증필수조건과 자체평가표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 장에서는 세계지질공원 제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국가지질공원제도 내에서 SDGs와 인증제도와 관련된 사항들을 인증필수조건과 자체평가표의 항목과 관련하여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1) 인증필수조건

국가지질공원 인증세부기준에서는 국가지질공원이 되기 위한 인증조건을 '기본항목의 필수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조건은 인증세부지침(부록 1)을 참고하기 바란다. 총 4개의 기본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항목은 21개의 세부 필수 조건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필수 조건은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4개의 항목은 지질공원의 전술한 4대 핵심요소와 관련있다('지질과 경관' - 세계적 가치의 지질유산, '관리 및 운영 인프라' - 관리, '지질공원 관광 및 교육' - 가시성,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 - 지역주민의 참여). 이 중 어떠한 조건이 8개의 SDGs와 관련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SDG1 빈곤퇴치) 기후관련 재해 등 자연재해의 저감 및 경각심 제고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이것을 교육하는 것 등을 의미하며, 이와 관련한 필수조건 항목과 이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지질명소 오염 및 훼손 방지 행동규범(조례 등): 지질명소 훼손을 통해 가중될 수 있는 자연재해의 방지
- 지질공원 해설사 상시 배치: 자연재해의 위험성 등을 교육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활용
-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 간담회 등 개최 실적: 지역주민에게 자연재해의 위험성 및 지질공원이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이 있음을 교육.
- 지질공원 기본계획 또는 관리계획: 지질명소 오염·훼손에 대한 대책 및 자연재해와 관련한 교육 등의 내용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시.
- 지질공원 센터: 지구적 규모의 재해, 국가 및 지역의 재해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전시,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 지질공원 해설사가 안내하는 해설프로그램: 방문객에게 지질지형 내에 기록되어 있는 자연재해와의 관련성 및 재해 시 행동요령 등을 교육

(SDG4 양질의 교육) 교육은 지질공원의 활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축으로서, 지질공원 내에서는 지역주민과 일반 지질공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해설사 양성 및 배치와 관련이 깊다. 네 번째 목표와 관련있는 필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지질명소 중 공개 해설 장소의 개소수: 공개 해설 장소⁶는 지질명소 중 지질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공간으로, 안내판이 설치되고 해설사의 해설이 이뤄지는 장소
- 지질명소 데이터베이스 및 지도: 지질공원 교육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수집 및 공지
- 지질공원 해설사 상시 배치: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교육은 지질공원 해설사를 통한 교육으로, 탐방객의 해설 요구 시 접근 가능성
-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 간담회 등 개최실적: 지질공원을 통한 자연재해, 지질공원의 통한 효과 등의 교육을 비롯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의 제공(그림 10)
- 지질공원 담당 지질·지형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및 해설사 등을 교육하고, 지질공원 관련한 모든 교육·체험·관광 프로그램 등을 계획·관리·운영하는 실질적인 지질공원 담당자가 최소 1명 이상 필요

6 지질공원 해설사가 직접 해설을 제공하거나, 지질명소를 해설하는 해설판이 설치되거나, 리플릿 등이 비치되어 대중에게 지질관련 해설이 직간접적으로 이뤄지는 장소



그림 10. 마을 주민 지질명소 환경 정화 모습 및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 모습(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

- 지질공원 센터: 지질공원 방문객이 지질공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전시·교육·체험 등이 이뤄지는 지질공원 교육의 허브로서 지질공원 당 최소 1개 이상 필요
- 지질 탐방로: 하나 이상의 지질명소와 비지질명소가 포함된 지질탐방로에는 해설판이 설치되거나 지질공원 해설사가 안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질관광 및 교육이 이뤄지는 곳으로 최소 1km 이상의 탐방로 필요.
- 탐방객 안내 센터: 지질공원 센터와 달리 방문객에게 지질공원 관련 정보 제공 가능하고 해설사가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지질공원 당 최소 2개 이상 필요
- 마케팅 자료(안내책자 등)에 사용된 언어: 지질공원의 기본 정보를 제공하며, 교육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는 자료에는 최소한 2개 이상의 언어로 작성
- 지질공원해설사가 안내하는 해설프로그램: 지질공원 교육의 핵심을 담당하는 지질공원 해설사가 지질명소 및 지질탐방로를 안내하는 (야외) 해설 프로그램의 여부
- 지질공원 홈페이지 구축: 지질공원 및 지역의 일반 혹은 전문적인 모든 정보를 제시,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등록 등이 가능
- 탐방객 수의 계수(인력, 기계 등) 및 탐방객의 이용행태 분석: 지질공원의 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 필요
- 계층(초등, 중고생, 일반)별 교육프로그램: SDGs에서 제시하는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여부

(SDG5 성평등) 지질공원 내 여성의 참여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필수조건은 없지만 해설사의 여성비율이 남성보다 많고(여성:남성 6:4),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특별히 여성의 참여가 가능한 관련 필수조건은 지질공원 해설사 및 지역주민 관련한 것을 들 수 있다.('지질공원 해설사 상시 배치',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 간담회 등 개최 실적')

(SDG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지질공원의 기본이 되는 지질유산의 보존은 전술한 바와 같이 교육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중요한 두 축을 통해 이뤄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질공원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것은 지역 경제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기본항목의 필수조건에서는 '운영주체와 지역(마을) 및 업체(식당, 특산품 등) 간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필수조건을 제시하여, 지역주민과의 연계가 실질적인 상품 개발판매 등을 촉진토록 함. 이 외에도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을 통한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비록 지역주민으로 국한하지는 않지만 지질공원 담당 지질·지형 관련 전문가의 채용 등이 포함됨.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SDG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목표 11에 직접적으로 관련한 필수 항목은 없지만, 전술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경제발전, 그리고 다양한 지질공원 인프라(지질공원 센터, 탐방객 안내 센터, 지질탐방로) 등의 설치와 정주공간의 향상과도 맥을 같이 하며, 지질명소 오염 및 훼손 방지 행동규범, 지질명소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와 청소 등도, 비록 지질명소에 국한되긴 하지만 지역의 환경의 개선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수 항목 외

에 지질공원을 통해 지역주민이 지역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살만한 곳임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공동체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곧 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지질공원이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SDG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지질공원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발전을 장려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주민이 생산한 각종 농수산물물을 비롯해, 지역 내에서 만들어지는 공예품, 문화·역사 관련 예술품 등의 생산과 소비는 개별 지질공원에서 장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필수조건은 전술한 '운영주체와 지역 및 업체간 네트워크 구축'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SDG13 기후변화 대응) 지질공원에서 기후변화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를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지질공원다운 것은 지질과 지형, 즉 암석과 경관에 기록되어 있는 과거 기후에 대한 정보일 것이다. 이러한 고기후 정보를 바탕으로 지금 일어나는 기후의 변화를 이해함은 물론, 지질재해에 대한 교육과 안내가 병행된다. 지질에 관한 지식은 교육과 함께 이뤄지므로 '4 양질의 교육'에서 다루었던 필수조건이 여기에도 해당된다.

(SDG17 지구촌 협력) 지질공원에서 교류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필수조건에는 지역 주민과의 교류협력인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 간담회 등 개최 실적'이 관련이 있으며, 지질공원 센터, 탐방객 안내 센터, 지질공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질공원과 지질공원 방문객,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교류가 이뤄진다.

2) 자체평가표

국가지질공원 제도에서 기본항목의 필수조건은 인증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항목들을 모아 놓은 것이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서 기본항목 필수조건과 같은 것은 없다. 다만 자체평가표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서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현장 평가자들이 실사를 왔을 때 따로 시간을 내서 세계지질공원 신청 후보지가 자체 평가한 해당 지질공원 관계자들과 검토한다. 경우에 따라서 일부 항목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만약 허위 내지는 과장되어 평가한 부분이 있다면 점수가 깎일 수 있다.

자체평가표(부록 2 참조)는 크게 5개의 대분류를 7개의 항목으로 나누고, 각 항목별로 최대 점수는 1,000점이며 각 항목별로 가중치는 다르다. 각 항목별 배점의 50%를 넘어야 하며, 이는 세계지질공원과 국가지질공원이 동일하다. 국가지질공원의 자체평가표의 세부 내용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자체평가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나, 일부 항목들은 국가지질공원 실정에 맞게 수정·제외하면서 세부 점수를 조정하였다(그림 11).

구분	항목	최대점수	기준치(%)
1	지질 및 경관	3,000	35
1.1	영역	1,000	5
1.2	지질보전	1,000	20
1.3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	1,000	10
2	관리구조	1,000	25
3	해설 및 환경 교육	1,000	15
4	지질관광	1,000	15
5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발전	1,000	10
합계		7,000	100

그림 11. 자체평가표 항목 및 점수 체계: 붉은 색으로 표시된 것은 교육과 지역경제발전 관련 항목

지질공원에서 제시한 8개 SDGs 목표 중 지질공원의 두 개의 큰 축인 교육과 경제발전만을 두고 보자면, 3개 항목(해설과 환경교육, 지질관광,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발전)이 여기에 해당된다. 세 가지 항목의 합은 3,000점이고, 가중치만을 보았을 때도 40%에 해당한다. 이 중 지질관광 항목은 주로 관광 인프라에 관련된 것이므로, 이를 제외한다 해도 해설과 환경교육,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발전 두 가지 항목이 총 점수의 25%에 해당한다. 각 항목별로 세부항목이 아주 세세하게 나뉘어져 있으며(부록 2 참조) 모두 정량적인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지질공원은 구체적이며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 SDGs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SDG4 양질의 교육) SDG 4에 해당하는 교육 분야는 국가지질공원의 자체평가표 3번 해설과 환경교육이 이에 해당된다. 해설과 환경교육은 '지질공원 내의 연구, 정보와 교육 과학 활동(180점), 신청지역 내의 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200점), 교육 자료의 종류(120), 신청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출판된 정보자료(100점), 학생 단체(학교 단위) 대상 지질학 교육의 제공(100점), 교육 담당 가이드(100점), 교육 단체의 방문 촉진 방법(80), 학교 프로그램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기술(IT) 활용(120점) 등 총 8개의 세부항목이 있으며, 이들 세부항목은 다시 세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항목에 대해 신청 공원은 자료를 증빙하여야 하며, 증빙이 불분명하거나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등의 사유로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다. 세부항목별 세부 질문에 대해서는 부록을 참고하면 된다.

(SDG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발전) SDG 8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자체평가표 항목 5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발전'이며, 총 6개의 세부 항목으로 나뉘어 있다: 지역의 음식, 특산물 등 촉진 노력(200점), 지역의 지질관광 제품 창안 및 촉진 노력(200), 지역 공예품 촉진 방식(150), 운영주체와 지역 업체간 연계 촉진 방식(100), 운영주체와 협력업체간 네트워크 구축 현황(150점), 운영주체와 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현황(200점). 세부항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질공원은 보존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지역주민이 참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의 기관, 업체, 마을 등과 협약 등 계약을 맺고, 교육, 관광 프로그램 혹은 실질적인 특산물, 상품 등을 개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물론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질공원의 노력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 시에는 지질공원이 지역 협력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으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과 교육·관광 등을 실행하고 있는지가 지질공원 인증 심사의 관건이 된다.

V. SDGs 이행 사례

지질공원과 관련한 8가지 SDGs 중 두 가지 큰 축은 '4번 양질의 교육'과 '8번 양질의 일자리 및 경제발전'임은 이미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이 두 가지 목표가 실제 국가·세계 지질공원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사례를 통해 살펴보려고 한다. 2개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포함한 10개의 국가지질공원의 모든 교육 및 경제 관련 사례를 다 다룰 수는 없으므로, 이 중에서 현재까지 만족할만한 수준까지 이른 몇 가지 사례만을 살펴보면서 지질공원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볼 예정이다.

10개의 국가지질공원은 지질공원 해설사를 중심으로 계층별 다양한 지질공원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주로 대상은 초·중·고등학생이며, 일반인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예를 들어,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의 '조물조물 나만의 지질 만들기'와 같은 경우는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며, 교육 대상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조금씩 바뀐다. 교육 프로그램이 중고생을 주 대상으로 한 이유는 자유학기제 시행 및 고등학교의 과학 동아리 활동의 영향이 크다.

표 1.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의 교육 프로그램 현황

구분	운영 시기	프로그램명	대상	내용
포천	4. 9 ~ 10. 29	지질체험 현장학습	중, 고등학생	주말 지질유산체험 학습
	5. 20	국제 지질유산 전문가 초청 한탄강 지질유산 학술 세미나	국제 지질유산 전문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국제적 학술가치 제고
	6. 23, ~11. 10	지질체험 - 우리고장 알기	포천시 관내 초등학생 110명	포천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탄임진강 지질공원을 포함해 포천의 역사와 문화 전반에 걸쳐 학습하는 기회 제공
	9. 29	한탄강지질공원 현장 답사	상명대 지리학과 80명	학교에서 배우던 하천의 침식지형 및 지질구조 등을 직접 관찰하고 발표도 하는 체험의 시간
	10. 22	한탄강 지형, 지질 탐방	강원대 지리교육과 30명	학교에서 배우던 하천의 침식지형 및 지질구조 등을 직접 관찰하고 발표도 하는 체험의 시간
	11. 19 ~ 11. 20	한탄·임진강 국가 지질공원으로 떠나는 지질 캠프	경기도 중, 고등학생 60명	자연현상 관찰 기회제공을 통한 과학마인드 확산, 학교 안과 밖 과학교육 연계를 통한 지질탐사 연구 활동 진행
	4~5월, 9~10월	한탄강 지질탐험대 [Geo Explorer School]	관내 중학생 20명*10개교	한탄강 지질해설 강의와 조별 현장 학습을 통한 지질유산 체험 프로그램
	4. 1 ~ 11. 4	지구과학 체험교실	중, 고등학생	주말 지질유산체험 학습
	4. 7. ~ 4. 8.	2017 한국지구과학회 학술발표 대회	학회 회원 및 국가지질공원 관계자 등	지구과학 학술발표, 지질공원 교육 연구 활성화 방안, 현장답사 등

구분	운영 시기	프로그램명	대상	내용	
포천	2017	5. 24 ~ 6. 21	한탄강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한 교사 초청연수	포천교육청 교사	한탄강 지질공원 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교사 초청 연수
		8월 중	한탄강 지질체험 캠프 '포천의 山河'	관내 중, 고등학생 50명	지질의 현장체험과 실습, 지구과학을 토의로 풀어내는 지질체험 캠프
		10월 예정	한탄강 지질캠프	중, 고등학생	지질유산을 전문적으로 교육 및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연천	2016	연중	구석기 체험마을	누구나	세계적 구석기 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지닌 연천 전곡리 유적(선사유적지)에서 운영하는 에듀테인먼트(교육+흥미)형 체험프로그램
		2. 23	2016 연천 국가지질공원 인증기념 학술 심포지엄	누구나	연천군 지역의 지질과 화석, 그리고 국가지질공원으로서의 한탄강 지질명소의 학술적 가치를 분석하고 이들의 관리 및 발전 방안 모색
		7. 4 ~ 5	지질마을 지질체험 프로그램 강좌	지질마을 및 농촌체험 강사	암석 강의 및 캔들 만들기
		7. 12 ~ 13	차탄천 에움길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	지질 및 관광 전문가, 자연유산 활용 전문가 등 20명	차탄천 에움길 걷기 행사 및간담회 개최
		9. 10 ~ 11	2016년 '한반도 지질공원, 생성의 비밀' -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 탐사	서울시 중, 고등학생 70명	중, 고등학생 대상지질공원 탐사 프로그램



그림 12. 국가지질공원 내에서 지질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1. 지질 교육

교육 부문에서는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이 인증 이후 약 2년 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연천군과 포천시는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지질공원인 덕분에 접근성이 좋아 수도권의 많은 학교에서 지질공원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장점을 염두에 두고 두 지자체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지질교육 프로그램은 단기 및 연중 프로그램을 모두 합쳐서 두 지자체가 총 30개(연천 18개, 포천 12개)에 이르며, 연천의 경우 2017년 한해에만 총 8,000명의 중고등학생 및 일반인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표 1).

교육 프로그램은 이미 있는 역사·문화·생태 등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에 지질교육을 포함시킨 것도 있고, 자체적인 지질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도 있다. 고창의 유명한 생태마을인 용계마을의 경우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에 지질과 관련한 체험 프로그램(지층 테라리움 만들기)을 추가하였고, 고창 람사르 갯벌센터에는 이미 운영 중인 갯벌 교육 프로그램에 지질·지형 내용을 추가하여 프로그램을 보완하였다.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에서 2년 간(2016~2017년) 운영한 지질교육 프로그램은 표 1과 같다. 커리큘럼은 전 지질공원 공히, 실내 교육과 야외 교육으로 나뉜다. 주로 실내교육을 1~2시간 한 뒤, 가까운 지질명소 혹은 지질 탐방로를 찾아가 실내에서 배운 내용을 실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천 등 기상 조건이 안 좋은 경우에는 가까운 지질공원 센터 혹은 박물관 등에서 실내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 대안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자체평가표에도 제시되어 있는 항목이다. 곧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지만 연천의 경우, 지질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질공원 내의 교육은 대부분 지질·지형 정보를 기본으로 한다. 지질명소를 중심으로 그 지역의 전체적인 지질의 역사, 암석의 종류, 지형의 형성 작용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실시되지만, 지질 이외에도 생태와 관련한 자연, 문화역사·고고 등 인문적인 내용도 포함된다. 다시 말해서, 지질공원은 지질학 공원이 아닌, 그 터전위에 살아가는 모든 동식물과 인간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자체평가표에서도 자연 및 문화 유산의 유무 및 해설교육 등이 이뤄지는지를 평가하게 되어있고, 지질과 그 밖의 비지질 유산과의 연계성도 다루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림 13. 시각장애인 대상 지질공원 팸투어: 좌측 상단은 시각장애이용 오디오북과 점자책

지질공원 교육은 비단 일반 탐방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도 적용된다. 국가지질공원 사무국은 2017년 3회에 걸쳐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함께 지질공원 팸투어를 실시했다. 팸투어를 위해 먼저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과 점자책을 발간하여 시각장애인도 지질공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울과 가까운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을 방문하여 지오투레일 탐방, 도자기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다(그림 13). 장애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향후 관심 있는 국가지질공원에 보급할 예정이다.



그림 14. 제주도 지질공원 해설사 및 수월봉 지오투레일 행사 주민 참여 모습

2 지역경제발전

지질공원의 또 하나의 큰 축인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발전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행되고 있다. 지역경제발전은 지질공원을 통한 지질관광과 지질교육과 관련이 깊으며, 이와 함께 특산물, 기념품, 식당, 여행사 등 다양한 업체, 협동조합, 마을 등과 협업을 맺고 있다.



그림 15. 제주도 국가지질공원의 지오후스

지질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제주도의 사례가 고무적이다. 제주도는 세계지질공원 이전에도 많은 관광객이 왔지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되면서 방문객 층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지질공원 인증 이후로 지질명소인 수월봉의 변화는 외국에서도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수월봉은 인증 전만 하더라도 제주도 서쪽의 잘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주로 지구과학 관련 전문가들이 학술적인 목적으로 다녀가거나, 인근에 위치와 차귀도 등에 바다 낚시객이 주로 방문하던 곳이었다. 지질공원 인증 이후로 수월봉을 지질명소로 등록하고, 이 지역 주민들을 수차례 찾아가 교육하고 설명하여 지역주민들을 해설사로 양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이후 수월봉을 찾는 이가 연중 1만3천에서 현재는 33만명 이상이 다녀가고 있다(Jeon, 2016). 또한 수월봉에서는 해마다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수월봉 지오투레일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많은 방문객이 참가하고 있다(그림 14).

수월봉 지역이 이름을 알리면서 지역의 해설사가 많아지게 되고, 지역주민이 주로 팔던 오징어의 수요가 급증해 지역주민들의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이름 모를 마을에서 지질공원을 통해 많은 이들이 찾아오고, 전 보다 많은 수익을 내면서 마을 주민들이 지역에 대해 공부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지역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이 커지게 되었다. 그 중에 한 지질공원 해설사는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해녀로 살다가, 지질공원 해설사가 되면서 자신의 삶이 달라지고, 마을이 달라지고, 주민들의 인식이 달라진 것에 대해 해설 때마다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도 알려져 GGN, APGN 등 지질공원 총회가 있을 때마다 그녀의 사례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사무국의 고위 관계자에 의해 소개되곤 하였다.



그림 16. 제주도 국가지질공원의 지오후드

제주도 국가지질공원은 기존의 관광에 교육을 접목하고, 지질공원을 테마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 중에 있다. 그 중에 제주도 국가지질공원의 지오 브랜드(Geo Brand) 사업은 국제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어, 많은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혹은 세계지질공원 추진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 지오 브랜드 사업은 제주관광공사가 지질공원을 테마로 민박집인 지오하우스, 지역 농산물인 지오팜, 지질을 테마로 한 음식인 지오푸드, 지질을 테마로 한 기념품 판매점인 지오샵, 지질공원 관련 체험활동인 지오 액티비티, 지질공원 정보를 제공하는 지오인포 등을 만들어 지질관광 활성화를 위해 만든 브랜드 사업이다.

특히, 기존 민박집을 운영하던 주민들을 선별해 지질공원 교육을 시키고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지원해 만들어진 지오하우스의 경우엔 성수기 때 예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활성화 되고 있으며, 지질을 테마로 한 기념품을 판매하거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지오샵과 지오 레스토랑도 인기가 있다(그림 16).



그림 17. 다양한 협력 사례들: 좌상부터 시계방향으로 연천 지오카페, 부안의 지질공원 협력 식당, 고창 용계리 지층테라리움 시연 모습, 고창 갯벌센터 교육 프로그램 점검 모습

제주도의 지오 브랜드 사업 외에도 10개의 국가지질공원은 지질공원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지질관광 상품을 개발·운영 중이다. 그 중에 연천 전곡리 선사 유적지 내 지오카페의 경우는 ‘돌도끼빵’을 커피 등과 함께 팔고 있으며, 기념품과 공예품도 전시·판매하고 있다. 지질을 테마로 한 식품은 경북동해안 국가지질공원의 ‘양남주상절리 빵’,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에도 정선 지역의 특산물인 황기를 이용해 만든 ‘황기 쿠키’ 등의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 중에 있다. 그 밖에도 이미 잘 운영되거나, 지역 산물로 만든 먹거리를 판매하는 식당 등과 협력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엔 식당에서는 지질공원 관련 정보(지도, 가이드북, 리플릿 등)를 제공하고, 지질공원 측에선 협력식당을 홍보하는 형태다(그림 17).

VI. 결론

UN에서 제시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총 8개의 목표(1번 빈곤 퇴치, 4번 양질의 교육, 5번 성평등, 8번 양질의 일자리 및 경제발전, 11번 지속가능한 도시 및 공동체, 12번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13번 기후변화 대응, 17번 지구촌 협력)를 중점 이행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지질공원은 제시된 목표의 이행에 있어 ‘기본항목 필수조건’과 ‘자체평가표’라는 제도를 통해 지질공원 후보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하고 있다. 이는 4년마다 도래하는 재인증(국가지질공원의 경우, 조사·점검) 시에도 이와 관련한 노력 및 성과에 대한 지표를 만들어 평가하고,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도 있다.

지질공원은 특히 SDG 4번 교육 및 8번 경제발전을 지질공원 운영의 큰 축으로 삼고 있으며, 지질공원은 지질·교육관광 등을 통해 이를 이행하고 있다. 국내의 지질공원들은 모두 이러한 지질공원 교육 및 관광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과 제주도 국가지질공원을 사례로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지질교육 및 관광은 이루어야 할 것이 많다. 첫째,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 약 5년에 이르는 국내 지질공원 역사를 보면, 각 지질공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단발성에 그치는 경우도 많고, 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급조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여러 프로그램을 시험해 보고, 그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을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을 이룰 필요가 있다. 둘째, 각 지질공원 특성에 맞는 지역 협력 프로그램을 찾아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지질공원은 이미 그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을체험 프로그램에 지질을 테마로 한 것이 추가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있으며, 각 지질공원의 특성과는 상관없이, 다른 공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지질공원의 현실과 환경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셋째, 이러한 교육·관광 프로그램을 전문화 시킬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각 지자체는 지질공원전문가가 지질공원 운영을 맡고 있지만, 인증 이후 교육 및 관광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 혹은 관광 관련 전문가의 확충이 요구된다. 만약 각 지자체에서 이러한 인적 자원의 확충이 어렵다면, 국가지질공원사무국 내에 이러한 전문가를 두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Jeon, Y.M., Ki, J.S., Ko, Y.J., and Ko, J.G., (2016) Study on geotrails of Jeju Island Geopark and its vitalization, World Heritage and Mt. Hallasan Institute, Yeollin Publishing, Jeju, 145p.

Kim, Y.B., Kim, B.C., and Lee, Y.N., (2005) Research on National Geopark for UNESCO Nominated World Geopark Construction,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s and Mineral Resources.

Korea Environment Institute and Geological Society of Korea, 2014, The Discovery and Evaluation of Geoheritage of Korea I: Seoul and Suburban Area, Korea National Park Service: Geoparks Secretariat of Korea, Seoul, 453p.

Kwon, S. and Park, K (2017) Transition from Millenium Development Goals(MDGs) to Sutable Development Goals(SDGs): Its Opportunities and Limits, 23(62~88)

Lee, S.J., Lee, Y.J., Kim, J.Y., and Lee, J.H., (2003) Strategy for the Protection and Geological and Geomorphological Heritage in Korea, Korea Environment Institute, 177p

Lee, S.J., 2008, Geological Heritage and Management in Korea, Korea Environment Institute, 115~227p

Lee, S.J., 2010, Policy Plan Research of the Geopark system in Korea, Korea National Park Service, 223p
Ministry of Environment (2016) The Study on the Role of Local Governance for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95p.

Moon, C. and Ryu, W., (2016) The Korea Geopark System, Journal of Geological Society of Korea

Ryu, W. and Moon, C., (2016) The analysis of survey on the awareness of National Geoparks, Journal of Geological Society of Korea

UNESCO, 2017a, Operation Guidelines for UNESCO Global Geoparks

UNESCO, 2017b, <http://www.unesco.org/new/en/natural-sciences/environment/earth-sciences/unesco-global-geoparks/> (November 15, 2017)

UNESCO Global Geoparks Main Villages Vitalization Project, 2016, <http://jeugeopark.com/> (September 8, 2016)

United Nations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부록1>

국가지질공원 기본항목 필수 조건

기본항목	필수조건
1. 지질과 경관	
가. 지질명소 개소 수	국가적 학술가치1)가 있는 명소 5개소 이상(단, 국제적 학술가치2)가 있는 1개소 이상 포함)
나. 지질명소 중 공개 해설 장소의 개소 수	지질명소의 50% 이상
다. 지질명소 데이터베이스 및 지도(수치지도)	있음
라. 지질명소 오염 및 훼손 방지 행동규범(조례 등)	있음
마. 지질명소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와 청소	공개해설장소
바. 지질공원 해설사 상시 배치	공개해설장소의 50%이상
사.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 간담회 등 개최 실적(공청회 제외)	4회 이상
2. 관리 및 운영 인프라	
가. 지질공원 예산 편성(신청 전 편성)	있음
나. 지질공원 기본계획 또는 관리계획(신청 전 수립)	있음
다. 지질공원 담당 지질·지형관련 전문가	1인 이상
라. 지질공원 전담 행정 직원	1인 이상
마. 지질공원 센터(전시기능 포함)	있음
바. 지질 탐방로	1km 이상
3. 지질공원 관광 및 교육	
가. 탐방객 안내 센터(전시기능 제외)	2개소 이상
나. 마케팅 자료(안내책자 등)에 사용된 언어	국어, 외국어(2개이상)
다. 지질공원해설사가 안내하는 해설프로그램	있음
라. 지질공원 홈페이지 구축	있음
마. 탐방객 수의 계수(인력, 기계 등)	공개해설장소 50%이상
바. 탐방객의 이용행태 분석	연 1회 이상
사. 계층(초등, 중고생, 일반)별 교육프로그램	전 계층 있음
4.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	
가. 운영주체와 지역(마을) 및 업체(식당, 특산물 등)간 네트워크 구축	있음

〈부록2〉

국가지질공원 자체평가표 세부항목별 최대 점수

세부항목	최대 점수
1. 지질과 경관	3,000
가. 영역	1,000
1) 지질명소(Geosite) 목록	200
2) 지질 다양성(Geodiversity)	300
3) 지질공원내 공개 해설 장소의 현황	200
4) 지질공원 영역의 포함 범위	300
나. 지질 보전	1,000
1) 지질명소 종류 및 중요성	300
2) 지질명소와 형상의 훼손 방지규범	300
3) 지질명소의 오용과 훼손 방지대책	400
다.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	1,000
1) 자연유산의 등급별 분포 현황	300
2) 문화유산의 등급별 분포 현황	300
3)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의 해설 및 교육	400
2. 관리 구조	1,000
가. 신청지역의 관리기구 구조	200
나. 지질공원 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 유무	40
다. 지질공원 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 내용	160
라. 마케팅 전략 유무	50
마. 지질·지형유산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지질관광 개발 이행	80
바.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을 담당하는 그룹, 단체, 기관 등	20
사. 지난 5년 간 수상 실적(지질다양성, 보전, 지질관광 분야 등)	100
아. 지질학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보유 현황	150
자. 신청지역의 기반시설 현황	200
3. 해설과 환경 교육	1,000
가. 영역 내의 연구, 정보와 교육 과학 활동	180
나. 신청지역 내의 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	200
다. 교육 자료의 종류	120

세부항목	최대 점수
라. 신청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출판된 정보자료	100
마. 학생 단체(학교 단위) 대상 지질학 교육의 제공	100
바. 교육 담당 가이드	100
사. 교육 단체의 방문 촉진 방법	80
아. 학교 프로그램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기술(IT) 활용	120
4. 지질관광	1,000
가. 홍보물의 종류	70
나. 마케팅 자료(브로셔, 안내책자 등)에 사용된 언어	80
다. 지질공원 센터(전시기능 포함) 현황	100
라. 탐방객 센터, 안내센터 등에서 정보와 해설의 제공 방식	70
마. 탐방객의 접근성 및 시설	100
바. 대중교통 정보 사전 제공 방식	50
사. 운영주체(협력단체 포함)가 개발한 안내관광의 종류	100
아. 인터넷 활용도 및 제공되는 정보 내용	140
자. 자전거, 래프팅 등 야외활동용 기반시설	100
차. 지질관광 운영주체와 협력업체간 연계성	50
카. 지속가능한 탐방로 현황(예: 자동차 배제)	60
타. 탐방객에 대한 평가	80
5.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	1,000
가. 지역의 음식, 특산물 등 촉진 노력	200
나. 지역의 지질관광 제품 창안 및 촉진 노력	200
다. 지역 공예품 촉진 방식	150
라. 운영주체와 지역 업체간 연계 촉진 방식	100
마. 운영주체와 협력업체간 네트워크 구축 현황	150
바. 운영주체와 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현황	200



04

SDGs 이행을 위한
유네스코 네트워크 포럼 결과





종합토론

“SDGs 국내 이행 및
파트너십 구축”



종합토론: SDGs 국내 이행 및 파트너십 구축

○ **일시:** 2017년 11월 30일 오후 5시 ~ 6시

○ **장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1층 유네스코홀

○ **토론자**

분야	토론자
여성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센터장
청소년	권혁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기획부장
생물다양성	양두하 국립공원관리공단 박사
해양	이윤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사
물	홍일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지질다양성	최옥곤 지권환경연구소 박사

<p>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센터장</p>	<p>SDGs의 성 평등 목표, 과제 및 지표들은 불평등을 낳는 차별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기때, SDGs가 얼마나 성에 반응적(gender-responsive)인 방향으로 이행될 수 있는지가 성공적인 SDGs 이행의 주요 과제라고 생각됨.</p> <p>더불어, SDGs는 복잡한 체계이기때 이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함. 젠더 측면에서 SDGs 이행시스템을 구축하자면 SDGs 젠더 목표와 관련 과제 이행 측정을 위한 지표 및 통계 수집 시스템을 도입하여, 향후 15년 동안의 젠더 관련 과제 및 정도에 관한 분석과 예측시스템으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성 평등 목표와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를 위한 확고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임.</p> <p>유네스코가 이미 글로벌 우선과제로 성 평등(gender equality)을 선정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 평등을 이끌고 있음. 예를 들어, 유네스코는 'HeForShe 캠페인' 등 성 차별적인 인식을 전파시킬 움직임에 동참함. 지속가능발전은 이처럼 새로운 변화를 위한 언어, 태도, 행동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음.</p> <p>그 후의 SDGs 이행 수단으로서의 법과 제도를 준비해야 될 텐데, 젠더에 대한 선이해가 필요한 부분임. 이는 유네스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념 확산을 통해 이루어지길 기대함.</p>
--------------------------------------	---

<p>권혁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기획부장</p>	<p>청소년 분야의 SDGs 이행 기여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SDGs 이행을 주도할 핵심 그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음. 청소년 쪽은 청소년 활동의 총괄 지원 분야, 상담 복지 영역, 그리고 청소년 보호 활동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음. 이처럼, 청소년 분야는 많은 SDGs와 연관되어 있기에, 향후 현장에서의 혹은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SDGs 이행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예를 들어, 국가 청소년 지도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SDGs 기본 소양을 가르칠 수 있는 의무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p> <p>SDGs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 기관, 마지막으로 개인 단위에서의 역할이 있을 것임. 국가차원에서는 어떤 정책과 기준으로 기반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하며, 오늘 자리를 계기로 기관 단위에서도 추후 관련 논의를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음.</p> <p>마지막으로, 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감사 운동'은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운동이기때, SDGs가 추구하는 이념과 크게 다르지 않음.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SDGs 이행을 생활화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정부, 기관 및 개인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SDGs 이행에 청소년 분야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음.</p>
<p>양두하 국립공원관리공단 박사</p>	<p>지속가능발전 개념에 생물다양성은 중요한 기반임. 생태계는 '보호' 개념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 생계와 연관되어 있기에 생물다양성은 SDGs와 많은 부분 깊게 연관되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중요성은 각광받고 있음.</p> <p>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SDGs의 이념들을 반영하려 정부부처에서 많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SDGs 관련 정책들이 통합되어 있지 않은 점이 아쉬움. 이에, 각 부처가 협력하여 SDGs 국내 이행을 어떻게 잘 이끌어낼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p> <p>예를 들어, 동일한 '보호지역' 일을 하고 있지만, 연관된 정부 부처는 다양하며 관리도 제각각임. 보다 효율적인 SDGs 이행 정책 수립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 예산 및 인력 등 관련 기반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SDGs 이행을 추진해야 할 것임.</p>

<p>이윤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사</p>	<p>앞서 지속가능발전 정책 이행의 통합적인 접근에 대해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새롭게 바뀌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됨. 이에,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여러 부처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며, 다양한 부처가 관여할 수 있도록 역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p> <p>더불어, SDGs에 해양이 독립적인 항목으로 포함된 것이 매우 의미 있음. 인류의 1/3 정도가 연안 100km 이내에 살고 있으며, 바다가 생을 유지하는 수단임.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의 반이 바다로부터 공급되고 있으며,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상품 유통업의 수출입 대부분이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짐.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바다는 생존의 필수 요건인데, SDG를 통해서 해양의 중요성이 주목받아 큰 의미가 있음.</p> <p>해양이 많은 분야와 연관될 수 있음. 여성 분야에서 SDGs 이행의 방안으로 여성의 참여 증진 등을 강조해주셨는데, 해양 분야에서도 여성의 참여가 적음. 이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도 STEM village 수립 계획에 여성의 참여를 높이도록 하겠음.</p> <p>또한, 교육과 활동에 제약을 받는 섬 청소년 문제도 관심 있게 봐야 한다고 생각됨. 섬이 가장 많은 신안군이 MAB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에, 해양수산부와 국립공원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물 안보 분야에서도 해수담수화 사업 등 다양한 연계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지질공원 역시 지질형성과 해양 과학의 연관성이 높기에, 해양 분야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됨.</p> <p>해양 분야의 SDGs 이행을 위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자발적 기여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해양과학 분야에서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 것임. 전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 의장이셨던 변상경 위원님, 폐기물 해양투기방지 총회의 의장을 최근까지 맡아 주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홍기훈 원장님,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이회성 의장님, 국제수산기구 관계자 등 많은 분들이 국제기구에서 활약하고 계심. 다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에 비해 국가 차원에서의 리더십이 부족하여 아쉬움이 있음. 해양수산부와 외교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 관련 부처 및 전문가들이 협력하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국가적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임.</p> <p>이에, SDGs의 여러 분야를 포함시켜서 UN 해양 지속가능발전 대학 등을 유치하는 것도 SDGs 이행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더불어, UN 대학 유치는 다양한 분야에서 해양 관련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 해양수산부, 외교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에서 좀 더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음</p>
------------------------------------	---

<p>홍일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p>	<p>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수자원연구부에서 물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오늘 SDGs 기여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포럼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함. MDGs 때와는 다르게 SDGs라는 글로벌한 의제를 논의하며, 이를 어떻게 이행하고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그 동안의 한국의 발전을 보여준다고 생각함.</p> <p>그러나 SDGs 이행을 위한 개개인의 노력과는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 본다면 한국은 추후 많은 노력을 해야함.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 계획을 SDGs와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SDG와의 연관성은 충분히 있지만, 부처별로 편중되어 있는 분야가 많음.</p> <p>물 분야의 경우, 2015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High-Level Panel on Water"가 설립됨. 패널로 총리나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여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안전한 식수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물 환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이를 위해 물 데이터 수집 및 물에 대한 가치 평가 등의 활동들을 추진함.</p> <p>결국 SDGs 이행을 위해서는 거버넌스가 가장 중요함. 관련 부처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SDGs 이행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줬으면 좋겠음. 더불어, 물 분야에서도 개발협력이 중요하기에, SDGs 이행과 더불어 정부 개발 원조 등을 통해 어떻게 국제사회에 기여할지 함께 논의가 필요함.</p>
<p>최옥곤 지질환경연구소 박사</p>	<p>지질공원은 2015년 유네스코 공식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으면서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음. 지질공원은 경제 활성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인간의 자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활용도가 높음. 지질공원을 통해 보다 지질자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SDGs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음.</p>

○ 기타 의견

<p>조우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제협력팀 팀장</p>	<p>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함. 다양한 기관에서 오셨는데, SDGs 이행을 위해 각 기관의 분야와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음.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논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 것이며, 국가수준에서 SDGs 이행을 위한 대화나 정책을 위한 소통의 자리가 만들어질 때, 오늘 포럼에 참여해주신 분들이 주역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p>
<p>변상경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인문사회·자연과학 부위원장</p>	<p>인문사회·자연과학 분야에서 함께 어우러져 논의할 수 있는 오늘 자리가 뜻 깊음. SDGs 이행의 3개의 축은 환경, 경제, 사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사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됨. 이에, 사회와 협력을 통해 SDGs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각 기관의 노력과 고민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이행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도 참여하여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p>



포럼 사진



유네스코 인문·사회·자연과학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 국내 이행 방안 연구 포럼 사진



개회사_김귀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문화본부장



축사_변상경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인문사회·자연과학 부위원장



단체사진



기조발표_임현묵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본부장



주제발표1-1 여성_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은하 국제개발협력센터장



주제발표2-1 생물다양성_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 허학영 연구위원



주제발표1-2 청소년_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세영 부연구위원



주제발표2-2 해양_해양수산부 국제기구팀 홍근형 사무관



주제발표2-3 물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 임광섭 박사



10. 주제발표2-4 지질다양성 국립공원관리공단 국가지질공원사무국 유완상 박사



종합 토론 전경 1



종합 토론 전경 2

**유네스코 인문·사회·자연과학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 국내 이행 방안 연구**

펴낸때 2017년 12월 26일
펴낸곳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펴낸이 김광호
편집 김은영 이수연
디자인 ㈜금강디자인브릿지 (02 2266 6750)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우)04536
전화 (02) 6958 4183
팩스 (02) 6958 4252
이메일 leesouyeon@unesco.or.kr
홈페이지 www.unesco.or.kr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간행물등록번호 | SC 2017 RR 1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7

©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17